

各司膳錄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 1

黃海監營狀啓膳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 1

各司膳錄 22책, 黃海監營狀啓膳錄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황해도편  
자료집  
1

黃海監營狀啓膳錄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목 차

해제 | 7

일러두기 | 19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사등록(책)	쪽수
0001-0018	1832년 순조 32년	황해감영장계등록 1책	각사등록 22책	22
0019-0064	1833년 순조 33년	황해감영장계등록 2, 3책	각사등록 22책	52
0065-0092	1834년 순조 34년	황해감영장계등록 4책	각사등록 22책	109
0093-0147	1838년 헌종 4년	황해감영장계등록 5책	각사등록 22책	139
0148-0191	1845년 헌종 11년	황해감영장계등록 6책	각사등록 22책	206
0192-0235	1848년 헌종 14년	황해감영장계등록 7, 8책	각사등록 22책	265
0236-0275	1850년 철종 원년	황해감영장계등록 9책	각사등록 22책	319





---

해제

---

## 1. 시간을 담은 문서의 질감 : 『각사등록』의 자료적 특징과 현황

『각사등록(各司謄錄)』은 중앙과 지방 간의 왕복 문서 및 등록류를 편집·정리하여 영인한 조선시대 기초 사료집으로서, 계록(啓錄), 등록(謄錄), 관첩(關牒),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연대는 임진왜란 이전 일부를 비롯해 1910년 대한제국기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주요 기록은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다. 『각사등록』에 수록된 문서의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도 일부 남아있다. 1980년대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101책의 영인본으로 간행하였고, 최근 국역화 및 온라인서비스를 병행하여 자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101책 중 1책에서 55책까지는 도별 행정문서들을 총집해 놓았는데, 중앙에 보고되지 않은 지방관아의 보고문서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지방사회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각사등록』의 도별 자료는, 경기도(1~6책), 충청도(6~10책), 경상도(11~17책), 전라도(18~21책), 황해도(22~26책), 강원도(27~28책), 평안도(29~41책), 함경도(42~46책)의 순으로 영인되었으며, 이밖에도 48~55책까지는 경기도 보유편(47책), 충청도 보유편(48책), 경상도 보유편(49~52책), 전라도 보유편(53~54책), 황해도·강원도 보유편(55책) 등으로 1~46책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이 보유편으로 성책되어 있다. 이중 1~46책에는 우택, 측우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 기상 정보를 통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한편 『공문편안(公文編案)』은 1894년 7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탁지부와 각 아문·부·도·군·읍 사이에 오간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총 99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공문편안』에는 갑오개혁 이후 제도개혁에 따른 중앙의 훈령과 지시 사항에 대해 지방에서의 처리 방안 및 문제점을 보고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19세기 말~20세기 초 유생들의 동학교도 비난, 수재와 흥년으로 인한 민정의 피해 상황, 이서배들의 중간 수탈, 역둔토의 조사 및 정부로의

귀속 조치 등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공문편안』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공문편안』에는 『각사등록』과 마찬가지로 측우, 우택에 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은 『공문편안』이 근대이행기 『각사등록』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록자료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각사등록』과 그것의 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공문편안』은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관료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문서행정의 보고이자 지방사회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회사자료로서 연구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2. 『각사등록』에 담긴 측우 기록의 역사성

### 1) 하늘에서 온 데이터, 땅에서의 응답 : 조선 전기 농업정책과 측우 행정

전근대 동아시아국가들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국왕의 통치행위에 접목시켜 해석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발전시켜왔다. 국왕은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성한 권위자로서 각종 의례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한편, 백성의 삶을 돌봐야 하는 통치자로서, 농업, 부세, 진휼정책을 추진하여 수신(修身)과 애민(愛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리학적 통치이념 하에 성립된 조선왕조는 특히 기상천문과 관련된 의례를 고도화하는 한편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혹은 재이론(災異論)에 입각한 감선(減膳), 기우제 설행 등의 도덕적 통치 행위를 일상화해갔다. 또한 건국 초부터 유교적 농본국가를 표방하였기에, 농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별, 계절별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질환경과 수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고려말부터 연작 상경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파종법, 시비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농서를 편찬하고, 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으나, 지질 특성상 수차 보급이 여의치 않았던 조선에서는 제언, 천방을 설치하는 선에서 관개시설의 보급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큰 제언을 조성하려면 농민들의 노동력을 일시에 동원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데다가 제언 주변의 농지만이 물대기에 용이할 뿐더러 천방의 경우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낙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의 논에는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의 농지는 강우량의 의존도가 높은 천수답(天水畓)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절기별, 지역별 강우량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각도 군현의 지방관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우택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보고하는 우택 정보는 ‘읍진(浥塵)’, ‘1서(鋤)’, ‘1려(犁)’, ‘천거창일(川渠漲溢)’, ‘강천범람(江川汎濫)’과 같이 지역에 소재한 농지와 하천을 기준으로 한 정보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량화되고 표준화된 강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441년(세종 23) 문종의 주도로 측우기를 제작하여 각도 군현에 보급함으로써 우택 정보를 보완하는 측우기의 측량값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제로 1441년(세종 23) 4월 29일 『세종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에 근심하여 비가 올 때 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分寸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주조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分寸을 조사하였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측우기를 통한 강우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대 이후 중앙에 보고되는 측우, 우택 기록은 한 해의 농형(農形)을 진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도 감사와 각읍 수령의 주요 행정 업무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전기 우택, 측우 기록은 하늘의 현상을 관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과 재해 대응, 부세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정책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측우기는 선초부터 중앙에 보고된 우택 정보를 계량화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강우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올라온 강우 데이터 및 농형 정보를 바탕으로 당해 농업 생산량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세입 산정과 진휼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토지의 수세 가능 면적이 감소하고 행정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측우 행정 또한 일시적으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 2) 강우기록, 국가를 다시 세우다 : 양난 이후 측우 행정의 복원과 활용

17세기 양난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경신·을병 대기근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왕조는 농업정책과 진휼 및 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토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전세 및 대동세의 수취 기반을 정비해나갔으며,

전국의 교통 요지에 진휼창을 설치해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어 1770년(영조 46)에는 측우기를 복원하여 각 도의 감영과 유수부에 설치하고, 강우량과 농업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조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위해 전대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던 중 세종대 측우기가 제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위 46년 5월 1일, 세종조의 옛 제도를 모방해 측우기를 만들어 창덕궁과 경희궁에 각각 설치하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설치해 강우량의 척촌(尺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정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각도 감영과 유수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우택과 농형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올리면서 측우기의 측량값도 함께 보고하게 되었다. 보고 내용에는 강우뿐 아니라,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홍수·지진·해일·충해 같은 자연재해와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되었다.

그런데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는 전국 군현에 모두 설치되지 않고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사료 상에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배경 요인을 들자면, 18세기 이래 고도화된 도단위 행정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이후 비충제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는 각읍에 풍흉의 정도와 재해 상황을 반영해 도별로 급재(給災)를 인정해주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도 단위 행정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우선 1713년(숙종 39) 이래 팔도구관당상제(八道句管堂上制)를 시행하고 전임 감사를 해당 도의 구관당상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감사·수령의 행정 체계를 관리, 감독하도록 한 조치가 주목된다. 각도 감사 외에 비변사에서 각도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구관당상을 임명하여 도의 현안을 현실감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65년(영조 41) 무렵에는 비록 313개 군현에 그치기는 했지만, 『여지도서』라는 전국 단위 관찬 지리지를 편찬함으로써 호구, 토지, 물산, 조세, 환곡, 군역 등의 부세 자원에 관한 도별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비충제 역시 이러한 지방통치시스템의 연장선 상에서 시행된 부세제도로서 각도 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었다. 따라서 1770년(영조 46) 복원된 측우기를 각도와 유수부에만 설치한 것은 이러한 도 단위 부세행정 시스템이 강화된 상황에 기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1770년(영조 46) 측우기 복원 이후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 내외 관상감은 물론 지방 감영과 각도 유수부에 측우기가 보급됨으로써 계량화된 강우량이 조정에 보고

되었으며, 각 군현에서 수집된 우택 정보 역시 각도 감영을 통해 조정에 보고됨으로써 조선후기 측우 행정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존하는 『각사등록』의 우택, 측우 기록은 조선후기 측우 행정이 재정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문서행정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측우 행정 시스템은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져 근대적 공문첩인 『공문편안』에까지 우택과 측우 정보가 실리게 되었다. 1770년(영조 46)에 복원된 조선왕조의 측우행정 시스템이 근대적인 기상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110여 년간 장기지속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측우 행정의 성립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각사등록』 상에 우택, 측우 기사가 실리게 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기록을 총집, 번역한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구성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 3.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대상자료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당해 11월 17일에 걸쳐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 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의 결과물로 간행된 번역서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각사등록』 상의 측우, 우택 관련 기록들을 검출하여 도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측우 기록을 검토하고 기상환경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000년대 이후 기상학 분야에서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1차 수집, 정리하고 도별 특징을 분석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번역 상의 오류와 기사 누락이 많고, 자료 출처와 DB 작성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既번역 자료 및 통계 DB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8개월에 걸쳐 既번역된 『각사등록』의 우택·측우 기록을 검토해 번역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일관된 번역 원칙에 따라 용례를 통일하여 번역한 후 교차 검토를 통해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누락된

원문 자료를 찾아내어 OCR작업으로 원문을 추가로 입력하고 새로 번역함으로써 『각사등록』 상의 우택·측우 기록을 총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총 15권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의 형태로 공식 출판하고 통계 DB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번역 총서는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 경상도편, 전라도편, 강원도편, 황해도편(1·2), 평안도편(1·2·3·4), 함경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역대상 자료는 아래 <표 1>과 같다. 번역 총서는 우택, 측우, 농형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해만 번역 대상 연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는 자료에 수록된 전체 작성 연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 1>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번역 대상 자료

지역	각사등록 등	서명	작성연대
경기도	각사등록 1책	기영장계등록	1783년(정조 7)~1784년(정조 8)
	각사등록 4책	광주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9년(고종 6)
	각사등록 5책	광영계록	1870년(고종 7)~1893년(고종 30)
		화영계록	1845년(헌종 11)~1876년(고종 13)
	각사등록 4책	개성부유영장계등록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74년(고종 11)~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1892년(고종 29)
	각사등록 4책	이등계록	1830년(순조 30)~순조 31년(1831),
		강화부유영장계등록	1847년(헌종 13), 1851년(철종 5), 1856년(철종 7)~1860년(철종 11), 1876년(철종 13)~1879년(고종 16)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82책	공문편안	1895년(고종30)
충청도	승정원일기 탈초본 138~141책	승정원일기	1894년(고종 31)~1907년(순종 1)
	각사등록 6~7책	충청감영계록·금영계록	1835년(헌종 1)~1837년(헌종 3), 1844년(헌종 10)~1845년(헌종 11), 1852년(철종 3)~1855년(철종 6), 1861년(철종 12), 1871년(고종 8)~1878년(고종 15), 1895(고종 32)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32책	공문편안	1896년(건양 1)~1900년(광무 4)
경상도	각사등록 11책	경상감영계록	1863년(철종 14), 1872년(고종 9), 1890년(고종 27), 1902년(광무 6)
	각사등록 17책	통제영계록	1871년(고종 8), 1873년(고종 10)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6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전라도	각사등록 18책	전라감사계록	1829년(순조 29), 1845년(헌종 11), 1847년(헌종 13), 1849년(헌종 15), 1854년(철종 5), 1876년(고종 13), 1885년(고종 22)~1889년(고종 26)
		호남계록	1878년(고종 15)~1880년(고종 17), 1885년(고종 22)~1887년(고종 24)
	각사등록근대편 공문편안 64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
강원도	각사등록 27책	강원감영계록	1831년(순조 31)~1832년(순조 32), 1856년(철종 7)~1857년(철종 8), 1860년(철종 11)
		관동계록	1892년(고종 29)~1893년(고종 30)
		춘천유영계첩록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황해도	각사등록 22~24책	황해감영장계등록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3), 1838년(헌종 4), 1845년(헌종 11), 1848년(헌종 14), 1850년(철종 1),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공문편안 52책	공문편안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평안도	각사등록 29책	관서계록	1822년(순조 22)
	각사등록 29~33책	평안감영계록	1830년(순조 30), 1831년(순조 31), 1833년(순조 33), 1834년(순조 34), 1835년(헌종 1), 1836년(헌종 2), 1838년(헌종 4), 1840년(헌종 6)~1843년(헌종 9), 1844년(헌종 10)~1843년(헌종 11),



			1848년(헌종 14)~1850년(철종 1), 1852년(철종 3)~1853년(철종 4), 1855년(철종 6)~1858년(철종 9), 1861년(철종 12)~1862년(철종 13), 1864년(고종 1)~1870년(고종 7), 1873년(고종 10)~1874년(고종 11), 1883년(고종 20)~1884년(고종 21)
함경도	각사등록 42책	함경감영계록	1856년(철종 7), 1862년(철종 13)~1867년(고종 4)
	각사등록 43책	함경북병영계록	1846년(헌종 12)~1847년(헌종 13), 1850년(철종 1), 1851년(철종 2), 1888년(고종 25)~1890년(고종 27)
	공문편안 78·91책	공문편안	1897년(건양 2)~1898년(광무 2), 1900년(광무 4)
	원산해관관측소	원산해관관측소	1885년(고종 22)~1907년(융희 원년)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 1>에 실린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하겠다.

#### 4.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의 내용 구성과 활용 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은 『각사등록』 중에서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황해도 지역에서 관측된 기후 및 농형 자료를 총집하여 번역한 자료집이다. 『황해감영장계등록(黃海監營狀啓謄錄)』과 『공문편안(公文編案)』에 기록된 측우기 및 우택 자료를 알기 쉽게 번역함으로써 당대 기후 변화와 농사 활동과의 관계는 물론, 전근대 기후 패턴을 복원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 편찬 체제와 내용 구성

『황해감영장계등록』은 조선 후기 황해도 감영에서 작성한 장계들을 베껴 써 모아 놓은 자료로서, 1832년(순조 32)부터 1899년(광무 3)까지 약 68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는 황해도 지역의 우택과 측우, 농형, 자연재해, 부세 수취 등 도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원본은 100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22책만 남아 있으며 책과 책 사이에 몇 달에서 몇 년간의 기록이 빠져 있다. 이 등록은 일정한 편찬 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은 아니며, 수록 기간은 책마다 5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다. 표제는 대부분 『황해감영계록』으로 되어 있으나, 제18책과 제20책은 ‘해영계록(海營啓錄)’이라는 별도의 표제가 붙어 있다. 『황해감영장계등록』에 기록된 기후 및 농형 관련 기사는 순조 연간(1832~1834년), 헌종 연간(1838, 1845, 1848), 철종 연간(1850, 1854~1855, 1860, 1863), 고종 연간(1866~1867, 1888~1889), 광무 연간(1897~1899)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광무연간에 작성된 계문 역시 이전 시기와 동일한 보고 형식을 띠고 있다.

『황해도감영계록』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황해도의 우택, 측우, 농형 기사의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택 정보는 각 고을에서 비온 후 곧바로 감영에 보고했는데, ‘읍진(浥塵: 먼지를 적실 정도의 비)’, ‘1서(鋤: 한 번 호미질할 깊이의 비)’, ‘1려(犁: 한 번 쟁기질할 깊이의 비)’와 같이 농지와 농기구를 활용해 강우의 등급을 매겨 보고하였으며, 큰비가 내렸을 경우 ‘천거창일(川渠漲溢)’, ‘천거창류(川渠漲流)’, ‘천거창만(川渠漲滿)’과 같은 표현을 쓰고 피해의 실상을 함께 알렸다. 이때 관찰사는 감영에 소재한 측우기의 수심[尺-寸-分]을 확인해, 각 고을의 우택 정보와 함께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밖에 홍수,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 및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보고해 올렸는데, 황해도의 경우 서해안에 인접한 고을에서 자주 바닷물이 넘쳐 농작물이 손상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업 상황에 대한 기록도 매우 구체적이다. 각읍 수령은 우택 정보를 감영에 올리면서 농형도 함께 보고하였는데, 황해도 주요 작물의 파종과 생육, 작황을 기후 환경과 관련지어 상세히 기술하였다. 황해도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올기장, 올조, 늦기장, 늦조, 수수, 목화, 콩, 팥, 메밀 등이다. 특이한 점은 여타 밭작물 외에 산밭[山田]의 화속[火粟]에 대한 생육과 피해 상황도 함께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황해도의 경우 평야가 적어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데다가, 민간에서 산허리에 화전을 만들어 밭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산밭 즉 화전 작물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897~1898년까지 『공문편안』 상에도 황해도의 우택, 측우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은 비가 올 때마다 도내 각군에서 올린 우택 자료를 정리하고 관찰부 내에 소재한 측우기의 수심을 파악해 이를 함께 중앙에 보고하였다. 기사량이 많지 않고 농형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으나, 조선후기에 새롭게 정비된 측우행정 시스템이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 자료의 활용가치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은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황해도의 강우량과 농업 작황, 재난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어 지역의 사회상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향후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기후사 연구에서 황해도 지역의 강우 패턴과 재해 발생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황해도의 지리 환경은 평야가 적고 산간 지대가 많으며, 서해안으로 지형이 돌출되어 있어 서해 바다가 황해도의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19세기 황해도에 전과 다른 위기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진단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농업사 연구에서 기후와 농업 활동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 역시 타도와 마찬가지로 측우뿐 아니라 농형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종류뿐 아니라 파종, 제초, 이앙, 추수에 관한 절기별 농사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에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에 실린 측우-농형 기사의 분석을 통해 황해도 지역의 기후환경과 농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재정사 연구에서 기후환경에 따른 농업구조와 부세행정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 측우기 제작이 공법제도의 시행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영조대 측우기 복원 역시 1760년(영조 36) 비총제가 법제화되고, 도별 부세행정체계가 고도화된 조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 기존의 재정사 연구가 토지의 생산량과 부세 수취와의 관계만을 다루었다면,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에 실린 우택, 측우 기사는 토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요인과 이를 행정 시스템 하에서 파악하

고자 한 정부의 정책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측우-농형-부세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해내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시대 재해정책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꾀할 수 있다. 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지역 사회의 대응 방식과 중앙 보고 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해정책과 재난관리체계의 실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에는 기상 정보 외에 농형에 영향을 미치는 충해, 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우제 설행 및 구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조선후기 지역별 재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 연구에서 환경사적 관점을 접목한 연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에 실린 도내 기후환경과 농업 정보, 재난 상황과 대책 등은 전근대 황해도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황해도가 조선시대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의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 극복해갔으며 한편으로 근대적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역사적 추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은 조선시대 기후환경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적할 수 있는 원천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황해도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2024년도 국립기상박물관 조선시대 역사기록물의 우량관측 자료 복원 및 검증 연구」사업의 결과물이다.
- 이 책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등록류 등을 영인 간행 한 『각사등록』에서 기상 자료를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저본으로 하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원본 자료를 참조하였다. 『각사등록』은 음력 날짜로 되어있고, 1896년 양력사용 개정 이후 자료인 『공문편안』은 양력 날짜로 되어있다.
- 이 책은 각사등록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총 8도의 측우자료를 번역검증하여 역사기후자료집 경기도편1·2·3, 충청도편(1·2)·경상도편·전라도편·강원도편·황해도편(1·2)·평안도편(1·2·3·4)·함경도편으로 총 15권으로 엮었다.
- 번역은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과 보충역을 했다.
-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은 국립국어원이 정한 어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학계의 관례를 따랐다.
- 편집순서는 영인본의 순서를 따라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전근대 기후 자료는 특유의 문체와 표현 방식이 있어, 이를 그대로 살려 현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문 원문을 번역문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문 독자들이 원문의 독특한 표현을 느끼고 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번역문은 일반 독자가 전근대 기상 자료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원문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오늘날 통용하는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었다.
-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독자가 글의 흐름을 유지하고, 현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해당 일자의 기사는 전문을 번역하였으나 기상 현상과 거리가 먼 경우 생략하였다.
- 원문의 단순 오탈자의 경우 내용에 파악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교정, 교감하지 않았다.
- 문건별로 일련번호를 달았고, 영인본 면수를 표기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나 관용적 표현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 곡물 명칭과 도량형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 지침』을 따랐다.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 1

---

## 0001. 1832년(순조 32) 7월 2일(양력 7월 2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1a~1b)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1a~1b)

海州等十八邑, 去六月二十四五日得雨形止及臣營下二十七八<日>測雨器水深四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四五日之雨, 平山·遂安·新溪·谷山·兔山等五邑, 大小川渠, 無不漲溢, 傍川田畝, 在在汰覆, 而兔山段, 民家間或漂流, 摘奸更報計料是如爲白乎跡. 二十七八日之雨, 海州·康翎·襄津·信川·載寧·黃岡·白川·金川等八邑, 川渠漲流, 文化·延安·松禾·鳳山等四邑, 得三犁, 而載寧段, 堰垆多致潰決, 金川段, 民戶亦有頽壓, 今方摘奸是如爲白乎跡. 臣營下六月二十九日丑時, 又爲始雨, 間間霑灑, 今七月初二日寅時至, 水深合爲五寸八分是白如乎. 列邑農形, 既經旱災, 又被水害, 田畝各穀, 無不受傷是白在如中. 見今營下雨水, 又若是夥多, 而尚未開霽, 言念民事, 去益憂悶是白乎所. 各邑水災淺深, 待其摘奸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해주 등 18개 고을의 지난 6월 24일·25일에 내린 비의 경위 및 저의 감영의 27·28일 측우기 수심이 4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4·25일의 비로 평산·수안·신계·곡산·토산 등 5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고, 시내 옆의 논밭 곳곳마다 사태로 뒤덮였는데, 토산의 경우, 백성 집이 간혹 떠내려갔으니 캐내어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27·28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신천·재령·황강·배천·금천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문화·연안·송화·봉산 등 4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재령의 경우, 방죽 대부분이 터졌고, 금천의 경우, 백성 집도 또한 무너진 것을 지금 막 캐내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6월 29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7월 초2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수심은 총 5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은 이미 가뭄 재해를 거쳤고 또 수해를 입어 논밭의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의 감영의 빗물이 또 이처럼 상당히 많고 아직 개이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각 고을의 수재가 덜한지 심한지는 캐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02. 1832년(순조 32) 7월 6일(양력 8월 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책(1c~3b) / 黃海監營狀啓謄錄 1책(2a~5b)

道內雨水形止，連續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六月二十八日之雨，長淵·安岳·長連·殷栗·瑞興·兎山等六邑，川渠漲溢是如爲白乎旆。七月初二日之雨，海州·康翎·襄津·信川·文化·殷栗·鳳山·延安·白川·金川等十邑，大小川渠，無不漲流是如爲白乎旆。去月二十五日雨水，鳳山郡段，邑內坊民家全額爲十六戶，半額爲二十一戶是如爲白乎旆。兎山縣段，邑內坊民家漂流爲六戶，宿仁坊民家漂流爲四戶，西加洞坊民家漂流爲八戶是如爲白乎旆。二十八日雨水，金川郡段，郡內面民家全額爲十二戶，半額爲四戶，九水面民家全額爲二戶，半額爲四戶，古縣面民家全額爲三戶，江北面民家全額爲三十戶，半額爲四戶是如爲白乎旆。載寧郡段，三支江坊造鶴洞民畜三十石落，城垣坊內野洞民畜二百石落，合畜二百三十石落庫，內水彌滿，外水衝激，垆堰潰決，禾稻舉皆沈沒，難免消灑之患是如爲白乎旆。農形段，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二邑，早黍·粟，已盡胚胎，晚黍·粟·唐稷，過半三耘，早稻·木綿，始或三耘，晚稻方張再耘，而傍川沿浦之地，水勢汎濫，田畝各穀，舉皆沈沒，而晚移秧苗之未及着根者，豆·太·木麥之僅得立苗者，俱被盪漾，更難蘇醒是如爲白乎旆。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早黍·粟幾盡三耘，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間間三耘，早稻·木綿，再耘垂畢，晚稻再耘伊始，而積水未退，新漲又添，污下之處，田畝各種，舉皆沈墊，依峽之地，暴流所及，咸被汰落，而晚移秧苗，尤無可言是白遣，豆·太·木麥，方張立苗，而淘汰居多，無望成就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被旱各穀，幸賴雨澤，早種者庶有蘇醒之望，晚移者亦無全陳之歎是白加尼，數旬長霖，平陸汎溢，傍川依峽之地，皆爲汰落，沿江近浦之坪，舉入沈墊，田畝各穀，酷被傷損是白在如中，根耕之僅得播種者，竝爲淘汰，晚移之未及着根者，仍至消爛是如是白遣。載寧郡垆畝潰決爲二百三十石落，鳳山·兎山·金川等民家漂額爲八十一戶，半額爲三十三戶，而人命幸免淪沒是白乎乃，當此農節，失所棲遑，極爲矜惻是白如乎。潰垆段，各別董役，修築疏濬，漂額戶段，借材助丁，俾卽改構安堵之意，措辭關飭於各該邑爲白遣，漂額戶原恤典，依例題給後，役·姓名家舍間數，開錄于後爲白去乎。令該廳會減爲白乎旆。半額戶段，與全額有異，只可修葺而入處，故原恤典不爲舉論爲白乎旆。臣營下今月初四日寅時，又爲霖灑，初五日辰時至，水深爲四寸九分，

而尙無霽意，轉益瘁稼，言念民事，萬萬憂悶是白乎所，嗣後形止，更待邑報，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빗물 경위는 연이어 계속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6월 28일의 비로 장연·안악·장련·은율·서흥·토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다고 합니다. 7월 초2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신천·문화·은율·봉산·연안·배천·금천 등 10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의 빗물로 봉산군의 경우, 고을 내 방에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은 16가구이고, 반쯤 무너진 것이 21가구라고 합니다. 토산현의 경우, 고을 내 방에 떠내려간 백성 집이 6가구이고, 숙인방에 떠내려간 백성 집이 4가구이고, 서가동방에 떠내려간 백성 집이 8가구라고 합니다. 28일의 비로 금천군의 경우 군내면에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이 12가구이고, 반쯤 무너진 것이 4가구이고, 구수면에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이 2가구이고, 반쯤 무너진 것이 4가구이고, 고현면에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이 3가구이고, 강북면에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이 30가구이고, 반쯤 무너진 것이 4가구라고 합니다. 재령군의 경우, 삼지강방 조학동의 백성 논 30섬지기, 성원방 내야동에 백성 논 20섬지기 등 총 논 230섬지기가 안에는 물이 가득 찼고 밖에는 물이 부딪쳐 제방과 둑이 터져서 벼가 거의 다 물에 잠겨 녹아버릴 근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2개 고을은 이른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을 뻗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시냇가나 포구 주변 지역은 물의 형세가 범람하여 논밭의 각종 곡식이 거의 다 물에 잠겨 늦모 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과 콩·팥·메밀은 겨우 싹이 튼 것이 모두 물에 휩쓸리는 피해로 다시는 되살아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숙은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는데, 쌓인 물이 빠지지 않은 데다 새롭게 불어난 물이 또 더해져 낮은 곳의 논밭의 각종 곡식은 거의 다 물에 잠겼고 산자락 지역에 세찬 물살이 미쳐 모두 떨어져 나갔으니 늦모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콩·팥·메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었는데 싹 없어져 버린 것이 많아 여물 가망이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가뭄 피해를 입은 각종 곡식은 다행히 우택 덕분에 이른 종자는 거의 되살아날 가망이 있지만 늦게 옮겨 심은 것도 또한 전부 묵힐 탄식은 없습니다. 수습 일의 긴 장마로 평평한 육지가 범람하고 시냇가나 산골짜기 지역 모두 떨어져 나가고, 강가나 물가의 들판이 거의 물에 잠겨 논밭의 각종 곡식은 혹독하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루같이 하여 겨우 씨앗을 뿌린 것은 모두 싹 없어져 버렸고 늦게 옮겨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이내 문드러졌다고 합니다. 재령군의 동네 논이 터진 것은 230섬지기이고, 봉산·토산·금천 등의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81가구이고 반쯤 무너진 것이 33가구인데, 사람은 다행히 빠져 죽는 데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사철에 지낼 곳을 잃고 방황하니 가엾고 측은하기 그지없습니다. 독이 터진 경우, 각별히 일을 감독하여 독을 쌓고 물길을 파고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경우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빌려주어 즉시 고쳐 지어 편안히 지내게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각 해당 고을에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직역·성명·집의 칸수를 뒤에 기록하여 해당 진휼청에 회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반쯤 무너진 가구의 경우, 전부 무너진 집과는 차이가 있지만 수리하여 들어가 살도록 하였으므로 기본 구호를 거론치 않겠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인시에 또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수심은 4치 9푼이었고,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갈수록 벼에 손상을 입히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이후의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03. 1832년(순조 32) 7월 6일(양력 8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1b~1c)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1b~2a)

鳳山等四邑民家漂頽及垆堰潰決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黃岡縣段, 去六月二十五日以後, 雨水連日瀑霏, 川潦大漲, 彌漫數十里, 邑內坊民家漂頽爲二百三十四戶, 伊日之雨, 平山府段, 金巖防民家漂頽爲四十三戶. 新溪縣段, 中部面民家漂頽爲十一戶, 載寧郡段, 宿水未退, 今月初二日雨水, 連爲霏下, 海潮添漲, 余勿里栗串兩坊所在宮堰民畓, 多被潰決, 而余勿坪民家沈沒爲五十戶, 栗串坊民家漂頽爲十三戶, 清水里坊民家漂頽爲三戶是如. 陸續報來是白如乎, 今此四邑民戶之漂頽, 又如是過多, 聞極驚慘, 第其人物之無一被淹, 還切萬幸是白乎所. 列邑所報, 皆因阻水, 未由通涉, 今始來到, 故爲先自臣營, 別遣褊裨一一慰恤, 別加顧助, 俾卽結構安接之方是白遣, 漂頽戶家舍間數, 潰垆處石數多少, 待摘奸回來, 更爲區別登聞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봉산 등 4개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 및 제방과 둑이 터진 경위는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황강현의 경우, 지난 6월 25일 이후 빗물이 연일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하천이 넘치고 크게 불어나 수십 리에 가득 차서 읍내방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234가구입니다. 그날의 비로 평산부의 경우, 금암방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43가구이고, 신계현의 경우, 중부면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11가구이고, 재령군의 경우, 고인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이번 달 초2일 빗물이 연이어 주룩주룩 내린데다 바닷물이 더 불어나 여물리방과 울곶방 2개 방에 있는 궁언리의 백성 논이 대부분 터져서 여물평에 물에 잠긴 백성 집이 50가구이고, 울곶방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13가구이고, 청수리방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3가구라고 계속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4개 고을의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또 이처럼 지나치게 많다니 듣기에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는 데, 다만 빠져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도리어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보고는 모두 물에 막혀 통행하지 못하다가 지금 비로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비서를 보내 하나하나 위로하고 구호하였고, 별도로 도와주어 즉시 집을 지어

편안히 지낼 방도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의 칸수와 독이 터진 곳의 섬지기 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캐넌 회답이 오기를 기다려 다시 구별하여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04. 1832년(순조 32) 7월 10일(양력 8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4b~4c)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7b~8a)

道內雨水形止, 連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二日之雨, 松禾·長淵·豐川·安岳·長連·瑞興·遂安·谷山·冤山等九邑, 川渠添漲, 田畝各穀, 多被汰落沈沒之患, 而瑞興府段, 中部道下兩坊民家漂頽爲五十四戶, 摘奸後更爲修報計料是如爲白乎旆. 初五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文化·豐川·信川·殷栗·延安·白川·金川·平山·黃岡·鳳山·載寧·瑞興·遂安·新溪·谷山等十九邑, 川渠益漲, 汚下田畝, 無不沈沒, 而白川郡段, 寧風兼作, 黍·粟間多摧傷, 東村鉢山兩坊民家漂流爲十八戶, 鳳山郡段, 靈泉·沙里院兩坊民家漂頽爲十一戶, 載寧郡段, 宿漲未退, 復添新潦, 城垣栗串三支江等三坊堰垵十七處, 又爲潰決, 民戶亦多漂沒, 待水勢稍退, 竝摘奸更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連接邑牒, 參以見聞是白乎則, 今番雨水, 挽近罕有, 川溪成江, 汎溢平陸, 田畝之潰決汰落, 各穀之沈沒消爛, 無邑不然, 而瑞興·白川·鳳山·載寧等四邑之潰垵漂戶, 又此夥多, 尤極驚悶, 待其摘奸齊到, 與前啓中黃岡等四邑漂頽形止, 竝以一體消詳登聞計料爲白乎旆.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빗물 경위는 연이어 계속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의 비로 송화·장연·풍천·안악·장린·서흥·수안·곡산·토산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더 불어나 논밭의 각종 곡식이 사태로 떨어져 나가거나 물에 잠길 근심이 많고, 서흥부의 경우 중부방과 도하방 2개 방에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이 54가구이며, 캐낸 뒤 다시 작성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초5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문화·풍천·신천·은율·연안·배천·금천·평산·황강·봉산·재령·서흥·수안·신계·곡산 등 1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더욱 불어나 낮은 지대 논밭은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이 없고, 배천군의 경우, 사나운 바람까지 겹치니 기장과 조는 그사이에 꺾인 것이 많았고, 동춘·발산 2개 방에 백성 집이 떠내려간 것이 18가구이고, 봉산군의 경우, 영천·사리원 2개 방에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11가구이고, 재령군의 경우, 고인 물이 불어나 빠지지 않았는데 다시 새로운 물이 더해져 성원·울곶·삼지강 등 3개 방의 제방과 둑 17곳이 또 터졌고 백성 집도 또한 떠내려간 것이 많은데, 물의 형세가 조금

빠지면 모두 캐내어 다시 보고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접수한 고을의 공문과 들은 것을 참조해보니, 이번 빗물은 근래 보기 드문 일로서 시내와 계곡은 강을 이루고 평평한 육지는 범람하여 논밭이 터지고 떨어져 나가 각종 곡식이 물에 잠겨 녹아 문드러졌으며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는데, 서흥·배천·봉산·재령 등 4개 고을의 둑이 터지고 떠내려간 가구가 또 이렇게 상당히 많으니 더욱 놀랍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캐내어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 앞서 보고한 것 중에 황강 등 4개 고을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경위와 아울러 모두 상세하게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05. 1832년(순조 32) 7월 17일(양력 8월 1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20d~21b)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31b~32b)

道內水災形止, 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延安·白川·文化·松禾·長淵·新溪·遂安·谷山·金川等九邑, 今七月十二日及十三日, 又爲霖下, 川渠俱爲漲溢, 信川·載寧·安岳·長連·平山·瑞興·鳳山等七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旃.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發穗, 晚黍·粟·唐稷, 過半胚胎, 早稻幾盡三耘, 晚稻今始三耘是乎矣. 低平之野, 久被沈墊, 而竟多消爛, 高燥之地, 僅得向茂, 而反有蹲縮是遣. 木綿三耘垂畢, 而貼泥萎枯, 花窠零星. 根耕豆太之早播者, 田疇泥濘, 鋤役愆期, 初不立苗之更播者, 幾皆淘汰, 餘種無幾, 雨後最晚移終未着根者, 更無餘望是如是白遣. 信川段, 破垆處積水渟滯, 蘇醒無望, 延安段, 沿浦之地, 海潮添漲, 田畝各穀, 間多受損是如爲白乎旃.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間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胚胎, 早稻方張三耘, 晚稻再耘垂畢是乎乃, 田畝各穀之沈沒水中, 殆近一念, 汚陷處之盪漾, 根苗俱消, 稍高處之汰落, 穀種亦罕是乎乙遣. 木綿幾皆三耘, 而經早被澇, 花窠無幾, 豆·太·木麥, 鋤役差遲, 受害尤多. 載寧段, 垆堰潰決處, 積水未退, 更無穀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跨朔霖雨, 峽野俱漲, 繼以似雨似霧, 浹旬陰霏, 無論高低之以田以畝, 所種各穀, 或腐爛無餘, 或沙覆相續是白在如中, 日候又復陰濕, 餘存穀形, 亦尤被害是白遣. 信川·載寧之垆堰潰決處, 早晚畝稼根苗俱消是白乎旃, 田種則以其泥濘, 着鋤不得, 除草愆期. 逐日各邑所報, 罔非驚慘, 言念民事, 不勝萬萬罔措是白乎所. 嗣後農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수재 경위를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연안·배천·문화·송화·장연·신계·수안·곡산·금천 등 9개 고을은 이번 12일 및 13일에 또 비가 주룩주룩 내려 시내와 도랑이 모두 불어나 넘쳤고, 신천·재령·안악·장련·평산·서흥·봉산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알을



뻗고, 올벼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낮은 지대 들은 오래도록 물에 잠겨서 끝내 녹아 문드러진 것이 많았고 높은 메마른 지대 땅은 겨우 무성해졌지만 도리어 오그라들었습니다. 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다 마쳤으나 흙이 달라붙고 시들고 메말라 열매가 보잘것없습니다. 일찍 씨앗을 뿌린 그루같이한 콩·팥은 발이랑이 질퍽하여 김매기를 할 시기를 놓쳐 애당초 싹이 트지 않아 다시 씨앗을 뿌린 것이 거의 다 싹 없어져버려 남은 곡식이 거의 없고 비 온 뒤 가장 늦게 옮겨심은 것도 다시 남은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신천의 경우, 독이 터진 곳에 쌓인 물이 고여있어 되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연안의 경우, 물가 주변 땅은 바닷물이 더 불어나 논밭의 각종 곡식이 그사이에 손해를 입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이삭이 뻗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벼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하였고, 올벼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러나 논밭의 각종 곡식은 물속에 잠기고 거의 줄곧 낮은 곳은 휩쓸려 뿌리 싹 모두 녹았고 조금 높은 곳은 사태로 떨어져 나가 곡식 종자도 또한 드뭅니다. 목화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지만, 가뭄을 겪은 데다 장마져서 꽃과 열매가 거의 없고, 콩·팥·메밀은 김매기 일이 조금 늦어져 입은 손상이 더욱 많았습니다. 재령의 경우, 독과 제방이 터진 곳에 물이 쌓여 빠지지 않아 다시는 곡식의 형태가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한 달 넘는 장맛비로 산골짜기와 들판 모두 불어나 계속 비가 오는 듯 안개인 듯 열흘 가까이 먹구름이 끼어, 높거나 낮은 논이든 밭이든 따질 것 없이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남김없이 썩어 문드러지거나 더러 사태로 뒤덮여 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날씨는 또다시 흐리고 축축하여 남아 있는 곡식 형태도 또한 더욱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천·재령의 독과 제방이 터진 곳에 올벼·늦벼 논은 벼의 뿌리 싹이 모두 녹았고 밭에 씨앗을 뿌린 것은 진흙이 붙어 있어 김매기를 하지 못해 잡초를 제거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날마다 각 고을의 보고가 놀랍고 참혹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어찌할지 몰라 매우매우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18. 1832년(순조 32) 7월 27/26일(양력 8월 2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25c~26a)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41a~42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襄津·豐川·長連·延安·白川·信川·載寧·黃岡·鳳山·松禾·安岳等十二邑, 早黍·粟始或入實, 晚黍·粟·唐稷, 方張發穗, 早稻三耘垂畢, 晚稻幾盡三耘, 豆太鋤役未了, 木麥今始初耘是乎矣. 田畝各穀, 毋論早晚, 旣被汰落與沈墊處, 寸苗不留, 更無可言. 又因近日以來, 晚炎蒸曝, 畝稼之蹲縮蟲損, 日以益甚, 或有舉一坪全棄者, 黍·粟之穗穎, 豆太之莖葉, 咸被蟲蝕, 無望結實, 木綿雖盡三耘, 而花疎顆罕, 已判慘歉是如爲白乎旆, 康翎·長淵·文化·殷栗·瑞興·遂安·谷山·兔山·金川·平山·新溪等十一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盡胚胎, 早稻三耘幾畢, 晚稻今始三耘, 豆·太·木麥鋤役方張是乎乃, 依峽而沙覆處, 沿浦而水溜者, 俱無穀形, 所見愁慘. 其外餘存之田畝各穀, 又多蟲蝕坐損之災, 木綿三耘垂畢, 而立種旣稀, 結顆絕罕, 已判慘歉, 更無餘望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水災所過處, 穀種之消爛, 無復可言, 而積雨旣晴, 晚炎繼曝, 田畝各穀之餘存者, 又因蟲蝕蹲縮之災, 其所受損, 日益甚焉是如. 邑報民訴, 逐日遞至, 雖未知畢竟食實果如何, 而言念目下民事, 不勝萬萬罔措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웅진·풍천·장려·연안·배천·신천·재령·황강·봉산·안악 등 12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다 마쳤고, 늦벼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은 김매기를 마치지 못했고, 메밀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논밭의 각종 곡식은 이르거나 늦거나 따질 것 없이 이미 사태로 떨어져 나가거나 물에 잠긴 곳은 작은 싹도 남지 않아 다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 요즘 늦더위로 폭폭 찌면서 논이 벼는 오그라들고 벌레 피해가 날로 더 심하여 더러 온 벌판이 전부 포기한 곳이 있기도 하고, 기장·조의 이삭과 콩·팥의 줄기 잎이 모두 병충해를 입어 열매를 맺을 가망이 없습니다. 목화는 비록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으나 꽃이 적고 열매도 드물어 참혹한 흉년으로 판가름 났다고 합니

다. 재령·장연·문화·은율·서흥·수안·곡산·토산·금천·평산·봉산·신계 등 11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을 패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거의 다 알을 뻗고,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김매기를 한창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 모래로 뒤덮인 곳이나 물가에 물이 고인 것은 모두 곡식의 형태가 없으니 보기에 근심되고 참혹합니다. 그 밖에 남아 있는 논밭의 각종 곡식도 또 병충해를 입는 재해가 많고, 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다 마쳤으나 뿌린 씨앗에 싹이 난 것은 이미 드물고 열매를 맺은 것도 매우 드무니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판가름 나서 다시는 남은 가망이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수해가 지나간 곳의 곡식 종류는 녹아 문드러져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비가 이미 개었지만, 늦더위가 계속되어 논밭의 각종 곡식 중 남아 있는 것은 또 벌레 먹고 오그라드는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 날마다 심합니다. 고을의 보고와 백성의 하소연이 날마다 들이닥치니, 비록 끝내 열매를 먹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어찌할지 몰라 매우매우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이어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6. 1832년(순조 32) 8월 1일(양력 8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31c~31d)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53b~54a)

臣營下去七月二十八日酉時始雨，或霏或灑，今八月初一日辰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其白如乎，列邑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8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8월 초1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07. 1832년(순조 32) 8월 3일(양력 8월 28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책(31d~31d)/ 黃海監營狀啓謄錄 1책(54a~54a)

臣營下今八月初一日辰時至，得雨一寸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白川得二鋤，康翎·甕津·長淵·松禾·信川·載寧·延安等七邑，得一鋤是如爲白乎旡。臣營下今初二日亥時量，又爲始雨，初三日寅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如乎，非時冷雨，連日霪下，況又東風交吹，如千餘存之田畚各穀，亦不無受損之慮，言念民事，轉益罔措是白乎旡。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1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배천은 2서가 내렸고, 강령·웅진·장연·송화·신천·재령·연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2일 해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3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때아닌 찬비가 연일 주룩주룩 내리고 계다가 또 동풍이 번갈아 불어 약간 남아 있는 논밭의 각종 곡식도 또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08. 1832년(순조 32) 8월 6일(양력 8월 3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32d~33b)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56a~57a)

今八月初一日至海州等九邑雨水形止及臣營下今月初三日得雨三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或霏或灑, 至當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 而連爲陰翳是白如可, 至初四日戌時量, 仍爲開霽是白乎旃.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之雨, 載寧·殷栗得一犁, 豐川得二鋤, 安岳·長連·平山·金川·瑞興·遂安·谷山·兔山·新溪等九邑, 得一鋤, 初三日之雨, 海州·康翎得三犁, 襄津得二犁, 延安·白川·信川·文化等四邑, 得一犁, 金川·殷栗·長淵·載寧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旃. 豐川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盡入實, 晚黍·粟·唐稷, 亦皆發穗, 而備經荐酷之災, 食實者甚鮮, 早稻間間胚胎, 晚稻三耘[耘]已畢, 而蟲蝕坐損, 在在赤地, 木綿又被冷雨之連日, 餘存之如干顆窠, 含縮不綻, 豆·太·木麥, 已盡初耘[耘], 開花尙遲, 莖葉蟲災, 無望成實是如爲白乎旃.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間或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發穗, 而被災餘存, 未免慘歉, 早稻今方胚胎, 晚稻三耘垂畢, 而舉皆蟲蝕, 殆無穀形, 豆·太·木麥, 幾盡初耘, 而亦因蟲損, 難保成就, 木綿雖或有如干結顆, 而今番雨水, 舉皆腐爛, 已判慘歉, 尤無餘望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蟲蝕轉熾, 畚稼則無論峽野早晚種, 舉一坪全棄者, 在在相望是白遣, 田種各穀, 其所災傷, 比畚穀雖或稍歇是白乎乃. 近又冷雨連日, 兼以東風, 所損尤多, 列邑農形, 已判慘歉是如爲白乎所, 言念民事, 轉益萬萬罔措是白如乎. 列邑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8월 초1일까지 해주 등 9개 고을의 빗물 경위 및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3일에 내린 비가 3치 2푼인 연유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었다가 초4일 술시쯤에 이르러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재령·은율은 1려가 내렸고, 풍천은 2서가 내렸고, 안악·장련·평산·금천·서흥·수안·곡산·토산·신계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초3일의 비로 해주·강령은 3려가 내렸고, 웅진은 2려가 내렸고, 연안·배천·신천·문화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은율·장연·재령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풍천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도 또한 이삭이 났지만 거듭 혹독한 재해를 갖가지로 겪어 열매 먹을 것이 매우 드물고, 올벼는 간간이 알을 났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지만 벌레 먹는 재해를 입어 곳곳마다 벌거숭이 땅이고, 목화는 또 찬비를 연일 맞아 남아 있는 약간의 봉우리는 오므라들어 터지지 않았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지만 아직 꽃이 피지 않고 줄기와 잎은 벌레 재해를 입어 여물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이제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으나, 재해 입은 것이 남아 있어 참혹한 흉년을 면하기 어렵고, 올벼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다 마쳤지만 대부분 벌레가 갉아먹어 곡식 형태가 거의 없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으나 벌레 피해로 여물기를 보장하기 어렵고, 목화는 비록 더러 약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지만 이번 빗물로 대부분 썩고 문드러져서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름 나서 남은 가망이 더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벌레가 갉아먹는 것이 갈수록 번져 논·벼는 산골짜기나 들밭의 올벼 늦벼 종자를 따질 것 없이 온 들밭이 전부 포기한 것으로 곳곳에 서로 바라보인다고 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이 입은 재해 피해는 논 곡식에 비해 비록 더러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요즘 또 찬비가 연일 내리고 동풍도 불어 입은 손해가 더 많으니,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은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름 났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매우 매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이어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09. 1832년(순조 32) 8월 8일(양력 9월 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34d~35a)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60a~60b)

道內農形及今月初三日海州等十一邑雨水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山·兎山得二犁，新溪·瑞興得一犁，鳳山·遂安得二鋤，谷山·松禾得一鋤，黃岡沍塵是如爲白乎旃。臣營下今初七日亥時，又爲始雨，或霏或灑，初八日未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是白如乎。見今日候漸有涼意，又此冷雨連霏，田畝各穀，尤不無添損之慮，言念民事，轉益憂悶是白乎旃。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달 초3일 해주 등 11개 고을의 빗물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산·토산은 2려가 내렸고, 신계·서흥은 1려가 내렸고, 봉산·수안은 2서가 내렸고, 곡산·송화는 1서가 내렸고, 황강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해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었습니다. 현재 날씨는 점점 싸늘한 조짐이 있고 또 이렇게 찬비가 연이어 주룩주룩 내려 논밭의 각종 곡식이 더 손해입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10. 1832년(순조 32) 8월 11일(양력 9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35b~35c)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61a~61b)

臣營下今八月初八日至, 得雨四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日八日之雨, 海州·康翎·長淵等三邑, 川渠漲溢, 延安·白川得三犁, 襄津得二犁, 松禾·豐川·安岳·殷栗·鳳山·載寧·瑞興等七邑, 得一犁, 黃岡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乎旆. 臣營下今月初九日卯時, 又爲始雨, 間或霏灑, 至初十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冷雨頻仍, 各穀傷損, 日而益甚, 民事轉益遑悶是白乎旆. 各邑形止, 待報來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8일까지 내린 비가 4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8일의 비로 해주·강령·장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연안·배천은 3려가 내렸고, 웅진은 2려가 내렸고, 송화·풍천·안악·은율·봉산·재령·서흥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강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9일 묘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10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찬비가 빈번해져 각종 곡식이 입은 손상이 날로 더 심하니,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다급하고 걱정입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11. 1832년(순조 32) 8월 14일(양력 9월 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37d~38a)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66a~66b)

今八月初七日八日海州等十四邑雨水形止及初九日十日臣營下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日八日之雨, 信川·平山·兎山等三邑, 川渠漲滿, 金川·文化得一犁, 遂安·新溪·谷山等三邑, 得二鋤, 長連得一鋤是如爲白乎旆, 初九日十日之雨, 海州·康翎·載寧·白川·文化·豐川等六邑, 得一犁, 長淵·安岳·鳳山·瑞興等四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乎旆. 臣營下今月十三日戌時, 又爲始雨, 達夜霏灑, 至十四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 冷雨浹旬, 陽曝絕罕, 僅存各穀, 尤益受損. 言念民事, 萬萬遑悶是白乎旆. 各邑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8월 초7일·8일 해주 등 14고을의 빗물 경위 및 초9일·10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8일의 비로 신천·평산·토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천·문화는 1려가 내렸고, 수안·신계·곡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장련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초9일·10일의 비로 해주·강령·재령·배천·문화·풍천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안악·봉산·서흥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3일 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14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찬비가 열흘 동안 내리고 내리쬐는 햇빛이 거의 드물어 겨우 남아 있는 각종 곡식은 더욱 손해를 입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매우 다급하고 걱정입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12. 1832년(순조 32) 8월 18일(양력 9월 1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38c~39a)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68a~69a)

臣營下今八月十四日得雨二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安岳得二犁, 康翎·信川·載寧·延安·白川·鳳山·新溪·遂安·兎山·長連等十邑, 得一犁, 長淵·松禾·文化·殷栗·黃岡·瑞興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向熟, 晚黍·粟·唐稷, 次第入實, 而種既零星, 穗又瑣細, 加以浹旬冷雨, 尤多被損, 食實無幾, 早晚稻舉皆蟲蝕, 尙今不息, 或有餘存之發穗胚胎者, 猶難成實, 木綿如干所存者, 又因久雨恒陰, 窠房腐落, 更無開絮, 豆·太·木麥, 方張再耘, 而貼着泥土, 消灑過半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已盡入實, 間或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盡發穗, 而積澇餘存, 又復浸淹, 轉益受損, 早稻間間發穗, 晚稻今始胚胎, 而蟲災尙熾, 舉一坪全棄者, 在在相望, 豆·太·木麥, 今方再耘, 而蟲損萎枯, 比前尤甚, 木綿間或有餘存者, 又被近日冷雨, 窠房盡爲腐傷, 竟無餘望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蟲災轉益熾盛, 冷雨又復頻仍, 田種畚秬, 無論沿峽, 食實無幾, 見今秋成在邇, 已判慘歉是白乎所, 言念民情, 不勝萬萬罔措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4일에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안악은 2려가 내렸고, 강령·신천·재령·연안·배천·봉산·신계·수안·토산·장련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송화·문화·은율·황강·서흥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알이 드는데, 씨앗을 뿌린 것은 이미 보잘것없고 이삭은 또 자잘하고 열흘이나 찬비가 더해져 입은 손해가 더 많아져 먹을 열매가 거의 없고, 올벼·늦벼는 대부분 벌레가 갉아먹는데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더러 남아 있는 이삭을 팬 것이나 이삭을 뺀 것도 오히려 여물기 어렵고, 목화는 약간 남아 있는 것도 또 오랜 비로 항상 흐려서 다래방이 썩어 떨어져

다시는 다래가 벌어질 것이 없고, 쿵·팔·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진흙이 달라붙어 절반 이상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알이 들었는데 간혹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거의 다 이삭이 쫄고, 오랜 장마에 남아 있는 것도 또다시 물에 잠겨 갈수록 손상을 입었고,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쫄고, 늦벼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하였는데 벌레 재해는 오히려 번져 온 벌판이 전부 포기한 것으로 곳곳에서 서로 바라보이고, 쿵·팔·메밀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였지만 벌레 손상으로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이 이전에 비해 더욱 심하고, 목화는 간혹 남아 있는 것도 또 요즘 찬비를 맞아 다래방이 다 썩고 상해서 끝내 남은 가망이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벌레 재해가 갈수록 세차게 번지고 찬비도 또다시 빈번하게 내려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논의 벼는 물가나 산골짜기나 따질 것 없이 먹을 열매가 거의 없고 현재 가을이 가까워졌는데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를 났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찌할지 몰라 매우 매우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13. 1832년(순조 32) 8월 21일(양력 9월 15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책(39c~40b) / 黃海監營狀啓謄錄 1책(69b~71a)

節到付備邊司關內節啓下教, 今七月初九日以黃海監司金蘭淳狀啓黃岡等邑民家漂頽沈沒事, 傳曰, 前後漂頽, 至於四百餘戶之多, 極爲惻然. 恤典卽爲分給, 趁爲構接, 田畝潰缺處, 亦卽修築, 俾不至於失所棲屑之嘆事, 道臣十分着意, 另飭諸邑之意, 廟堂措辭分付事, 傳教教是置. 傳教內事意, 奉審施行爲有矣, 漂沒民戶之若是夥多, 萬萬驚慘, 而聖旨垂恤, 特判載降, 其所舉行, 必當靡不用極是如乎. 顧恤奠接之方, 另飭各該邑, 俾卽安堵後, 形止卽爲登聞宜當向事. 鱗次到付備邊司關內節啓下教, 今七月十二日以黃海監司金蘭淳狀啓瑞興等邑民家漂頽事, 傳曰, 長澇之餘, 頽報沓至, 言念民情, 極爲慘然. 恤典卽速分給, 許斫借糧等節, 另加申飭, 俾爲奠接事, 廟堂措辭分付可也事, 傳教教是置. 傳教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許多民家之頽漂, 已極矜憐, 而今下判付, 若是懇摯, 其在營邑對揚之道, 有不容一毫泛忽是如乎. 私養給材隣丁助役等節, 另飭各該邑, 使之卽速入處後, 形止馳聞, 宜當向事. 鱗次到付備邊司關內節啓下教, 今七月十八日, 以黃海監司金蘭淳狀啓谷山等邑民家漂頽人物壓死事, 傳曰, 極爲慘然. 頽戶則恤典卽爲分給, 壓死人如有生前身還布, 竝蕩減事, 分付該道臣, 軫災之方, 廟堂爛商草記稟處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 奉審施行爲乎矣, 番錢停退事, 從當稟處行會, 知悉宜當向事. 三度關是白置有亦. 謹以關內辭意, 知委於黃岡·瑞興·谷山等十邑, 使之曉諭於災民, 俾知朝家慰恤之德意是白遣. 結構奠接之方, 另加申飭, 亦自臣營, 別爲顧助是白加尼. 各邑前後漂頽戶, 合爲五百四十八戶是白在如中, 黃岡二百三十四戶, 平山二十五戶, 新溪十一戶, 載寧七十三戶, 瑞興四十戶. 白川十八戶, 鳳山二十三戶, 谷山三十八戶, 兔山三十九戶, 金川四十七戶, 今已畢構入處. 壓死是白在, 谷山金成白, 本以士人, 原無身布, 只有戶還, 故依啓下關蕩減是如爲白乎旆. 各邑垆堰潰缺處, 當此無前慘歉, 民間力役, 旣多不瞻, 又其如千秋事方張, 末由一齊修築, 勢將待秋成後或明春, 始可完築是如爲白乎旆. 目下年事民力, 似或無怪, 有難強督是白等以. 頽戶畢構形止, 茲以登聞爲白乎旆, 壓死人戶還蕩減成冊段, 上送于備邊司.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 공문 내용에, 임금님이 재가한 지시에, 이번 7월 초9일 황해감사

김난순 장계의 황강 등 고을의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물에 잠긴 일로 전교하시기를, '지금까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4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많으니 측은하기 그지없다. 구호는 즉시 나누어주고 즉시 집을 지어 살게 하고, 논밭이 터진 곳도 또한 즉시 고쳐 쌓고 살 곳을 잃고 떠도는 한탄에 이르지 않게 할 일로 관찰사가 충분히 주의하고 여러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라는 뜻으로 비변사에서 문안을 만들어 분부할 일이다.'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교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떠내려간 백성 집이 이처럼 상당히 많아 매우매우 놀랍고 참혹하니 구호에 힘쓰라는 임금님의 지시로 특별히 재가가 내렸으니 반드시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되, 돌보아주고 머물러 살 방법을 각 해당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여 즉시 편안히 살도록 한 후 경위를 즉시 마땅히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도착한 비변사의 공문 내용에, 이번에 임금님이 재가한 지시에, 이번 7월 12일 황해감사 김난순 장계의 서흥 등 고을의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일로 전교하시기를, '긴 장마 끝에 집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몰려드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혹하기 그지없다. 구호는 즉시 속히 나누어 주고 재목 베는 것을 허용하고 식량을 빌려주는 등의 사항을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여 머물러 살게 할 일로 비변사에서 문안을 만들어 분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교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술한 백성 집이 무너지거나 떠내려가 이미 가없고 불쌍하기 그지없고, 지금 내린 임금님의 지시가 이처럼 간곡하니, 감영과 고을에서 널리 알리는 도리상 한 가닥 털끝만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오. 개인 산의 재목을 주고 이웃 장정이 일을 도와주는 등의 사항을 각 해당 고을에 단단히 지시하여 즉시 속히 들어가 살게 한 후 경위를 마땅히 긴급히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도착한 비변사의 공문 내용에, 이번에 임금님이 재가한 지시에, 이번 7월 18일 황해감사 김난순 장계의 곡산 등 고을의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은 일로 전교하시길, '참혹하기 그지없다. 무너진 가구는 구호를 즉시 나누어 주고 깔려 죽은 사람이 생전 자신의 환곡과 군포를 모두 탕감할 일로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재해를 도와주는 방법을 비변사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요약기록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전교 내용을 받들어 살펴 시행하되, 번전의 기한을 물리는 일로 마땅히 행회한 것을 아뢰고 마땅히 잘 알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3통의 공문이었기에 삼가 공문 내용을 황강·서흥·곡산 등 10개 고을에 통지하여 재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널리 타이르게 하고 조정의 위로하는 은덕을 알게 하되, 집을 지어 머물러 살게 할 방법을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고 또한 저의 감영에서도 별도로 돌보아주도록 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지금까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가 548가구인데, 황강 234가구, 평산 25가구, 신계 11가구, 재령 73가구, 서흥 40가구, 배천 18가구, 봉산 23가구, 곡산 38가구, 토산 39가구, 금천 47가구는 지금 이미 들어가 살 곳을 다 지었습니다. 깔려 죽은 곡산의 김성백은 본래 선비로 신포는 없고 다만 빌린 환곡이 있었으므로 임금님이 재가한 공문에 따라 탕감하였다고 합니다. 각 고을의 독과 제방이 터진 곳은 이처럼 전에 없던 참혹한 흉년이라 민간의 부역으로 이미 부족함이 많은데 또 약간 가을 일이 한창이니 일제히 고쳐 쌓을 길 없으니, 형세상 가을 추수를 한 후나 더러 내년 봄을 기다려 비로 완전히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농사일과 백성들의 힘은 아마도 더러 괴이할 것이 없을 듯하니 억지로 독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너진 가구의 집을 다 지은 경위를 이에 아뢴니다. 깔려 죽은 사람의 환곡 탕감 정책은 비변사에 올려보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14. 1832년(순조 32) 8월 28일(양력 9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40d~41a)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72a~73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豐川·信川·安岳·載寧·黃岡·鳳山·平山·金川·延安·白川等十四邑, 早晚黍·粟, 或有刈取者, 或有成熟者, 糖稷亦將向熟, 而備經災傷, 食實無幾, 早晚稻·木綿, 已判慘歉, 更無餘望, 豆·太·木麥, 間或起花是如爲白乎旅. 松禾·文化·長連·殷栗·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等九邑, 早黍·粟間間刈取, 而穗穎尖小, 晚黍·粟糖稷及山田火粟, 幾盡成熟, 食實無多, 早晚稻已成赤地, 木綿亦判慘歉, 豆·太·木麥, 再耘已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田畝各穀, 到今秋序向闌, 災形愈著, 惟其黍·粟糖稷之餘存者, 間或成熟刈取, 而食實無多, 早晚稻及木綿, 已判慘歉, 峽野同然是白乎所. 言念民情, 不勝萬萬罔措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항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풍천·신천·안악·재령·황강·봉산·평산·금천·연안·배천 등 14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늦기장·늦조는 더러 베어 거둔 것이 있으며 더러 익은 것이 있고, 수수도 또한 익어가는데 재해 손상을 갖가지로 겪어 먹을 열매가 거의 없고, 올벼·늦벼·목화는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름 났으며 다시 남은 가망이 없고, 콩·팥·메밀은 간혹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송화·문화·장련·은율·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 등 9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베어 거두었는데 이삭이 뽕족하며 작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거의 다 익었지만 먹을 열매가 많지 않고, 올벼·늦벼는 이미 벌거숭이 땅이 되었고, 목화도 또한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름 났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논밭의 각종 곡식은 가을철이 한창 무르익는 요즘인데 재해 형태가 더욱 뚜렷하고 오직 기장·조·수수 중 남아 있는 것은 간혹 익어서 베어 거두지만 먹을 열매가 많지 않고, 올기장·늦기장 및 목화는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름 났는데 산골짜기나 들판이 똑같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찌할지 몰라 매우매우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5. 1832년(순조 32) 9월 1일(양력 9월 2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41c~41d)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74a~74a)

臣營下去八月二十九日酉時始雨，或霏或灑，今九月初一日午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列邑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8월 29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9월 초1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6. 1832년(순조 32) 9월 6일(양력 9월 2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42a~42b)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75a~75a)

臣營下今九月初一日得雨一寸四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康翎·延安·白川·金川·瑞興·載寧·鳳山等八邑，得一犁，信川·長連·黃岡·平山·遂安·谷山等六邑，得一鋤是如。牒呈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9월 초1일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연안·배천·금천·서흥·재령·봉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천·장려·황강·평산·수안·곡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017. 1832년(순조 32) 9월 9일(양력 10월 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42b~42c)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75b~76a)

臣發巡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歷過海州·延安·白川·金川·平山·瑞興·鳳山, 方到黃岡縣, 而所見農形段, 早黍·粟幾盡收穫, 晚黍·粟·唐稷, 今方刈取, 而零星瑣細, 食實無幾, 木綿如干所存者, 結窠既尠, 無所可摘, 豆·太·木麥, 間或入實, 早晚稻水沈蟲蝕, 酷被荐災, 一望原野, 極目愁慘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載寧·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豐川·長淵·松禾·康翎·襄津·遂安·谷山·新溪·兔山等十五邑段, 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刈穫, 而備經災傷, 所收無多, 豆·太·木麥, 方張起花, 木綿及禾稻, 已判大無, 更無餘望, 而平山·金川今初五日夜霜降, 谷山·遂安·瑞興·鳳山等四邑, 今初六日夜霜降, 今方入實之豆太, 起花之木麥, 又無成就之望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道內農形, 酷被災害, 田畝各穀, 舉判大無, 而至若晚種之如干餘存者, 惟望日候之調順是白在如中, 冷雨頻仍, 嚴霜早剝, 竝與豆·太·木麥, 而無望食實, 亦判慘歉. 言念民事, 轉益罔措是白如乎, 列邑災實, 鱗次分等馳啓計料爲白乎旅.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순시를 떠난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해주·연안·배천·금천·평산·서흥·봉산을 지나 막 황강현에 도착하였습니다. 본 것으로 농사 상황의 경우,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수확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베어 거두는데 보잘것없고 자잘하여 먹을 열매가 거의 없고, 목화는 약간 남은 것 중 열매를 맺은 것이 이미 들성들성해 딸 만한 것이 없고, 콩·팥·메밀은 간혹 알이 들었고, 올벼·늦벼는 물에 잠기거나 벌레가 갉아먹어서 혹독하게 거둬 재해를 입어 눈에 보이는 모든 들판이 눈길 닿는 곳마다 근심되고 참혹합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재령·신천·문화·안악·장령·은율·풍천·장연·송화·강령·웅진·수안·곡산·신계·토산 등 15개 고을의 경우, 기장·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차례로 베어 수확하였지만, 재해 손상을 갖가지로 겪어 거둔 것이 많지 않고, 콩·팥·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고, 목화 및 벼는 이미 전혀 없는 것으로 판가름 나서 다시는 남은 가망이 없습니다. 평산·금천은 이번 초5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곡산·수안·서흥·봉산 등

4개 고을은 이번 초6일 밤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막 알이 든 콩·팥과 꽃이 핀 메밀은 또 여물 가망이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혹독하게 재해를 입어 논밭의 각종 곡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거의 관가름 났고, 늦게 씨앗을 뿌린 것의 경우 약간 남아 있는 것은 오직 날씨가 순조롭기만 바라지만, 찬비가 자주 내리고 된서리가 일찍 내려 콩·팥·메밀은 모두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어 또한 참혹한 흉년으로 관가름 났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은 잇따라 등급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018. 1832년(순조 32) 9월 19일(양력 10월 1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45b~45c) / 黃海監營狀啓臚錄 1책(81b~82a)

道內霜降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載寧郡守金有喜牒報內, 今月十二日夜, 本郡栗串坊, 雨雹暴下, 雹形大如榛子, 小如太隻, 計其所過, 自栗串坊二里, 至餘勿坪一里, 長可爲十里許, 廣可爲七里許, 而餘存各穀, 無不受損是如爲白乎旆. 信川郡守李容奎牒報內, 今月十二日夜, 本郡加山坊, 雨雹交下, 雹形大如栗子, 小如鳥卵, 所過處長爲十里許, 廣爲一幬場, 而根耕豆太, 形如鞭打蹂躪, 所見孔慘是如. 牒呈是白置有亦. 今年之早早晚澇蟲食, 無災不備, 而霜信且早, 雹災繼下, 禾穀之慘歉, 已矣勿論, 如干餘存之豆太, 又此被災. 言念民事, 去益罔措.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서리가 내린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재령 군수 김윤희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내용에, “이번 9월 12일 밤에 본 재령군 읍관방에 우박이 쏟아졌는데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은 도토리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하고, 지나간 곳을 계산하면 읍관방 2리부터 여물평 1리까지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7리가량입니다. 남아 있는 각종 곡식은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천 군수 이용규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12일 밤에 본 신천군 가산방에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밤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합니다. 우박이 지나간 곳은 길이는 10리가량이고 너비는 한 마장입니다. 그루같이한 콩·팥은 형태가 찢을 맞은 듯 짓이겨져 보기에 매우 참혹합니다.”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른 가뭄과 늦장마에 벌레가 잡아먹어 재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는데, 서리도 또 일찍 내리고 우박의 재해도 계속 내려서 벼가 참혹한 흉년임은 이미 따질 것 없고, 약간 남아 있던 콩·팥도 또 이렇게 재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19. 1833년(순조 33) 2월 21일(양력 4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13c~113d)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40a~40b)

卽接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粃·小麥, 方張抽芽, 春粃次第耕播是如爲白乎旃,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菟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粃·小麥, 過半出土, 春粃間間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清明已過, 東作伊始, 勸課之政, 不容少忽是白乎等以. 另飭列邑, 隣借耕牛, 分糶助糧, 期於各盡其力, 無或失時, 築堰防洩, 貯水蒙利等節, 亦令着意舉行之意, 一體嚴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농사 상황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나오고 있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봄보리는 간간이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청명이 이미 지나 봄농사가 시작되어 권장하는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여러 고을에 지시하여 이웃에 농사 소를 빌리고, 곡식을 나누어 식량을 도와주어 기어이 각자 온 힘을 다해 흑시라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독을 쌓거나 보를 막아 물을 가두어 물을 받는 등의 사항도 또한 유념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마찬가지로 엄중히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0. 1833년(순조 33) 2월 24일(양력 4월 1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13d~11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40b~41a)

臣營下今月二十三日未時始雨，間間霏灑，至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3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1. 1833년(순조 33) 2월 26일(양력 4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14b~114b)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41a~41b)

臣營下今二月二十三日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信川·長連·黃岡·白川·金川·平山等八邑, 得一鋤, 襄津·長湍·松禾·文化·安岳·載寧·鳳山·瑞興·延安等九邑, 僅爲浥塵是如爲白有在乎, 外此遠邑雨澤, 隨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2월 23일에 내린 비가 4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신천·장려·황강·배천·금천·평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웅진·장연·송화·문화·안악·재령·봉산·서흥·연안 등 9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밖의 먼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2. 1833년(순조 33) 3월 1일(양력 4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17c~117d)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48a~48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幾盡抽芽, 春牟間或出土, 早黍·粟今方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方張抽芽, 春麴已盡耕播, 早黍·粟間間落種是如爲白有知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나오고 있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23. 1833년(순조 33) 3월 12일(양력 5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33b~133c)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64a~64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巡部之行, 歷過海州·延安·白川·金川·平山·瑞興·鳳山等邑, 方到黃岡縣, 而沿路所見處段, 秋牟已盡抽芽, 小麥間或向青, 春牟今方出土, 早黍·粟幾盡畊播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載寧·菟山·新溪·遂安·谷山等十五邑段, 秋牟·小麥, 始或向青, 春牟已盡抽芽, 早黍·粟畊播垂畢是如. 牒呈爲白乎旆, 今三月十二日卯時始雨, 間間霏微, 至巳時仍爲開霽, 所得僅爲溫塵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제가 관할 지역을 순시하는 길에 해주·연안·배천·금천·평산·서흥·봉산·황강 등 고을을 지나 막 황강현에 도착하였습니다. 길가에서 본 것의 경우, 가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나왔고, 가을밀은 간혹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지금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재령·토산·신계·수안·곡산 등 15개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가을밀은 더러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3월 12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사시에 이르러 이내 개었는데, 내린 것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24. 1833년(순조 33) 3월 16일(양력 5월 5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134a~134a) /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65a~65a)

臣巡到黃岡縣，今三月十二日得雨一犁許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延安·白川·鳳山等四邑，得二犁，載寧·瑞興·新溪·平山·金川·安岳·殷栗·長連·文化·信川·豐川等十一邑，得一犁，康翎·襄津·長淵·松禾·遂安·冤山·谷山等七邑，得二鋤是如。牒呈是白置有亦，今番雨澤，各邑所得，雖或不同，田種適宜，民事可幸是白如乎，嗣後農形，更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순찰하러 황강현에 도착하여 이번 3월 12일에 내린 비가 1려가량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연안·배천·봉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재령·서흥·신계·평산·금천·안악·은율·장련·문화·신천·풍천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장연·송화·수안·토산·곡산 등 7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으로 각 고을에 내린 것은 비록 더러 같지 않으나 밭의 씨앗을 뿌린 곳에는 적절하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5. 1833년(순조 33) 3월 23일(양력 5월 1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35b~135c)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65a~65b)

臣巡到黃岡縣，道內農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黃岡縣，行過載寧·信川·安岳·文化·松禾·豐川·長淵·襄津·康翎·海州等地，而歷路所見處段，秋牟·小麥，始或向長，而立種既稀，亦多全棄處，春牟幾盡抽芽，早黍·粟耕播已畢，晚黍·粟·唐稷，方張耕播，早稻及木綿，間或落種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延安·白川·金川等三邑段，秋牟立苗無幾，小麥今始向青，平山·瑞興·鳳山·遂安·谷山·新溪·冤山·長連·殷栗等九邑，秋牟·小麥，漸次向長，春牟方始向青，早黍·粟耕播垂畢，晚黍·粟·唐稷，次第耕播，早稻及木綿，方張播種是如。牒呈爲白有在乎，嗣後農形，更待報來，連續登聞計料爲白乎旆，臣當日還營。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순찰하러 황강현에 도착하여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황강현부터 재령·신천·안악·문화·송화·풍천·장연·웅진·강령·해주 등의 지역을 지났는데 지나가는 길에 본 것의 경우,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자라가는데 싹이 난 것이 이미 드물어 또한 전부 포기한 것이 많았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밭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다 마쳤고, 늦기장·늦조·늦수수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올벼 및 목화는 간혹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연안·배천·금천 등 3개 고을의 경우, 가을보리는 싹이 튼 것이 거의 없고, 보리·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산·서흥·봉산·수안·곡산·신계·토산·장린·은율 등 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자라가고, 봄보리는 막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 및 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저는 당일 감영에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26. 1833년(순조 33) 4월 2일(양력 5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40c~140c)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82a~82a)

臣營下今三月二十九日巳時始雨，間間霏灑，至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白如乎，  
列邑雨澤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29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  
우택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0027. 1833년(순조 33) 4월 2일(양력 5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40d~141a)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82b~83a)

臣營下去三月二十九日得雨二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襄津, 得二犁, 康翎·信川·文化·載寧·鳳山長湍·白川等七邑, 得一犁是如爲白有在乎, 餘外各邑形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3월 29일에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신천·문화·재령·봉산·장연·배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28. 1833년(순조 33) 4월 5일(양력 5월 2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53c~15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97b~98b)

去三月二十九日之雨, 海州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金川得二犁, 延安·松禾·安岳·豐川·黃岡·兎山·谷山等七邑, 得一犁, 平山·新溪, 得二鋤, 瑞興·遂安·長連·殷栗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牟酷被冬寒, 根苗俱死, 而或有立種者, 今纔胚胎, 春牟小麥, 日漸茁長, 早黍·粟, 過半立苗, 晚黍·粟·唐稷, 今方出土, 早稻·木綿, 幾盡耕種, 晚稻今始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牟立種無幾, 胚胎難望, 春牟小麥漸次向青,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唐稷, 已盡耕播, 山田火粟, 今始落種, 早稻·木綿, 方張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均霑一路, 秋牟之自來稀種者, 雖無可論, 其餘田種各穀, 俱有滋潤之效, 民事多幸.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3월 29일의 비로 해주 등 9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금천은 2려가 내렸고, 연안·송화·안악·풍천·황강·토산·곡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산·신계는 2서가 내렸고, 서흥·수안·장련·은율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혹독한 겨울 추위로 뿌리와 싹이 모두 죽었는데, 간혹 자란 것은 이제 겨우 알을 뻗고,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싹이 지라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채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싹이 돋은 것이 거의 없어 알을 배기를 바라기 어렵고, 봄보리·봄밀은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마쳤고, 산밭의 화속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우택이 황해도 전체를 고루 적셔주어 가을보리 중 본디 씨앗이 드문 것은 비록 따질 수 없지만, 그 밖의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고루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29. 1833년(순조 33) 4월 8일(양력 5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54b~154c)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99b~100a)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新溪·瑞興等兩邑所報, 則今月初二日未時量, 雨雹驟下, 新溪之餘背耳·麻知谷兩坊, 計其所過, 長爲二十里, 廣爲五里許, 而雹形大如軟栗, 小如鳥卵, 兩麥舉皆折傷, 早黍·粟之立種者, 木綿之出土者, 亦多受傷. 瑞興之栗里·九井·道上·道下·細坪·所沙·梅楊等七坊, 計其所過, 長爲八十里, 廣爲四十里, 而雹形大如雞卵, 小如鳥卵, 春秋牟麥之苗長者, 木花黍·粟之立苗者, 酷被傷損, 萬無蘇醒之望. 故以相當穀, 卽令代播是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立苗之際, 兩邑之非時雹災, 極爲驚悶是白乎等以. 就其中被災最甚無望更蘇處段, 隨即代播, 毋至失時之意, 另飭各該邑爲白乎旆. 臣營下今月初七日卯時始雨, 間或霏灑, 至初八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신계·서흥 등 2개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2일 미시쯤에 우박이 갑자기 내려, 신계의 여배이·마지곡 2개 방에 지난 곳을 계산하면 길이는 20리이고 너비는 5리가량이며,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은 풋밤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한데, 보리·밀은 대부분 꺾여서 손상됐고, 싹이 돋은 올기장·올조와 땅 밖으로 나온 목화의 싹도 또한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서흥의 올리·구정·도상·도하·세평·소사·매양 등 7개 방은 지난 곳을 계산하면 길이는 80리이고 너비는 40리가량이며,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은 달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합니다. 싹이 자란 가을보리·가을밀·봄보리·봄밀과 싹이 트는 목화·기장·조가 혹독하게 손상되어 소생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곡식으로 즉시 대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의 싹이 트는 때인데 2개 고을에 때맞지 않게 우박 재해를 입었다니 놀랍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 입은 재해가 가장 심해 다시는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 즉시 대신 씨앗을 뿌리도록 하여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별도로 각 해당 고을에 지시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7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8일 사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30. 1833년(순조 33) 4월 10일(양력 5월 2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58c~158d)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07b~18a)

今四月初二日新溪·瑞興兩邑雹災形止及今月初八日臣營下得雨一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黃岡縣段, 今〈月〉初二日未時量, 龜洛·薪橋兩坊, 雨雹驟下, 所過處, 長爲二十里, 廣爲二里許, 而雹形大如鳥卵, 小如大豆, 茁茂之春秋粳·麥, 莖葉傷損, 發穗無望, 立種之黍·粟木綿, 稚苗摧折, 在在枯死. 而因面報摘奸之際, 自致遲滯, 今始報來是如爲白乎旆, 初八日之雨, 康翎·襄津·信川·文化·長淵·松禾·載寧·黃岡等八邑, 得二犁, 海州·延安·鳳山·長連等四邑, 得一犁, 金川, 得二鋤, 白川,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立苗之時, 黃岡縣之又被雹災, 極爲驚悶是白乎等以. 被災最甚無望更蘇處段, 卽令代播, 毋或失時之意, 另飭該邑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초2일 신계·서흥 두 고을의 우박 재해 및 이번 달 초8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황강현의 경우, 이번 초2일 미시쯤에 구락·신교 2개 방에 우박이 갑자기 내렸는데, 손상된 곳은 길이는 20리이고 너비는 2리가량이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큰 콩만 합니다. 싹이 자라 무성하던 가을보리·가을밀과 봄보리·봄밀은 줄기와 잎이 손상되어 이삭이 펴 가망이 없고, 싹이 나오던 기장·조·목화는 어린싹이 꺾여 곳곳에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면의 보고를 캐널 즈음에 자연 지체되어 지금 비로소 보고한다고 합니다. 초8일의 비로 강령·웅진·신천·문화·장연·송화·채령·황강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연안·봉산·장련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은 2서가 내렸고, 배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의 싹이 트는 때인데 황강현에 또 우박 재해를 입었다니 놀랍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입은 재해가 가장 심해 다시는 되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 즉시 대신 씨앗을 뿌리도록 하여 혹시라도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당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1. 1833년(순조 33) 4월 12일(양력 5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59c~159d)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10a~110a)

今四月初八日之雨, 康翎等十四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豐川得二犁, 瑞興·遂安·兎山·殷栗等四邑, 得一犁, 平山·新溪·谷山等三邑, 得二鋤是如爲白有在乎, 雨後農形, 更待邑報,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초8일의 비로 강령 등 14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풍천은 2려가 내렸고, 서흥·수안·토산·은율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산·신계·곡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온 뒤 농사 상황은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32. 1833년(순조 33) 4월 15일(양력 6월 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160c~160d) /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111b~11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牟之餘存者, 幾盡發穗, 春牟小麥, 方張胚胎, 早黍·粟間間初耘, 晚黍·粟·唐稷, 已盡立苗, 早稻·木綿, 今方出土, 晚稻幾皆畊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牟今始發穗, 而穗穎零星, 難望食實, 春牟小麥, 間或胚胎, 早黍·粟舉皆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立種, 早稻·木綿, 間或吐芽, 晚稻方張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秋牟之餘存發穗者及田種畚稼, 漸次向茂是白如乎, 嗣後形止, 隨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남아 있는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켜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벼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이삭이 켜기 시작하였는데 이삭이 거의 없어 열매 먹기를 바라기 어렵고, 봄보리·봄밀은 간혹 알을 났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차례로 싹이 돋고, 올벼·목화는 간혹 싹이 나고, 늦벼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가을보리 중 이삭이 켜 것 및 밭에 씨앗을 뿌린 것이나 눈에 심은 벼는 점차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3. 1833년(순조 33) 4월 20일(양력 6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61b~161c)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13b~113b)

臣營下今四月十九日寅時始雨，或霏或灑，至二十日丑時乃止，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列邑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9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34. 1833년(순조 33) 4월 22일(양력 6월 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161d~161d) /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114a~114b)

臣營下今四月二十日丑時至, 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康翎得二犁, 襄津·長淵·松禾·豐川·長連·安岳·文化·信川·延安·載寧·黃岡等十一邑, 得一犁, 海州·白川·金川·平山鳳山·瑞興等六邑, 得二鋤是如爲白有在乎, 餘外各邑形止, 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0일 축시까지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령은 2려가 내렸고, 용진·장연·송화·풍천·장려·안악·문화·신천·연안·재령·황강 등 11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주·배천·금천·평산·봉산·서흥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35. 1833년(순조 33) 4월 24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62a~162b) / 黃海監營狀啓臚錄 2책(114b~115a)

今四月二十日之雨, 康翎等十八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殷栗·新溪·冤山·遂安·谷山等五邑, 俱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已盡發穗, 春牟小麥, 今方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 次第初耘, 早稻·木綿, 今始立苗, 晚稻已盡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牟方張發穗, 春牟小麥, 始或發穗, 早黍·粟今方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盡立苗, 早稻·木綿, 今始立苗, 晚稻幾盡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雨暘之均適, 餘存之秋麴, 頗有食實之望, 言念民事, 誠爲可幸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報來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20일의 비로 강령 등 18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은율·신계·토산·수안·곡산 등 5개 고을은 모두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비와 햇볕이 고루 적당하여 남아 있는 가을보리는 자못 열매를 먹을 가망이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36. 1833년(순조 33) 5월 8일(양력 6월 25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179b~179c) / 黃海監營狀啓謄錄 2책(135b~136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今方入實, 春麴·小麥, 已盡發穗, 早黍·粟今始再耘, 晚黍·粟·唐稷, 初耘垂畢, 早稻·木綿, 方張初耘, 晚稻幾皆立種是如爲白乎旅.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間或入實, 春麴·小麥, 方張發穗, 早黍·粟幾盡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初耘, 早稻·木綿, 幾皆立苗, 晚稻間立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日氣調和, 田畝各穀, 次第滋長, 民事可幸是白如乎. 本道觀察使臣金蘭淳, 間因繡行, 謂有私義難安之端, 廢却公務乙仍于, 臣代行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이삭이 맺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간간이 싹이 돋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화로워 논밭의 각종 곡식이 차례로 성장하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본 황해도 관찰사 김난순은 그사이에 암행으로 인하여 사적인 의리로 편안하기 어려운 실마리가 있다고 하며 공적인 업무를 그만두어 제가 대신 긴급 보고합니다.

### 0037. 1833년(순조 33) 5월 20일(양력 7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87a~187b)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5a~5b)

道內農形, 假都事信川郡守臣李容奎, 已爲代行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信川·豐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過半成熟, 春麴·小麥次第入實, 早黍·粟再耘垂畢, 晚黍·粟·唐稷今方再耘, 早稻·木綿初耘垂畢, 晚稻今始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方張成熟, 春麴·小麥間多入實, 早黍·粟今方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初耘垂畢, 早稻·木綿今始入鋤, 晚稻已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臣於赴任之路, 看審農形是白乎則, 秋麴間或刈取, 春麴·小麥入實向熟, 黍·粟·唐稷日漸滋長, 禾穀木綿及時入鋤, 有水根畚庫, 間多移秧, 而至於無水根畚庫, 不無惜乾之慮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가도사인 신천 군수 이용규가 이미 대신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신천·풍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절반 이상 익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익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그사이에 많이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부임 길에 농사 상황을 살펴보니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봄밀은 알이 들어 익어가고, 기장·조·수수는 날로 점점 자라고, 벼·목화는 때맞춰 김매기를 하고, 물이 나는 논은 그사이에 모내기를 많이 하였고 물이 나지 않는 논은 가뭄 들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를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38. 1833년(순조 33) 5월 29일(양력 7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0d~191b)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1b~12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金川等十四邑, 春粃·小麥幾盡刈取, 早黍·粟已盡三耘, 晚黍·粟·唐稷今始三耘, 早稻·木綿再耘垂畢, 晚稻間或再耘, 根耕豆·太·木麥方張耕播, 而跨朔亢旱之餘, 畚稼日漸萎黃, 秧坂舉皆乾涸, 蟲蝕蟹損, 從以爲憂, 根耕尚未立種是如爲白乎旃.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平山等九邑, 秋粃已盡收穫, 春粃·小麥方張刈取, 早黍·粟次第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再耘, 早稻·木綿過半再耘, 晚稻幾盡初耘, 根耕豆·太·木麥始或耕播, 而畚庫在在乾涸, 畢移無期, 黍·粟·唐稷烈陽所曝, 間多萎枯, 豆·太·木麥土脈甚固, 耕播差遲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連接邑牒, 參以聞見是白乎則, 去四月十九日得雨八分以後, 淒風烈陽, 旱氣日熾蟲蝕浸盛, 蟹損又多, 田種畚稼, 舉皆受病, 而初庚在卽, 秧節漸晚, 言念民事, 誠萬萬渴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금천 등 14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그루갈이하는 콩·팥·메밀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한 달 넘는 심한 가뭄 끝에 논의 벼는 날로 점점 누렇게 시들고 못자리는 대부분 메말랐고 벌레 먹거나 게 손상으로 근심되고 그루갈이한 것은 아직 싹이 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 등 9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하였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그루갈이하는 콩·팥·메밀은 더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논은

곳곳마다 메말라 다 옮겨심을 기약이 없고, 기장·조·수수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어 그사이 시들어 마른 것이 많고, 콩·팥·메밀은 땅이 매우 단단하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접수한 고을의 공문과 보고들을 것을 참조하자면, 지난 4월 19일에 비가 8푼 내린 이후에 서늘한 바람과 뜨거운 햇볕으로 가뭄 기운이 날로 번지고 벌레가 갉아먹는 것이 차츰 왕성해지고 게 손상도 또 많아져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논·벼는 대부분 병들었습니다. 초복이 닥쳤는데 모내기철이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매우 안타깝게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39. 1833년(순조 33) 6월 1일(양력 7월 1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1c~191d)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2b~13a)

道內農形及閏旱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自四月十九日以後, 至今四十餘日之間, 一直亢旱, 田種則日漸萎枯, 間有蟲蝕之患, 畚庫則雖水付處, 在在乾涸除良, 初庚已屆, 一霽尙靳, 移秧失時, 目下民情, 萬萬罔措乙仍于, 海州牧祈雨祭, 不卜日今六月初二日, 臣虔誠設行事, 當日發行于社稷壇所爲白乎旆, 各邑段置, 祈雨祭隨其緩急, 不卜日次第設行之意, 今方發關申飭, 而白川郡守鄭世翼, 遂安郡守李熙綱, 新溪縣令金箕默, 黃岡縣監趙敏永, 俱爲受由上京, 姑未還任是白如乎, 竝令該曹催促下送爲白只爲.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가뭄이 걱정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4월 19일 이후로 지금까지 40여 일간 줄곧 매우 가뭄어 말에 씨앗을 뿌린 것은 날로 점점 시들어 마르고 그사이에 벌레가 갉아먹는 근심이 있고 논은 비록 물을 대는 곳이라도 곳곳마다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초복이 이미 닳쳤는데 아직 한바탕 쏟아지지 않으니 모내기할 때를 놓쳐 현재 백성들의 심정은 매우매우 어찌할 줄 모릅니다. 해주목 기우제는 날을 가리지 않고 이번 6월 초2일에 제가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할 일로 당일 사직단 제사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각 고을도 기우제를 완급에 따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차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지금 막 공문으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천 군수 정세익, 수안 군수 이희경, 신계 현령 김기묵, 황강 현감 조민영은 모두 휴가를 받아 상경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재촉해서 내려보내도록 해주십시오.

#### 0040. 1833년(순조 33) 6월 3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1d~192a)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3a~13b)

今月初二日臣海州牧社稷壇祈雨祭設行後還營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去五月二十八日驟雨長連·白川·金川·松禾等四邑, 得一鋤, 長淵·瑞興·豐川·殷栗·遂安·兎山等六邑僅爲溫塵是如爲白有在乎. 諸邑之驟雨, 無以解渴, 殆同沃焦, 而餘外各邑, 一直亢旱, 目下民情, 轉益渴悶乙仍于, 臣以初四日, 再次祈雨祭設行事, 當日離營, 發行于海州牧龍塘祭所爲白乎脉, 康翎·松禾·甕津等三邑, 祈雨祭設行之意, 先爲報來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2일에 제가 해주목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5월 28일의 소나기로 장련·배천·금천·송화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연·서흥·풍천·은율·수안·토산 등 6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은 소나기로 해갈된 곳은 없고 거의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도 줄곧 매우 가물어 현재 백성들의 심정이 갈수록 애타게 걱정입니다. 제가 초4일에 재차 기우제를 시행할 일로 당일 감영을 떠나 해주목 용당 제사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강령·송화·웅진 등 3개 고을은 기우제를 시행한다는 뜻으로 먼저 보고가 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41. 1833년(순조 33) 6월 4일(양력 7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2b~192c)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4a~14b)

臣海州牧龍塘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而臣營下，今月初三日巳時始雨，或霏或灑，間間霏下，初四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而雨意尙濃是白如乎，渴望之餘，得此甘霈，言念民事，誠極萬幸是白乎所。三次祈雨祭，姑觀來頭，設行計料爲白乎旆，平山·延安·長淵·安岳·信川·文化·瑞興·殷栗·豐川等九邑祈雨祭，次第設行是如。牒呈是白置，各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는 해주목 용당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후 당일 감영에 돌아왔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더니 초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었고, 비올 조짐이 아직도 질습니다.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렸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매우 다행입니다. 3차 기우제는 일단 앞으로 보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산·연안·장연·안악·신천·문화·서흥·은율·풍천 등 9개 고을은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42. 1833년(순조 33) 6월 5일(양력 7월 2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2c~192d)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4b~14b)

臣營下今月初四日辰時至，得雨三寸一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伊時以後，間間霪下，至初五日丑時乃止，測雨器水深，又爲三寸是白如乎，久旱之餘，甘霈優洽，秧役方始齊舉，各穀庶可蘇醒，民事誠萬萬多幸。海州牧祈雨祭，爲先停止，而列邑祈雨祭段，康翎·松禾·甕津·平山·延安·長淵·安岳·信川·文化·瑞興·殷栗·豐川等十二邑，前已設行，鳳山·兎山，又爲設行是如是白遣，餘外遠邑段，姑未報來是白乎所。待今番雨澤所得之齊報，祈雨祭停止與否，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4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3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5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3치였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쏟아져 넉넉하게 흡족하여 모내기 일을 막 일제히 시작하였고, 각종 곡식은 거의 되살아날 수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매우매우 다행입니다. 해주목의 기우제는 먼저 중지하였고, 강령·송화·웅진·평산·연안·장연·안악·신천·문화·서흥·은륜·풍천 등 12개 고을은 앞서 이미 시행하였고, 봉산·토산은 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밖의 먼 고을의 경우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택으로 내린 것은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기우제 중지 여부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3. 1833년(순조 33) 6월 6일(양력 7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2d~193a)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5a~15a)

臣營下今六月初四日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川渠漲滿，康翎·延安·信川·瑞興等四邑，得三犁，載寧·豐川·甕津·鳳山·松禾·長淵·金川·文化·白川等九邑，得二犁，而康翎·松禾·甕津·延安·長淵·信川·文化·瑞興·豐川·鳳山等十邑段，祈雨祭停止，金川·白川·載寧等三邑段，祈雨祭未及設行，而得雨仍置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各邑得雨形止及祈雨祭停設與否，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6월 초4일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연안·신천·서흥 등 4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재령·풍천·웅진·봉산·송화·장연·금천·문화·배천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송화·웅진·연안·장연·신천·문화·서흥·풍천·봉산 등 10개 고을의 경우 기우제를 중지하였고, 금천·배천·재령 등 3개 고을의 경우 기우제를 미처 시행하지 않았는데 비가 내려 그대로 두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 및 기우제 중지나 시행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44. 1833년(순조 33) 6월 9일(양력 7월 2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4a~194c)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7a~18a)

今六月初四日海州等十四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兔山·新溪·平山·黃岡等四邑, 川渠漲滿, 安岳·長連·遂安·殷栗·谷山等五邑, 得二犁, 而平山·安岳·兔山·殷栗等四邑段, 祈雨祭停止, 黃岡·新溪·谷山·遂安·長連等五邑段, 祈雨祭未及設行, 而得雨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胚胎, 晚黍·粟·唐稷幾盡三耘, 早稻·木綿, 今始三耘, 晚稻過半再耘, 豆·太·木麥間間立苗, 而久旱之餘, 得此甘澍, 田種畚稼, 漸次蘇醒, 未移之秧苗, 俱爲移插, 黍·粟蟲患, 亦爲寢熄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春牟小麥舉皆收穫, 早黍·粟間或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三耘, 早稻·木綿幾盡再耘, 晚稻今始再耘, 根耕豆·太·木麥次第耕播, 而今番雨澤, 雖爲晚時, 田畚各穀之多被傷損者, 庶有蘇醒之望, 秧苗之未移者, 方張移插是如. 爲等如, 牒呈爲白乎旆. 臣營下, 今月初八日寅時, 又爲始雨, 間間霑灑, 初九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五寸二分是白如乎, 旱餘大霑, 雖甚多幸, 以營下所得言之, 近浦田畚, 不無沈墊之慮是白乎所, 列邑形止, 待報來卽速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초4일에 해주 등 14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토산·신계·평산·황강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안악·장련·수안·은율·곡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산·안악·토산·은율 등 4개 고을의 경우 기우제를 중지하였고, 황강·신계·곡산·수안·장련 등 5개 고을의 경우 기우제를 미처 시행하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싹이 돋는데,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 밭에 뿌린 씨앗과 논의 벼는 점차 되살아나고, 옮겨심지 못한 모는 모두 옮겨 심었고,

기장·조는 벌레 근심도 또한 그쳤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을 뱉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숙은 지금 막 세벌 김매기 하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그루같이하는 콩·팥·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번 우택이 비록 때가 늦었지만, 많은 손상을 입은 논밭의 각종 곡식은 거의 되살아날 가망이 있고 옮겨심지 못한 모는 한창 옮겨 심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9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2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큰비는 비록 매우 다행이나 저의 감영에 내린 것으로 말하자면 포구 근처 논밭은 물에 잠길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5. 1833년(순조 33) 6월 11일(양력 7월 2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4d~195a)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8b~19a)

臣營下今六月初八日初九日得雨五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襄津·豐川·金川等四邑, 川渠漲溢, 康翎·鳳山·安岳·白川·松禾等五邑, 得三犁, 長淵·信川·文化·載寧·瑞興·延安·平山等七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十一日丑時始雨, 或霏或灑, 酉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8일·초9일에 내린 비가 5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미니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풍천·금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강령·봉산·안악·배천·송화 등 5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장연·신천·문화·재령·서흥·연안·평산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1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46. 1833년(순조 33) 6월 14일(양력 7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7d~198a)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3b~23b)

海州等十六邑今六月初八九日雨澤及臣營下今月十一二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八九日之雨， 黃岡·谷山·遂安·新溪·兔山等五邑川渠漲滿， 長連·殷栗得二犁是如爲白乎旆， 十一二日之雨， 載寧·瑞興·延安·白川·鳳山·黃岡等六邑， 大小川渠， 無不漲滿， 海州·康翎·信川等三邑， 得三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日雨水， 雖爲頻仍， 幸不至暴霖， 近浦田畝， 別無沈墊之患是白如乎， 餘外各邑得雨多寡及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해주 등 16개 고을의 이번 6월 초8·9일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2일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9일의 비로 황강·곡산·수안·신계·토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련·은율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12일의 비로 재령·서흥·연안·배천·봉산·황강 등 6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차지 않은 것이 없고, 해주·강령·신천 등 3개 고을은 3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빗물이 비록 빈번하나 다행히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지 않아 포구 근처 논밭이 물에 잠기는 근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 및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47. 1833년(순조 33) 6월 18일(양력 8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198c~198d)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4b~25a)

今六月十一二日之雨, 載寧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文化·長連·平山·金川·新溪·兎山·遂安·谷山等八邑, 川渠漲滿, 襄津·長淵·安岳等三邑, 得二犁, 殷栗·豐川·松禾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間或發穗, 晚黍·粟·唐稷三耘垂畢, 早稻·木綿方張三耘, 晚稻幾盡再耘, 新移之秧次第初耘, 豆·太·木麥已盡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過半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三耘, 早稻·木綿始或三耘, 晚稻間間再耘, 新移之秧方始初耘, 豆·太·木麥次第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後, 日候連爲調順, 田種畚稼, 俱有善就之望, 民事多幸是白如乎,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2일의 비로 재령 등 9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장령·평산·금천·신계·토산·수안·곡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웅진·장연·안악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은율·풍천·송화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령·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새로 옮겨 심은 모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알을 났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새로 옮겨 심은 모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싹이 돋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비온 후 날씨가 연이어 순조로워 밭에 씨앗

을 뿌린 것과 논의 벼는 모두 잘 여물 가망이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48. 1833년(순조 33) 6월 25일(양력 8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01b~201c)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9b~29b)

臣營下今六月二十三日寅時始雨，乍陰乍陽是白如可，二十五日辰時以後，或霏或灑，當日午時至，測雨器水深爲八分，而東風連吹，濕雲四低，斷續霏微是白如乎，列邑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3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25일 진시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고, 동풍이 연이어 불고 습기찬 구름이 사방에 깔려 끊어졌다 이어지면서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49. 1833년(순조 33) 6월 28일(양력 8월 1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01c~202a)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30a~30b)

臣營下今六月二十五日午時至, 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或霏或灑, 至二十六日卯時開霽, 測雨器水深, 又爲五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四五日之雨, 黃岡·鳳山·安岳·松禾·長淵等五邑, 得二犁, 海州·載寧·文化·瑞興等四邑, 得一犁, 延安·白川·金川等三邑, 得二鋤, 康翎·豐川·信川·殷栗·遂安·兎山等六邑, 得一鋤, 平山·湍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入實, 晚黍·粟·唐稷次第發穗, 早稻間或胚胎, 晚稻三耘伊始, 秧苗之早移者間間再耘, 晚移者在在初耘, 木綿方始開花, 豆·太·木麥幾盡初除草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舉皆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次第胚胎, 早稻及木綿過半三耘, 晚稻與秧苗今始再耘, 豆·太·木麥間或入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雨澤周洽, 日候調順, 田畝各穀, 漸次茁茂, 民事多幸是白如乎.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5일 오시까지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묘시에 이르러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5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4일·25일의 비로 황강·봉산·안악·송화·장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재령·문화·서흥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연안·배천·금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령·풍천·신천·은율·수안·토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이삭이 뻗고, 올벼는 간혹 알을 뻗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일찍 옮겨 심은 모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게 옮겨 심은 것은 곳곳에서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과 올조는 대

부분 이삭이 뻗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차례로 알을 뻗고, 울벼 및 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와 모내기한 모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간혹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우택이 두루 흡족하고 날씨가 순조로워 논밭의 각종 곡식이 점차 싹이 자라 무성하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0. 1833년(순조 33) 7월 6일(양력 8월 20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3책(206a~206a) / 黃海監營狀啓謄錄 3책(37b~37b)

臣在黃岡縣，今七月初三日得雨一犁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今月初五日寅時量，又爲始雨，或霏或灑，初六日丑時至，所得爲三犁是白乎旂。卽接各邑所報，則初三日之雨，海州·遂安·白川等三邑，得二犁，鳳山·瑞興·平山·長淵·載寧·新溪·兎山等七邑，得一犁是如。牒呈是白置有亦。雨水頻仍，連日霑霑，將有成霖之慮，殊甚憫然是白如乎，餘外各邑形止，更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황강현에서 이번 7월 초3일에 내린 1려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5일 인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3려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3일의 비로 해주·수안·배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봉산·서흥·평산·장연·재령·신계·토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빗물이 빈번하고 연일 퍼부어 장마질 염려가 있으니 특히 매우 걱정입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51. 1833년(순조 33) 7월 8일(양력 8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06c~206c)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38a~38b)

今七月初三日海州等十一邑雨澤形止及初六日黃岡縣得雨三犁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初三日之雨， 金川·松禾， 得二犁， 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康翎·甕津·谷山·延安·豐川等十邑， 得一犁， 初六日之雨， 鳳山·瑞興川渠漲滿， 載寧·信川·安岳·松禾等四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旃。 黃岡縣今月初七日寅時量， 又爲始雨， 或霖或灑， 間間滂沱， 至初八日寅時少歇， 而大小川渠， 無不漲溢， 所得不可以鋤犁論是白乎所。 當此各穀成就之時， 雨水若是過濫， 污下田畝， 汰落居多， 不無傷稼之慮， 言念民事， 誠極悶然。 各邑農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3일 해주 등 11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초6일 황강현에 내린 비가 3려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3일의 비로 금천·송화는 2려가 내렸고, 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강령·웅진·곡산·연안·풍천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초6일의 비로 봉산·서흥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재령·신천·안악·송화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황강현은 이번 달 초7일 인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간간이 짹짹 쏟아지더니 초8일 인시에 이르러 조금 그쳤는데,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내린 것은 1서·1려로 따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여물 때에 빗물이 이처럼 지나치게 넘치고 지대가 낮은 곳의 논밭은 사태로 떨어져 나간 곳이 많고 벼가 손상될 우려가 없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52. 1833년(순조 33) 7월 14일(양력 8월 2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8a~28b)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41a~41b)

今七月初八日瑞興等七邑雨水形止及黃岡縣初十日得雨一犁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初八日之雨，金川·兔山·遂安·谷山·長連·松禾·豐川·長淵等八邑，川渠漲滿，文化·安岳·殷栗·延安·康翎·襄津等六邑，得二犁，新溪得一犁，初十日之雨，平山·金川·白川·海州·康翎等五邑，得二犁，鳳山·瑞興·載寧·安岳·遂安·新溪等六邑，得一犁是如爲白乎旃。黃岡縣今月十三日寅時，又爲始雨，或霏或灑，十四日寅時至，所得爲一犁是白如乎，陰雲不捲，雨意尙濃，言念農形，誠爲悶然。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8일 서흥 등 7개 고을의 빗물 경위 및 황강현에 초10일에 내린 비가 1려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비로 금천·토산·수안·곡산·장련·송화·풍천·장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문화·안악·은율·연안·강령·용진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계는 1려가 내렸고, 초10일의 비로 평산·금천·배천·해주·강령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봉산·서흥·재령·안악·수안·신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황강현은 이번 달 13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입니다.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으니 농사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53. 1833년(순조 33) 7월 16일(양력 8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2a~212b)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47a~47b)

今七月初十日平山等十一邑雨水形止及十四日得雨一犁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則初十日之雨，襄津·長淵·信川等三邑，川渠漲滿，文化·延安，得二犁，松禾·豐川·殷栗·長連·兔山·谷山等六邑，得一犁，十四日之雨白川·延安，川渠漲流，鳳山·兔山得二犁，瑞興·平山金川·海州等四邑，得一犁，黃岡縣今十五日丑時，又爲始雨，間間霏灑，十六日寅時至，所得爲一犁是白如乎，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10일의 평산 등 11개 고을의 빗물 경위 및 14일에 내린 비가 1려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0일의 비로 웅진·장연·신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문화·연안은 2려가 내렸고, 송화·풍천·은율·장려·토산·곡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14일의 비로 배천·연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봉산·토산은 2려가 내렸고, 서흥·평산·금천·해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황강현은 이번 15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6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려입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4. 1833년(순조 33) 7월 19일(양력 9월 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2b~212b)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47b~47b)

今七月初十日平山等十一邑雨水形止及黃岡縣十四日得雨一犁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十日之雨, 長連·信川·文化·殷栗·襄津·長湍·豐川·兔山·松禾等九邑, 得一犁, 谷山·延安得二鋤, 十四日之雨, 兔山·延安·殷栗等三邑, 川渠漲流, 白川·鳳山·平山·遂安·海州等五邑, 得二犁, 載寧·瑞興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10일의 평산 등 11개 고을의 빗물 경위 및 황강현의 14일에 내린 비가 1려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0일의 비로 장련·신천·문화·은율·웅진·장연·풍천·토산·송화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곡산·연안은 2서가 내렸고, 14일의 비로 토산·연안·은율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배천·봉산·평산·수안·해주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재령·서흥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055. 1833년(순조 33) 7월 22일(양력 9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3a~213c)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49a~49b)

道內雨澤農形, 連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今月十四日之雨, 谷山·新溪·康翎等三邑, 川渠漲流, 襄津·長淵·信川·長連·松禾·安岳·文化·豐川·金川等九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向熟, 晚黍·粟·唐稷方張入實, 早稻已盡胚胎, 晚稻三耘垂畢, 木綿幾盡開花, 豆·太·木麥過半再耘, 而雨水連爲過濫, 傍川之覆沙, 堰垵之潰決, 在在皆然, 各穀之被損者, 無望蘇醒, 至於污下處, 畚庫亦多有沈墊消灑之患是如爲白乎旆.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皆發穗, 早稻今方胚胎, 晚稻次第三耘, 木綿方張開花, 豆·太·木麥今始再耘, 而數旬霖雨之餘, 依山傍川處, 汰落居多, 田種畚稼, 無不受傷, 禾穀則或至沈墊, 豆·太·木麥則起花差遲, 木綿則花房間多腐傷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無論沿峽, 雨水過多, 各穀之未及成就者, 不無被損,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如乎, 繼此日候, 苟得調順, 庶或有蘇醒之望. 嗣後農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우택과 농사 상황은 연이어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4일의 비로 곡산·신계·강령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웅진·장연·신천·장려·송화·안악·문화·풍천·금천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올벼는 이미 다 알을 났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는 거의 다 꽃이 피었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마쳤는데, 빗물이 연이어 지나치게 넘쳐 시내 옆은 사태로 뒤덮이고 독과 제방은 터져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니, 손상을 입은 각종 곡식은 되살아날 가망이 없고, 낮은 곳의 경우 논 또한 물에 잠겨 녹아버릴 근심이 많다고 합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



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이미 다 이삭이 뻗고, 올벼는 지금 막 알을 배고, 늦벼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있고, 콩·팥·메밀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는데, 수십 일 장맛비 끝에 산자락이나 시내 주변인 곳은 사태로 떨어져 나간 곳이 많고,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논·벼는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는데, 벼는 더러 물에 잠겼고, 콩·팥·메밀은 꽃이 피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목화는 화방이 그사이에 썩고 상한 것이 많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물가나 산골짜기 따질 것 없이 빗물이 지나치게 많아 미처 여물지 못한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은 것이 없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진실로 걱정입니다. 이후로 날씨가 진실로 순조롭다면 아마도 되살아날 가망이 더러 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6. 1833년(순조 33) 7월 26일(양력 9월 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3d~213d),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50a~50a)

道內雨水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平山府今七月二十六日丑時始雨, 或霏或灑, 至辰時乃止, 所得爲一犁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 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빗물 경위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평산부에 이번 7월 26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1려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7. 1833년(순조 33) 7월 28일(양력 9월 1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3책(213d~214a) / 黃海監營狀啓謄錄 3책(50a~50b)

今七月二十六日平山府得雨一犁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黃岡得二犁, 白川·海州·信川等三邑, 得一犁, 金川·瑞興·鳳山等三邑, 得二鋤, 兎山·新溪·谷山·延安等四邑, 得一鋤是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26일 평산부에 내린 비가 1려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황강은 2려가 내렸고, 배천·해주·신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서흥·봉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토산·신계·곡산·연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58. 1833년(순조 33) 7월 30일(양력 9월 1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4c~214d)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51b~51b)

今七月二十六日黃岡等十一邑雨水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續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長連·文化·安岳·康翎·襄津等五邑，得一犁，長淵·松禾·豐川·殷栗·載寧·遂安等六邑，得二鋤是如爲白乎旆。金川郡今月二十九日申時，又爲始雨，間間霏灑，三十日巳時至，所得爲一鋤是白如乎，列邑得雨多寡，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26일의 황강 등 11개 고을의 빗물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련·문화·안악·강령·용진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송화·풍천·은율·재령·수안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금천군은 이번 달 29일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30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것은 1서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비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59. 1833년(순조 33) 8월 5일(양력 9월 1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4d~215b)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52a~52b)

道內雨澤農形, 連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去七月三十日之雨, 鳳山·黃岡得一犁, 瑞興·平山·海州·安岳·載寧·新溪·遂安等七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刈取, 晚黍·粟·唐稷漸次向熟, 早稻過半向熟, 晚稻已盡胚胎, 木綿次第結窠, 豆·太·木麥三耘垂畢.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向熟, 間或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已皆入實, 早稻方張向熟, 晚稻過半胚胎, 木綿方始結窠, 豆·太·木麥次第三耘, 而秧苗之晚移者, 節序已晚, 未及發穗, 豆太鋤役愆期, 難望成就, 木綿立種既稀, 結窠且疎, 實難免歉. 海州·襄津·長淵·豐川·黃岡·白川等六邑段, 低下田畝, 俱有蟲蝕之患, 晚稻及黍·粟多被傷損, 延安段, 近浦堰畝, 間或有海溢處, 鹹水相混, 痒稼非細, 安岳段, 北諸面多是堰畝, 而雨水滄瀄, 多有沈墊消瀦之患, 又有蟲損蟹損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臣於支勅之行, 看審所經沿路農形是白乎則, 各穀災形, 雖不至孔酷, 而始旱終澇, 受損居多是白如乎, 臣行未到處, 別遣摘奸, 更待邑報, 嗣後農形, 連續登聞計料爲白乎旆. 臣營下今八月初五日巳時, 大風忽作, 雨雹交下, 至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 而雹形如大豆是白乎等以. 緣由爲先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우택 및 농사 상황은 연이어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7월 30일의 비로 봉산·황강은 1려가 내렸고, 서흥·평산·해주·안악·재령·신계·수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용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차 익어가고, 올벼는 절반 이상 익어가고, 늦벼는 이미 다 알을 났고, 묵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었고, 콩·팥·메밀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가는데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올벼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늦벼는

절반 이상 알을 뺐고, 목화는 막 다래를 뺏기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는데, 늦게 옮겨 심은 모의 싹은 계절이 이미 늦어 이삭이 패지 않고, 콩·팥은 김매기를 시기를 놓쳐 여물 가망이 어렵고, 목화는 싹이 돋은 것이 이미 드물고 뺏은 다래도 또 적어서 정말로 흉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주·웅진·장연·풍천·황강·배천 등 6개 고을의 경우, 낮은 곳의 논밭은 모두 벌레 먹는 근심이 있고 늦벼 및 기장·조는 손상을 입은 것이 많습니다. 연안의 경우, 포구 근처 제방과 논은 간혹 바닷물이 넘친 곳은 찢물이 서로 뒤섞여 병든 벼가 적지 않습니다. 안악의 경우, 북쪽 여러 면의 제방과 논에 빗물이 고여 물에 잠겨 녹아버릴 근심이 많고 또 벌레로 인한 손상과 게로 인한 손상을 입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사신을 접대하는 길에 거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살펴보니, 각종 곡식의 재해 형태는 비록 매우 혹독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가물었다가 나중에는 장마가 쳐서 입은 손상이 많습니다. 저의 행차가 도착하지 않은 곳은 별도로 파견하여 캐내고, 다시 여러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이후 농사 상황은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5일 사시에 큰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오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고 우박의 모양은 큰 콩만 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0. 1833년(순조 33) 8월 6일(양력 9월 1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3책(215c~215c) / 黃海監營狀啓謄錄 3책(53a~53a)

臣營下今八月初五日雨雹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當日午時量，雨雹又爲交下，移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分，而雹形大如鳥卵，小如橡實是白如乎，當此各穀成就之時，連日雹災，極爲驚慮，被災淺深，待其邑報，鱗次登聞計料爲白乎。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5일의 우박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당일 오시쯤에 우박이 또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고,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여무는 때에 연일 우박의 재해를 입어 놀랍고 염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입은 재해가 얕은지 깊은지는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061. 1833년(순조 33) 8월 12일(양력 9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7a~217c)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55b~56b)

臣營下今八月初五日·六日驟雨形止及風雹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伊日之雨，海州·長淵·襄津·遂安等四邑，得一犁，延安·白川·谷山·瑞興·龜山·平山·安岳·載寧·康翎等九邑，得二鋤，而海州段，兩日電災，遍及一境，雹形大如鳥卵，小如大豆，而被雹稍過處，則豆·太·木麥，莖折花落。殆無餘望，黍·粟·唐稷之未及收穫者，大半剝落。向熟之早稻，入實之晚稻，舉皆傷損，爲災徧[徧]深，其稍歇處段置，田畝各穀無不受傷是在如中，東面之來城泉決所文倉等三坊，西面之西邊席洞彌勒高山於乞茄佐洞等六坊，南面之松林合十坊爲尤甚，而所過處，長爲二十里或三十里，廣爲十里或十五里是如是白乎旆。康翎段，兩日之雹，均爲一境之災，至於鳳峴坊一二里，被災尤酷，雹形如棗如栗，所過處，長爲十里或十五里，廣爲五里或十里，而田畝各穀，率多摧折剝落，狀如蹂躪是如爲白乎旆。襄津·延安·白川·平山·載寧·安岳·長淵·谷山等八邑段，伊日電災形止，次第報來，而各坊被災淺深，詳細摘奸，區別更報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際此秋成之時，連日電災，極爲驚悶，先以兩邑所報觀之，各穀傷損，若是孔酷，而襄津等八邑之報，又爲繼至，言念民事，誠極悶然是白如乎。被災邑摘奸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8월 초5일·6일의 소나기 경위 및 바람과 우박의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의 비로 해주·장연·웅진·수안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연안·배천·곡산·서흥·토산·평산·안악·재령·강령 등 9개 고을은 2서가 내렸습니다. 해주의 경우, 이틀간의 우박 재해가 온 지역에 두루 미쳤는데,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큰 콩만 하며, 우박이 조금 지난 곳은 콩·팥·메밀은 줄기가 꺾이고 꽃이 떨어져 거의 남은 가망이 없고, 미처 수확하지 못한 기장·조·수수는 태반이 떨어졌고, 익어가던 올벼와 알이 든 늦벼는 대부분 손상을 입어 재해가 매우 깊고, 조금 덜한 곳도 논밭의 각종 곡식이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동면의 내성·천결·소문창 등 3개 방과 남면의 서면·석동·미륵·고산·어걸·가좌동 등 6개 방과 남면의 송림 등 총 10개 방이 더욱 심한데, 지난 곳은 길이는 20리 또는 30리이고 너비는 10리 또는 15리나



된다고 합니다. 강령의 경우, 이틀간의 우박으로 온 지역이 재해를 고루 입었는데, 봉현방 1·2리에 이르러 재해가 더욱 혹독합니다. 우박의 모양은 대추나 밤만 하고 지난 곳은 길이는 10리 또는 15리이고 너비는 5리 또는 10리나 되니, 논밭의 각종 곡식은 꺾이고 떨어진 게 많아 상태가 짓이겨진 듯하다고 합니다. 웅진·연안·배천·평산·재령·안악·장연·곡산 등 8개 고을의 경우, 그날의 우박 재해 경위는 차례로 보고해 왔는데, 각 방의 재해의 얇고 깊음을 상세히 캐내어 구별하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을 추수 때에 연일 우박 재해를 입다니 놀랍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2개 고을의 보고를 보니 각종 곡식이 입은 손상이 이처럼 매우 혹독하고, 웅진 등 8개 고을의 보고가 또 계속 이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재해를 입은 고을의 캐낸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62. 1833년(순조 33) 8월 16일(양력 09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19b~219d)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59b~600)

道內農形及各邑被雹形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農形,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方張刈取, 早稻幾盡收穫, 晚稻間間發穗, 木綿始或綻綿, 豆·太·木麥次第結殼.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收穫, 早稻過半刈取, 晚稻間或發穗, 木綿今始綻綿, 豆·太·木麥方張結殼, 而晚移之秧, 多未發穗, 污下之畝, 舉皆消灑, 豆太播種既晚, 難望食實, 木綿自是惡濕之種, 而經霖以後, 莖葉徒繁, 桃顆絕罕, 未免慘歉是如爲白乎旆. 今八月初五日·初六日雹災, 襄津之南面·東面·西面·邑內面等四坊, 安岳之細洞·長令·寺串·大元·遠城等五坊, 延安之竝城·大山·召食·古介·薪城·凡庭·三屯·北部等八坊, 白川之上今山·下今山·東邨·鉢山·金谷·小鶴浦等六坊, 載寧之城恒山·栗串·餘勿里·花山·驛堡等五坊, 長淵之木甘坊被雹處, 計其所過, 長爲二十里或十五里, 廣爲十里或五里, 而雹形大如鳥卵, 小如橡實, 豆·太·木麥及木綿, 無不摧折, 如經蹂躪, 未刈之黍·粟, 向熟之早稻, 大半剝落, 酷被傷損. 平山·谷山段, 伊日邑內坊, 雖有如干傷稼, 而不至大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年農形, 旱澇爲災, 田種畚稼, 受損非細, 向後蘇醒, 惟俟日候之調和, 而涼意驟緊, 霜信漸迫, 被災各穀, 難望成就是白在如中, 加之以諸邑雹災, 若是孔酷, 民事尤極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이 당한 우박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접수한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은,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벼는 거의 다 수확하였고, 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목화는 비로소 더러 솜이 터지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재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지금 막 수확하고, 올벼는 절반 이상 베어 거두었고, 늦벼는 간혹 이삭이 났고, 목화는 지금 솜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한창 꼬투리를 맺고 있고,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이삭이 패지 않은 것이 많고, 낮은 지대 논은 대부분 녹았고, 콩·팥은 씨앗 뿌리기가 이미 늦었으니 열매 먹기를 바라기 어렵고, 목화는 본디 습기를 꺼리는 종자인데 장마를 겪은 이후 줄기와 잎만 쓸데없이 우거지고 열매가 매우 드물어 참혹한 흉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8월 초5일·초6일의 우박 재해로 웅진의 남면·동면·서면·읍내면 등 4개 방, 안악의 세동·장령·사곶·대원·원성 등 5개 방, 연안의 병성·대산·소식·고개·신성·범정·삼둔·북부 등 8개 방, 배천의 상금산·하금산·동촌·발산·금곡·소학포 등 6개 방, 재령의 성향산·율곡·여물리·화산·역대 등 5개 방, 장연의 목감방 등이 우박을 맞은 곳인데, 지나간 곳을 계산하면 길이는 20리 또는 15리이고 너비는 10리 또는 5리이고, 우박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도토리만 하였으며, 콩·팥·메밀 및 목화는 꺾이지 않은 것이 없어 짓이겨진 듯하고 베지 못한 기장·조와 익어가던 올벼는 태반이 떨어지고 흑독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평산·곡산의 경우, 그날 읍내방은 비록 약간 손상을 입은 벼가 있지만 크지 않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농사 상황은 가뭄과 장마 재해로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논에 벼에 입은 손상이 적지 않고 이후 되살아나는 것은 오직 날씨가 조화롭기만 기다릴 뿐인데, 서늘한 조짐이 세차게 몰아치고 서리가 점점 닥치니 재해 입은 각종 곡식은 여물기를 바라기 어렵고 여러 고을에 우박 재해까지 더해져 이처럼 매우 흑독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63. 1833년(순조 33) 8월 26일(양력 10월 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20d~221a)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62a~62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幾盡刈取, 晚稻次第入實, 木綿間或摘取, 豆·太·木麥已盡結穀. 載寧·黃岡·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收穫, 早稻已盡刈取, 晚稻間或入實, 木綿今始摘取, 豆·太·木麥次第結穀, 而黍·粟·唐稷穗穎尖小, 食實無多, 晚稻旱澇之餘, 且被風雹, 穗而不實, 率多白乾, 晚移之秧, 多未發穗, 更無餘望, 豆太耕播既晚, 莖葉短疎, 顆粒稀罕, 木綿顆房零瑣, 吐絮絕罕, 未免慘歉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觀於邑報, 參以聞見, 田種畝稼, 毋論沿峽, 見今霜候在即, 災形愈著, 黍·粟·唐稷之刈取者, 比諸常年, 其所食實, 殆至減半是白遣, 晚稻穗穎零星, 空穀居多, 晚移秧苗及豆太·木綿, 備經災損, 已判慘歉, 言念民情, 萬萬憂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늦벼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었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채령·황강·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절반 이상 수확하였고,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늦벼는 간혹 알이 들었고, 목화는 지금 따서 거두기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었고, 기장·조·수수는 이삭이 뽕족하며 작아 먹을 열매가 많지 않고, 늦벼는 가뭄과 장마 끝에 또 바람과 우박을 맞아 이삭이 여물지 못한 채 하얗게 마른 것이 많고, 늦게 옮겨심은 모는 이삭이 패지 못한 것이 많아 다시는 남은 가뭇이 없고, 콩·팥은 씨앗을 뿌리기가 이미 늦어 줄기와 잎이 짧고 드물며 알갱이가 조금 드물고 목화의 다래방은 보잘것없고 솜이 터진 것이 매우 드물어 참혹한 흉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고을의 보고를 살피고, 보고 들을 것을 참조하면, 밭에 씨앗 뿌린 것과 논이 벼는 물가나

산골짜기나 따질 것 없이 현재 서리 철이 닥치고 재해 형태는 더욱 뚜렷하고, 기장·조·수  
수 중 베어 거둔 것은 예년에 비해 열매를 먹을 것은 거의 반으로 줄었고, 늦벼의 이삭  
알갱이는 보잘것없이 빈 꼬투리가 많고, 늦게 모내기한 모 및 콩·팥·목화는 재해 손상을  
갓가지로 겪어 이미 참혹한 흉년으로 판가름 났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매우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  
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4. 1833년(순조 33) 8월 27일(양력 10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221b~221c) / 黃海監營狀啓臚錄 3책(63a~63a)

卽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信川·載寧·松禾·鳳山等六邑, 今八月二十四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신천·재령·송화·봉산 등 6개 고을은 이번 8월 24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65. 1834년(순조 34) 3월 12일(양력 4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8d~309a)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13a~113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始或向青, 春麴幾皆出土, 早黍·粟今方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方始抽芽, 春麴幾盡耕種, 早黍·粟間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知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6. 1834년(순조 34) 3월 30일(양력 5월 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22a~322b)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36b~137a)

今三月二十三日之雨, 海州等十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松禾·豐川·金川·平山·遂安·谷山等六邑, 得一犁, 黃州·鳳山·新溪等三邑, 得二鋤, 殷栗·瑞興·兎山等三邑, 得一鋤是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鋤犁雖殊, 沿峽同霑, 田種各穀, 頗有滋潤之效是白如乎, 嗣後農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3월 23일의 비로 해주 등 10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송화·풍천·금천·평산·수안·곡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주·봉산·신계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은율·서흥·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은 1서·1려로 비록 다르나 물가나 골짜기나 같이 적셔주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이 자못 촉촉해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7. 1834년(순조 34) 4월 2일(양력 5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23a~323b)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38a~138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粃·小麥, 日就茁長, 春粃漸次向青, 早黍·粟間間立苗, 晚黍·粟·唐稷, 已盡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粃·小麥, 次第向長, 春粃已盡立苗, 早黍·粟間或吐芽, 晚黍·粟·唐稷, 過半耕播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雨暘均適, 粃·麥則日漸向茂, 黍·粟則耕種無愆, 民事多幸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점차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자라나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비와 햇빛이 고루 적절하여 보리·밀은 날로 점점 무성해지고, 기장·조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8. 1834년(순조 34) 4월 8일(양력 5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26b~326c)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44a~144a)

臣營下今四月初六日戌時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 而陰雲不捲, 雨意尙濃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초6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럭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은 걷히지 않아 비 내릴 조짐이 여전히 짙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69. 1834년(순조 34) 4월 11일(양력 5월 1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26d~327a)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45a~145a)

今四月初六日之雨, 臣營下得雨四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松禾·長湍·瑞興等五邑, 川渠漲流. 信川·文化·延安·白川·金川等五邑, 得三犁. 襄津·載寧·平山等三邑, 得二犁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在乎. 外此遠邑形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초6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송화·장연·서흥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신천·문화·연안·배천·금천 등 5개 고을은 3려가 내렸고, 웅진·재령·평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 밖의 먼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70. 1834년(순조 34) 4월 13일(양력 5월 2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31c~331d)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53a~153b)

今四月初六日之雨, 海州等十三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殷栗·長連·豐川·黃州·遂安·谷山等六邑, 川渠漲流. 安岳·鳳山得三犁. 新溪·兔山得二犁. 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 間或胚胎. 春牟今方苗長,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唐稷, 間間出土, 早稻·木綿, 方張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小麥, 舉皆苗茂, 春粳漸次向長, 早黍·粟次第立苗, 晚黍·粟·唐稷, 已盡耕播, 早稻·木綿及山田火粟, 今始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沿峽均洽, 田種各穀, 舉皆沾潤, 畓庫付種, 亦且及期, 民事多幸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초6일의 비로 해주 등 13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은율·장련·풍천·황주·수안·곡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안악·봉산은 3려가 내렸고, 신계·토산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알을 났고, 봄보리는 지금 막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한창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점차 자라나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 및 산밭의 화속은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은 물가나 산골짜기에 고루 흡족하여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 대부분 촉촉하게 적셔주었고, 논에 범씨 뿌리기도 또한 시기에 미쳤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1. 1834년(순조 34) 4월 20일(양력 5월 28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35d~335d)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61a~161a)

臣營下今四月二十日子時量始雨，或霏或灑，當日未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白如乎，  
列邑得雨多寡，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0일 자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2. 1834년(순조 34) 4월 23일(양력 5월 3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36a~336a)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61b~161b)

臣營下今四月二十日, 雨澤二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殷栗, 川渠漲流, 海州·文化·延安等三邑, 得二犁, 白川·康翎·信川等三邑, 得一犁, 載寧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在乎, 外此列邑形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4월 20일의 우택이 2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은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문화·연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배천·강령·신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재령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3. 1834년(순조 34) 4월 23일(양력 5월 3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36a~336b)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61b~162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過半發穗. 春麴幾盡胚胎. 早黍·粟方張初耘, 晚黍·粟·唐稷, 已皆立種. 早稻·木綿, 今始立苗, 晚稻間間落種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已盡胚胎, 間或發穗. 春麴今始胚胎, 早黍·粟方始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立苗. 早稻·木綿, 過半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日雨澤頻仍, 沿峽均沾, 言及民事, 誠爲多幸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거의 다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간간이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알을 뻗는데 간혹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차례로 싹이 돋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우택이 빈번하여 물가나 산골짜기를 고루 적시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말하자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4. 1834년(순조 34) 4월 25일(양력 6월 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37d~338a),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65a~165a)

今四月二十日之雨, 長湍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豐川·長連川渠漲流. 松禾·冤山·遂安等三邑, 得二犁. 平山·金川·瑞興·鳳山·黃州·安岳·新溪·谷山等八邑, 得一犁. 襄津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20일의 비로 장연 등 9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풍천·장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송화·토산·수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산·금천·서흥·봉산·황주·안악·신계·곡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75. 1834년(순조 34) 5월 3일(양력 6월 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42a~342b)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72b~173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今方入實, 春麴·小麥, 過半發穗. 早黍·粟幾盡初耘. 晚黍·粟·唐稷, 間間初除草. 早稻·木綿, 已皆立種. 晚稻耕播垂畢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幾皆發穗. 春麴·小麥, 次第發穗. 早黍·粟過半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入鋤. 早稻·木綿, 間或立苗. 晚稻方張播種是如爲等如. 牒呈爲白乎旆. 臣營下今五月初二日未時始雨, 或霏或灑, 至初三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봄보리·봄밀은 절반 이상 이삭이 됐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됐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이삭이 됐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간혹 싹이 돋고, 늦벼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2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76. 1834년(순조 34) 5월 5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42b~342b),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73a~173a)

臣營下今五月初二日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信川·延安得二犁，海州·康翎·襄津·載寧·鳳山等五邑，得一犁，白川得二鋤，長淵·松禾·安岳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外此各邑形止，待其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5월 초2일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천·연안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웅진·재령·봉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은 2서가 내렸고, 장연·송화·안악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77. 1834년(순조 34) 5월 7일(양력 6월 13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43a~343b)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74b~175a)

今五月初二日之雨, 信川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文化·殷栗·豐川·長連·金川·瑞興·兎山等七邑, 得一犁. 平山·黃州·新溪·遂安·谷山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初五日酉時又爲始雨, 間或霏灑, 至初六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2일의 비로 신천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은율·풍천·장려·금천·서흥·토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산·황주·신계·수안·곡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6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78. 1834년(순조 34) 5월 9일(양력 6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43c~343d)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75b~176a)

今五月初六日臣營下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甕津·文化得二犁. 康翎·信川·載寧·金川·豐川·長連等六邑, 得一犁. 延安·白川·松禾等三邑, 得二鋤, 海州·平山·殷栗等三邑, 得一鋤. 外此遠邑, 姑未報來是白乎旆. 臣營下今月初八日未時, 又爲始雨, 間間霏灑,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是白如乎, 近因雨澤頻仍, 東風連吹, 麩麥之方張向熟者, 不無受病, 木綿之未及立苗者, 舉皆被損, 目下農情, 實繫可悶, 嗣後形止, 更待邑報, 連續登聞許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6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문화는 2려가 내렸고, 강령·신천·재령·금천·풍천·장련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연안·배천·송화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해주·평산·은율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이 밖의 먼 고을은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8일 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요즘 우택이 빈번하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 한창 익어가는 보리·밀은 병든 것이 없지 않고, 싹이 돋지 않은 묵화는 대부분 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농사 정황이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79. 1834년(순조 34) 5월 13일(양력 6월 1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46c~347a)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81a~181b)

今五月初六日, 襄津等十四邑雨澤形止及今月初八日, 臣營下得雨二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六日之雨, 黃州·谷山得二犁. 長淵·安岳·冤山等三邑, 得一犁. 鳳山·遂安得二鋤. 新溪·瑞興得一鋤. 初八日之雨, 遂安得三犁. 海州·松禾·冤山·谷山等四邑, 得二犁. 長淵·瑞興·新溪·金川等四邑, 得一犁. 黃州得二鋤. 信川·載寧·鳳山等三邑, 得一鋤. 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次第向熟. 春麴·小麥, 今方入實. 早黍·粟間間再耘. 晚黍·粟·唐稷, 幾皆初耘. 早稻·木綿, 方張初除草. 晚稻漸次立苗. 而雨水頻仍, 東風連吹, 麴·麥則成熟差遲, 徑枯無實. 黍·粟則田疇泥濘, 鋤役愆期. 木綿之早種者, 率多消灑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幾盡入實. 春麴·小麥, 已盡發穗. 早黍·粟間或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初耘. 早稻·木綿, 始或入鋤. 晚稻今纔立種. 而近因連雨, 麴·麥多有貼泥而委損. 黍·粟未能及時而鋤耘. 至於木綿, 尤以早種, 偏被傷損, 間或代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雨澤頻仍, 淒風連吹, 田種各穀, 已多受損, 目下農形, 殊爲可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6일 용진 등 14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이번 달 초8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6일의 비로 황주·곡산은 2려가 내렸고, 장연·안악·토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봉산·수안은 2서가 내렸고, 신계·서흥은 1서가 내렸고, 초8일의 비로 수안은 3려가 내렸고, 해주·송화·토산·곡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장연·서흥·신계·금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주는 2서가 내렸고, 신천·재령·봉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용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막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점차 싹이 돋는데, 빗물이 빈번하고 동풍이 연이어 불어 보리·밀은 익는 것이 조금 늦어져 지레 말라버려 열매가 없고, 기장·조는 발이랑이 진흙탕이 되어 김매기 시기를 놓쳤고 일찍 씨앗을 뿌린 목화는 녹아버린 곳이 많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지금 막 싹이 돋고 있습니다. 요즘 이어진 비로 보리·밀은 진흙이 묻어 시들어 손상된 것이 많고, 기장·조는 제때 김매기를 하지 못했고, 목화의 경우 더욱 건조하게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인데 심하게 손상 입은 것은 간혹 대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우택이 빈번하고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이미 입은 손상이 많아 현재 농사 상황이 자못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0. 1834년(순조 34) 5월 23일(양력 6월 2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0c~350d)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88b~189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牟已盡成熟, 間或刈取, 春牟小麥, 次第向熟, 早黍·粟過半再耘. 晚黍·粟·唐稷, 今始再耘. 早稻·木綿, 幾皆初耘. 晚稻始或入鋤, 秧苗方張移插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牟今方成熟. 春牟小麥, 幾盡入實. 早黍·粟間間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初耘垂畢. 早稻·木綿, 過半初耘. 晚稻已盡立苗, 秧苗間或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雨水頻仍之餘, 近因日候調順, 所損各穀, 漸次有蘇醒之望, 而移秧及時, 民事多幸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모는 한창 옮겨 심고 있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익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숙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이미 싹이 돋았고 모는 간혹 옮겨 심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빗물이 빈번한 끝에 요즘 날씨가 순조로워 손상된 각종 곡식이 점차 되살아날 가망이 있고 때맞춰 모내기하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1. 1834년(순조 34) 5월 27일(양력 7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1c~351c)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90b~190b)

臣營下今五月二十七日丑時量始雨，一直霏下，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如乎，  
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7일 축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2. 1834년(순조 34) 5월 29일(양력 7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1c~351c),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90b~191a)

今五月二十七日之雨, 臣營下得雨二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得二犁. 康翎·襄津·延安·白川·載寧·鳳山等六邑, 得一犁. 平山·瑞興得一鋤, 信川治爲溫塵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在乎, 外此遠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27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수안·배천·재령·봉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산·서흥은 1서가 내렸고, 신천은 흠족하게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 밖의 먼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83. 1834년(순조 34) 6월 1일(양력 7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2d~353a),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93a~193b)

去五月二十七日之雨，海州等十邑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長淵川渠漲流，黃州·文化·遂安等三邑，得二犁。松禾·豐川·安岳·長連·兔山等五邑，得一犁。殷栗·金川·新溪·谷山等四邑，得二鋤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今番雨澤，既洽旋霽，民事多幸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7일의 비로 해주 등 10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황주·문화·수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송화·풍천·안악·장려·토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금천·신계·곡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은 이미 넉넉히 내리고 곧바로 개였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084. 1834년(순조 34) 6월 3(양력 7월 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53b~353d)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94a~194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已盡刈取. 春麴·小麥, 間間收穫. 早黍·粟方張三耘, 晚黍·粟·唐稷, 再耘垂畢. 早稻·木綿, 過半再耘. 晚稻幾盡初耘, 秧苗之早移者, 間或入鋤, 晚移者幾皆着根. 根耕豆·太·木麥, 次第播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 次第刈穫. 春麴·小麥, 幾盡成熟. 早黍·粟始或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再耘. 早稻·木綿, 間或再耘. 晚稻今方入鋤, 秧苗已盡移插. 根耕豆·太·木麥, 方始耕播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日雨暘, 連得調宜, 麴·麥及時收穫, 各穀善爲茁長, 民事多幸是白如乎, 嗣後形止,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은 간간이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일찍 옮겨 심은 모는 간혹 김매기를 하고, 늦게 옮겨 심은 것은 거의 다 뿌리를 내렸고, 그루같이하는 콩·팥·메밀은 차례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베어 수확하였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익었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숙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지금 막 김매기를 하고, 모는 이미 다 옮겨 심었고, 그루같이하는 콩·팥·메밀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비나 햇볕이 연이어 적절하여 보리·밀은 때맞춰 수확하고 각종 곡식은 싹이 잘 자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5. 1834년(순조 34) 6월 9일(양력 7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4d~354d)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196b~197a)

臣營下今六月初八日申時量始雨，或霏或灑，初九日午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而霪雨霏微，尙無霽意是白如乎，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8일 신시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고, 굻은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아직 개일 조짐이 없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86. 1834년(순조 34) 6월 12일(양력 7월 18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55a~355b)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197a~197b)

臣營下今六月初九日午時至, 得雨一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乍陰乍陽是白如可, 十一日卯時量, 又爲始雨, 或霏或灑, 十二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六分, 而濕雲四低, 雨意尙濃是白乎跡, 連接各邑所報, 則初九日之雨, 長連川渠漲溢. 黃州得二犁. 海州·松禾·豐川·載寧·信川·文化·安岳·殷栗等八邑, 得一犁. 金川·平山·鳳山等三邑, 得二鋤. 長湍·延安·白川等三邑, 得一鋤. 康翎·襄津溫塵是如爲白有在乎, 外此列邑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9일 오시까지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잠깐씩 흐리거나 별이 나다가 11일 묘시쯤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고, 습기찬 구름이 사방에 깔려 비올 조짐이 아직 짙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9일의 비로 장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황주는 2려가 내렸고, 해주·송화·풍천·재령·신천·문화·안악·은율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평산·봉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장연·연안·배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령·웅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87. 1834년(순조 34) 6월 13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7a~357c)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200b~201a)

今六月初九日之雨, 長連等十八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遠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谷山得一犁. 兎山得二鋤. 瑞興·新溪得一鋤是如爲白乎旂.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粳·小麥, 幾皆收穫. 早黍·粟間或胚胎. 晚黍·粟·唐稷, 方張三耘. 早稻幾盡再耘, 晚稻今始再耘. 秧苗次第初耘. 而安岳之堰畝, 間有蟹損. 木綿再耘垂畢, 而立種稀疏, 莖葉昂藏, 豆·太·木麥, 已盡立苗, 間間入鋤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 方張刈取. 早黍·粟三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伊始. 早稻過半再耘, 晚稻初耘幾畢, 秧苗已皆着根, 始或入鋤. 而黃州之堰畝, 亦有蟹損蟲蝕之患. 木綿次第再耘, 而莖葉亦多瘦縮. 豆·太·木麥, 幾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見今年事, 毋論峽野, 田種畝稼, 俱有善就之望是白乎乃, 安岳·黃州堰畝之蟹損蟲蝕, 實係可悶是白遣, 至於木綿段, 立苗之際, 備經風雨, 受損不些, 種稀莖矮, 無望成就是白如乎, 連值花歉之餘, 諸邑之告悶, 又此相續, 誠爲憂慮.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초9일의 비로 장연 등 18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곡산은 1려가 내렸고, 토산은 2서가 내렸고, 서흥·신계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을 뱉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모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악의 저수지에서 물을 대는 논은 그사이에 계로 인한 손상이 있었고, 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는데, 싹이 돋은 것이 드물고 줄기와 잎은 앙상하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싹이 돋았는데 간간이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밀은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올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이미 다 뿌리를 내렸는데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합니다. 그런데 황주의 저수지에서 물을 대는 논도 또한 게 손상과 벌레가 갉아먹는 근심이 있고, 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줄기와 잎도 또한 말라 오그라든 것이 많았고, 콩·팥·메밀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농사 사정은 산골짜기나 들판 따질 것 없이 밭에 씨앗 뿌린 것과 논에 벼는 모두 잘 여물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안악·황주의 저수지에서 물을 대는 논에 게 손상이나 벌레가 갉아먹는 것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목화의 경우 싹이 돋을 즈음에 바람과 비를 갖가지로 겪어 입은 손상이 적지 않아 씨가 드물고 줄기가 작아 여물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연이어 암울한 흉년을 만났으니 여러 고을에서 걱정을 아뢰고 또 이렇게 서로 계속되니 정말로 우려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88. 1834년(순조 34) 6월 14일(양력 7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7c~357c)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201a~201b)

臣營下今六月十二日巳時至, 得雨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一向霏微, 至十三日丑時, 又爲霏灑, 當日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之雨, 海州·白川得二鋤. 康翎·襄津得一鋤是如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2일 사시까지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줄곧 부슬부슬 내리다가 13일 축시에 이르러 또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해주·배천은 2서가 내렸고, 강령·용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보고하겠습니다.



0089. 1834년(순조 34) 6월 16일(양력 7월 2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358d~359a) / 黃海監營狀啓謄錄 4책(204a~204a)

今六月十二日海州等四邑雨澤形止及臣營下今十三日得雨一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之雨, 延安得一犁. 平山得二鋤. 豐川·新溪·兎山等三邑, 得一鋤. 瑞興洽爲浥塵. 十三日之雨, 海州·載寧·信川文化等四邑, 得二犁. 延安·白川·金川·平山·鳳山等五邑, 得一犁. 康翎·兎山得二鋤. 黃州·殷栗得一鋤是如爲白有在乎, 外此列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2일 해주 등 4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13일에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연안은 1려가 내렸고, 평산은 2서가 내렸고, 풍천·신계·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흥은 넉넉히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3일의 비로 해주·재령·신천·문화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연안·배천·금천·평산·봉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토산은 2서가 내렸고, 황주·은율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0. 1834년(순조 34) 6월 19일(양력 7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9a~359a),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204a~204b)

今六月十三日海州等十三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谷山川渠微漲，長湍·松禾得二犁。安岳·長連·遂安等三邑，得一犁。瑞興得二鋤。新溪·甕津·豐川等三邑，得一鋤是如牒呈是白置有亦。近日連雨，雖似成霖，間間暘曝，不至震澤，民事可幸是白如乎，嗣後農形，更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3일 해주 등 13개 고을의 우택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곡산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장연·송화는 2려가 내렸고, 안악·장린·수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흥은 2서가 내렸고, 신계·용진·풍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요즘 연이어 비가 내려 비록 장마가 될 듯하지만, 간간이 햇볕이 내리쬘고 장마에는 이르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보고합니다.

0091. 1834년(순조 34) 6월 24일(양력 7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59d~360a)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25b~206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盡胚胎, 晚黍·粟·唐稷, 三耘垂畢, 早稻今始三耘, 晚稻過半再耘, 秧苗幾皆初耘, 木綿間間三耘, 而立種既稀, 枝葉拳縮, 豆·太·木麥, 始或入鋤是如爲白乎旅,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 已皆收穫, 早黍·粟過半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間三耘, 早稻再耘已畢, 晚稻今始再耘, 秧苗次第初耘, 木綿再耘幾畢, 而已多災損, 無望成就, 豆·太·木麥, 已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日雨澤, 雖涉稍過, 田畝各穀, 次第茁茂, 民事可幸是白乎乃, 受損之木綿, 終無蘇醒之望, 殊甚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을 뻗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모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싹이 돋은 것이 이미 드물고 가지와 잎은 오그라들었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알을 뻗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모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지만 이미 재해 손상이 많아 여물 가망이 없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우택이 비록 조금 지나쳤지만, 논밭의 각종 곡식은 차례로 싹이 자라 무성하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손상된 목화는 끝내 되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특히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2. 1834년(순조 34) 6월 28(양력 8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360d~361a) / 黃海監營狀啓臚錄 4책(207a~207b)

道內農形雨澤,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谷山段今六月二十一日辰時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三日卯時乃止, 川渠漲滿. 載寧·信川段, 二十一日午時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巳時乃止, 所得爲一犁. 鳳山·新溪段, 二十一日亥時始雨, 間或霏灑, 至二十二日卯時乃止, 所得爲二鋤. 瑞興·遂安·黃州·兎山·平山·長連·豐川等七邑段, 二十一日戌時始雨, 間間霏微, 至二十二日卯時乃止, 所得俱爲一鋤是如. 牒呈是白遣, 餘外各邑, 俱無所報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곡산의 경우 이번 6월 21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재령·신천의 경우, 21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사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1려이고, 봉산·신계의 경우, 21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2서이고, 서흥·수안·황주·토산·평산·장린·풍천 등 7 고을의 경우, 21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22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모두 1서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은 모두 보고가 없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093. 1838년(헌종 4) 3월 22일(양력 4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77d~377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29b~30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始或向青, 春麴間間出土, 早黍·粟方張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今始抽芽, 春麴次第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知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4. 1838년(헌종 4) 3월 26일(양력 4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78b~378c)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1a~31a)

臣營下, 今三月二十五日未時, 始雨, 間間霏灑, 至當日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25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당일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0095. 1838년(헌종 4) 3월 28일(양력 4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79d~380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4a~34a)

臣營下, 今三月二十五日, 得雨一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白川等四邑, 得一犁, 延安得二鋤, 長淵·松禾·豐川等三邑, 得一鋤, 信川·安岳·殷栗·載寧等四邑, 沍塵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如乎. 餘外遠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25일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배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연안은 2서가 내렸고, 장연·송화·풍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신천·안악·은율·재령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먼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096. 1838년(헌종 4) 4월 2일(양력 4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81c~381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7a~37b)

去三月二十五日之雨, 海州等十二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文化·長連·黃州·金川·平山·新溪·兎山等七邑, 得一鋤, 鳳山·瑞興·遂安·谷山等四邑, 僅爲浥塵是如. 牒呈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今方茁長, 春麴間或向青, 早黍·粟幾盡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次第向青, 春麴方張出土, 早黍·粟間間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3월 25일의 비로 해주 등 12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장려·황주·금천·평산·신계·토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봉산·서흥·수안·곡산 등 4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간혹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7. 1838년(헌종 4) 4월 12일(양력 5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83d~384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b~4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幾盡茁長, 春粳次第向長, 早黍·粟過半立苗, 晚黍·粟·唐稷今方播種是如爲白乎脉,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秋粳·小麥方張茁長, 春粳幾皆向青,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唐稷今始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차례로 자라나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자라고 있고, 봄보리는 거의 다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8. 1838년(헌종 4) 4월 20일(양력 5월 1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91d~392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57a~57b)

臣營下, 今四月十八日寅時至, 得雨二寸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延安·鳳山等五邑, 得二犁, 信川·文化·載寧·白川·長湍·瑞興等六邑, 得一犁, 金川得二鋤, 豐川得一鋤是如. 牒呈爲白有在乎. 餘外遠邑得雨形止, 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8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연안·봉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천·문화·재령·배천·장연·서흥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은 2서가 내렸고, 풍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먼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099. 1838년(헌종 4) 4월 23일(양력 5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92b~392c)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58a~58b)

今四月十八日之雨, 海州等十三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黃州得二犁, 平山·松禾·長連·殷栗·遂安等五邑, 得一犁, 谷山·新溪·兎山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跡.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始或胚胎, 春粳舉皆茁茂, 早黍·粟間間入鋤, 晚黍·粟·唐稷今方立苗, 早稻·木綿次第落種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秋粳小麥幾盡茁長, 春粳方張茁茂, 早黍·粟過半立苗, 晚黍·粟·唐稷漸次出土, 山田火粟及早稻·木綿, 今始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各邑雨澤, 鋤犁雖殊, 沿峽均霑, 民事多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18일의 비로 해주 등 13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황주는 2려가 내렸고, 평산·송화·장련·은율·수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곡산·신계·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싹이 돋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차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산밭의 화속 및 올벼·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은 1서·2려로 비록 다르지만 물가나 산골짜기를 고루 적시어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100. 1838년(헌종 4) 윤4월 3일(양력 5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95d~396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65a~6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方張發穗, 春麴·小麥幾盡胚胎, 早黍·粟今方初除草, 晚黍·粟·唐稷已盡立苗, 早稻·木綿間間立苗, 晚稻播種垂畢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間間發穗, 春麴·小麥幾盡茁長, 早黍·粟初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方立苗, 早稻·木綿間或出土, 晚稻次第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日候調和, 田畝各種, 姑爲善就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돋고, 늦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이삭이 뻗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싹이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숙은 지금 막 싹이 돋고, 올벼·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늦벼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화로워 논밭의 곡식이 일단 잘 여물고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01. 1838년(헌종 4) 윤4월3일(양력 6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97d~398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69a~69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漸次向熟, 春麴·小麥次第入實,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初耘垂畢, 早稻·木綿幾盡初耘, 晚稻舉皆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舉皆入實, 春麴·小麥已盡發穗, 早黍·粟始或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入鋤, 早稻·木綿間間除草, 晚稻方始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雨澤稍闕, 入實之麴·麥, 間間有受損處, 至若畝庫, 則有水根處外, 亦多乾涸, 鋤役差遲, 際此一霏, 方切顚望是白乎旆.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점차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절반 이상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우택이 조금 내리지 않아 알이 들던 보리·밀은 간간이 손상을 입은 것이 있고, 논외의 경우 물이 있는 곳 이외에 또한 메마른 것이 많아 김매기 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즈음에 한바탕 쏟아지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02. 1838년(헌종 4) 윤4월24일(양력 6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98a~398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69b~70a)

臣營下, 今閏四月二十三日申時始雨, 間間霏微,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雨澤稍闕之餘, 得此鋤雨, 田種各穀, 雖幸有滋潤之效是白乎乃, 至於畚庫, 猶未浹洽, 繼此霈然, 方切顚望是白乎旂.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윤4월 23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우택이 조금 내린 끝에 이렇게 1서의 비가 내려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비록 다행히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논은 아직 흠족하지 않으니, 이후로 세차게 내리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빕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03. 1838년(헌종 4) 윤4월26일(양력 6월 1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98c~398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70b~71a)

臣營下, 今閏四月二十三日, 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長淵·松禾·信川·文化·安岳·載寧等七邑, 得一鋤, 康翎·甕津·豐川·延安等四邑, 僅爲浥塵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在乎. 餘外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윤4월 23일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장연·송화·신천·문화·안악·재령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령·웅진·풍천·연안 등 4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04. 1838년(헌종 4) 윤4월28일(양력 6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398d~398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71a~71a)

今閏四月二十三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殷栗·鳳山·瑞興·遂安等四邑, 得一鋤, 長連·谷山僅爲沍塵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知乎. 今番雨澤, 未得均霑, 田畝各穀, 俱有受損之慮,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윤4월 23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은율·봉산·서흥·수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연·곡산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은 골고루 적셔주지 않아 논밭의 각종 곡식이 모두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05. 1838년(헌종 4) 5월 4일(양력 6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2a~402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76b~77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已盡成熟, 今方收穫, 春麴·小麥日漸向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再耘垂畢, 早稻·木綿間間再耘, 晚稻方始初耘, 而亢旱稍久, 移秧愆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幾皆成熟, 間或刈取, 春麴·小麥次第向熟, 早黍·粟過半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再耘, 早稻·木綿初耘已畢, 晚稻始或入鋤, 而久旱民情, 望雨方切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夏至已過, 一霈尙靳, 無論沿峽, 田種各穀, 間多萎枯, 畚庫則有水根處外, 秧坂乾涸, 移插無期,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乎旆. 嗣後農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었는데 지금 막 수확하고,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점점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는데, 심한 가뭄이 조금 오래되어 모내기할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익었는데 간혹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는데,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의 심정은 비를 기다림이 바야흐로 간절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한바탕 쏟아지지 않으니 물가나 산골짜기 따질 것 없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그사이에 시들어 말랐고, 논도 물이 나는 곳 이외는 못자리가 메말라 옮겨심을 기약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06. 1838년(헌종 4) 5월 7일(양력 6월 2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2c~402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78a~78a)

道內農形悶旱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去閏四月二十三日之雨, 不過浥塵而止, 見今夏至已過, 終靳一霏, 無論沿峽, 田種各穀, 間多萎枯, 水付秧坂, 亦皆龜坼, 目下民情, 萬萬遑急乙仍于, 海州牧祈雨祭不卜日, 今五月初八日, 臣虔誠設行事, 當日發行于社稷壇所爲白乎旆. 各邑段置, 隨其緩急, 量宜設行之意, 發關分付爲白有知乎, 延安府使洪明燮, 平山府使鄭日復, 載寧郡守金勉淳, 俱爲受由上京, 姑未下來, 此時曠官, 一時爲悶, 竝令該曹催促下送爲白只爲.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윤4월 23일의 비는 먼지만 적실 정도에 지나진 않는데 그쳤습니다. 현재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도 끝내 한바탕 쏟아지지 않고, 물가나 산골짜기나 따질 것 없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그사이에 시들어 매마른 것이 많고, 물에 범씨를 뿌린 못자리도 또한 거북등처럼 갈라져 현재 백성들의 심정이 매우 매우 다급합니다. 해주목 기우제는 날을 가리지 않고 이번 5월 초8일에 제가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할 일로 당일 사직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각 고을도 완급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연안부사 홍명섭, 평산부사 정일복, 재령군수 김면순은 모두 휴가를 얻어 상경하여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자리가 비어있어 한때 걱정되니 모두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재촉해서 내려보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107. 1838년(헌종 4) 5월 8일; 6월 2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3a~403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79a~79a)

臣海州牧社稷壇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는 해주목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후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8. 1838년(헌종 4) 5월 9일(양력 6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3a~403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79a~79a)

今五月初八日，臣海州牧社稷壇祈雨祭設行後還營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以今月初十日，再次祈雨祭設行事，當日發行于海州牧龍塘浦祭所爲白乎旆，各邑祈雨祭段，襄津今月初八日，康翎·信川今月初九日，次第設行是如，牒呈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8일에 제가 해주목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후 감영에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10일에 재차 기우제를 시행할 일로 당일  
해주목 용당포 제사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각 고을 기우제의 경우, 웅진은 이번 달  
초8일, 강령·신천은 이번 달 초 9일에 차례로 시행한다고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09. 1838년(헌종 4) 5월 10일(양력 7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3b~403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79a~79b)

臣再次祈雨祭，設行於海州牧龍塘浦後，當日還營，而雨意尙此邈然，民情轉益遑急乙仍于，三次祈雨祭，連爲設行計料爲白乎旅。白川今五月初九日，松禾今月初十日，祈雨祭竝爲設行是如。牒呈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는 재차 기우제를 해주목 용당포에서 시행한 후 당일 감영에 돌아왔지만, 비올 조짐은 아직도 이렇게 아득하고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다급하니 3차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천은 이번 5월 초9일, 송화는 이번 달 초10일에 기우제를 모두 시행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110. 1838년(헌종 4) 5월 15일(양력 7월 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3d~404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0a~81a)

海州牧祈雨祭再次設行之由, 連爲馳啓爲白有在果. 臣伊後適患暑泄之症, 末由將事乙仍于, 今月十二日第三次龍首山及十四日第四次牛耳山祈雨祭, 不得已使本州判官金在敬, 虔誠設行是白加尼, 臣之病勢, 今纔少愈是白乎等以, 第五次十六日南山祈雨祭, 臣躬禱次當日離營爲白乎旂.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已盡收穫, 春粳·小麥舉皆成熟, 今始刈取, 早黍·粟方張三耘, 晚黍·粟·唐稷間間三耘, 早稻·木綿今方再耘, 晚稻初耘幾畢, 根耕豆·太·木麥方始播種, 而雨澤一向慳闕, 畚稼則毋論水付乾播, 連坪渴涸, 插秧無期, 田種則黍·粟·唐稷, 莖葉向萎, 不善茁長, 豆·太·木麥土脈堅硬, 尙多未播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秋粳幾皆刈穫, 春粳·小麥過半成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再耘垂畢, 早稻·木綿間或再耘, 晚稻次第初耘, 而連因嘆乾, 田畚各穀, 在在枯黃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道內農形, 無論沿峽, 一直亢旱, 淒風烈陽, 雨意邈然, 畚庫舉皆龜坼, 禾苗之未移者, 節候漸晚, 已無可論, 而先移者, 亦皆萎枯, 雖以堰洑引水處言之, 乾涸已久, 鋤役愆期, 田種段置, 黍·粟·唐稷無不受病, 民情之惶急, 日甚一日乙仍于, 祈雨祭連爲虔誠設行之意, 另飭各邑, 而安岳今月初九日, 長淵·文化·長連·新溪·兎山等五邑今初十日, 豐川·金川·谷山等三邑今十一日, 遂安今十二日, 延安今十三日, 祈雨祭次第設行是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해주목에서 기우제를 재차 시행한 연유는 연이어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그후 마침 설사 증세를 앓아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12일 제3차 용수산 및 14일 제4차 우이산 기우제는 부득이 본 관관 김재경에게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병세는 이제야 겨우 조금 나아져 16일의 제5차 남산 기우제는 제가 몸소 기도드리러 당일 감영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하였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익어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수수는 한창 세벌 김매기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팥·메밀은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는데, 우택이 줄곧 내리지 않아 논의 벼는 물을 댄 것이나 마른 논에 범씨를 뿌린 것이나 따질 것 없이 잇닿은 들판이 메말라 모를 심을 기약이 없고, 밭에 씨앗을 뿌린 기장·조·수수는 줄기와 잎이 시들어가고 싹이 잘 자라지 않고 콩·팥·메밀은 땅이 단단하여 아 직 씨앗을 뿌리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봄보리·봄밀은 절반 이상 익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는데, 연이은 심한 가뭄으로 논밭의 각종 곡식은 곳곳마다 누렇게 시들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물가나 산골짜기 따질 것 없이 줄곧 가뭄이 심하고, 서늘한 바람과 뜨거운 햇볕으로 비올 조짐이 아득합니다. 논은 대부분 거북 등처럼 갈라져 모를 옮겨심지 못한 것은 절기가 점점 늦어지니 이미 따질 것이 없습니다. 먼저 옮겨 심은 것도 또한 다 시들고 메말라 비록 독과 보에서 물을 끌어들이려 하나 메마른 지 이미 오래되어 김매기를 할 시기를 놓쳤고, 밭에 씨앗을 뿌린 것도 기장·조·수수는 병든 것이 없지 않으니, 백성들의 심정상 다급함은 날로 심합니다. 기우제를 연일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라는 뜻으로 각 고을에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안악은 이번 달 초9일, 장연·문화·장련·신계·토산 등 5개 고을은 이번 초10일, 수안은 이번 12일, 연안은 이번 13일에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1. 1838년(헌종 4) 5월 16일; 7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4b~404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 (81a~81b)

臣海州牧五次南山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而平山今月十二日，殷栗今十三日，祈雨祭竝爲設行是如，牒呈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는 해주목에서 5차 남산 기우제를 시행한 후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산은 이번 달 12일, 은율은 이번 13일에 기우제를 모두 시행하겠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112. 1838년(헌종 4) 5월 16일(양력 7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4b~404c)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1b~81b)

臣營下, 今五月十六日午時始雨, 間間霏灑,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 而陰雲四低, 雨意尙濃, 繼此一霏, 方切顚望是白乎旆, 黃州牧段, 今五月十五日, 祈雨祭設行是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6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에 깔리고 비올 조짐이 아직 짙습니다. 이후로 한바탕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황주목의 경우, 이번 5월 15일에 기우제를 시행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113. 1838년(헌종 4) 5월 19일(양력 7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4c~404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1b~82a)

臣營下, 今五月十六日, 得雨五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 密雲陰翳, 無日不釀雨, 而尙未得一霽之優渥是白遣. 續接近邑所報, 則十六日之雨, 黃州所得爲二犁, 而祈雨祭停止是如爲白乎旆, 海州·遂安·殷栗等三邑所得爲一鋤, 康翎·襄津·長淵·長連·松禾·安岳·豐川·白川·金川等九邑所得俱爲浥塵, 十七日之雨, 載寧大小川渠, 無不漲溢, 文化所得洽過一犁, 而祈雨祭停止是如爲白乎旆, 延安·瑞興·豐川等三邑所得爲一犁, 松禾所得爲二鋤, 殷栗所得爲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數三邑外, 俱未周洽, 若干鋤犁之雨, 無異沃焦乙仍于, 祈雨祭連爲設行之意, 更加申飭爲白乎旆. 海州牧祈雨祭段, 臣固當連行虔禱, 而所患暑泄之證, 間又復發, 有難將事, 今月十八日, 第六次池城山祈雨祭, 不得已使本州判官金在敬, 虔誠設行是白遣, 今則臣之病勢少差是白乎等以. 第七次社稷壇再行祈雨祭, 臣躬禱次當日離營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의 이번 5월 16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뽕뽕한 구름과 짙은 구름이 끼어 비를 빚어내지 않은 날이 없으나 아직 한바탕 넉넉하게 퍼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비로 황주는 2려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하고, 해주·수안·은율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령·웅진·장연·장련·송화·안악·풍천·배천·금천 등 9개 고을은 내린 것이 모두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17일의 비로 재령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고, 문화는 흡족하게 1려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하고, 연안·서흥·풍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송화는 2서가 내렸고, 은율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은 두세 고을 이외에 모두 흡족하지 못하여, 1서·1려와 같은 비는 타는 가마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라는 뜻으로 다시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해주목 기우제의 경우, 제가 진실로 연이어 경건하게 기도해야 마땅하나 앓고 있는 여름철 설사 증세가 그사이에 또 재발하여 제사를 지내기 어려워, 이번 달 18일 제6차 지성산 기우제는 부득이 본 판관 김재경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의 병세가 조금 차도가 있어 제7차 사직단 2차 시행 기우제는 제가 몸소 기도드리려 당일 감영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0114. 1838년(헌종 4) 5월 20일(양력 7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5a~405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3a~83a)

臣海州牧第七次社稷壇再行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而連接各邑所報，則今五月十七日之雨，黃州川渠漲流，鳳山得一犁，長湍得一鋤，十八日之雨，信川·長連川渠漲溢，安岳·殷栗得二犁，松禾得一犁，而祈雨祭俱爲停止是如爲白乎跡，文化得一犁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各邑段，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는 해주목 제7차 사직단 2차 시행 기우제를 시행한 후 당일 감영에 돌아왔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5월 17일의 비로 황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봉산은 1려가 내렸고, 장연은 1서가 내렸고, 18일의 비로 신천·장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안악·은율은 2려가 내렸고, 송화는 1려가 내렸는데, 기우제를 모두 중지하였다고 하고, 문화는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우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15. 1838년(헌종 4) 5월 22일(양력 7월 13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06c~406c)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85b~86a)

今五月十七八日之雨, 黃州等八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七日之雨, 遂安得一犁, 新溪得二鋤, 而祈雨祭俱爲停止是如爲白乎旆, 谷山得一鋤. 十八日之雨, 平山得二鋤, 金川得一鋤. 十九日驟雨, 安岳得一犁, 長連得一鋤. 二十日驟雨, 兎山得二鋤, 而祈雨祭停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終未均洽, 沿峽諸邑, 尙多設禱. 言念民事, 誠爲渴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7일의 비로 황주 등 8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7일의 비로 수안은 1려가 내렸고, 신계는 2서가 내렸는데 기우제를 모두 중지하였다고 하며, 곡산은 1서가 내렸고, 18일의 비로 평산은 2서가 내렸고, 금천은 1서가 내렸고, 19일의 소나기로 안악은 1려가 내렸고, 장련은 1서가 내렸고, 20일의 소나기로 토산은 2서가 내렸는데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이 끝내 고루 흡족하지 않아 물가나 산골짜기나 여러 고을에서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많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애타게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16. 1838년(헌종 4) 5월 24일(양력 7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6c~406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6a~86b)

今五月二十二日遂安·新溪兩邑祈雨祭停止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十九日之雨, 谷山得一犁, 而祈雨祭停止是如爲白乎旆, 長淵·白川·平山等三邑驟雨, 所得俱爲一鋤是如爲白乎旆. 今二十日, 臣海州牧第七次社稷壇再行祈雨祭設行後, 所患暑泄, 又復添劇, 第八次龍塘祈雨祭, 以本州判官金在敬代行是白遣. 數日調治, 今則少愈. 故今二十五日, 第九次龍首山祈雨祭, 臣躬禱次當日發行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戌五月二十四日封

이번 5월 22일에 수안·신계 2개 고을의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19일의 비로 곡산은 1려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하고, 장연·배천·평산 등 3개 고을은 소나기가 내렸는데, 내린 것은 모두 1서라고 합니다. 이번 20일에 저는 해주목에서 제7차 사직단 기우제를 2차로 시행한 후 더위를 먹고 설사한 고통이 또다시 증세가 더하여 제8차 용당 기우제는 본 고을 관관 김재경이 대신 시행하게 했습니다. 여러 날 잘 몸조리하여 지금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이번 25일 제9차 용수산 기우제는 제가 몸소 기도하려고 당일 출발할 것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5월 24일 바침.

## 0117. 1838년(헌종 4) 5월 25일(양력 7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6d~407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6b~87a)

今五月二十五日, 臣海州牧第九次龍首山祈雨祭設行後, 當日還營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麴·小麥已皆收穫, 早黍·粟三耘垂畢, 晚黍·粟·唐稷方張三耘, 早稻·木綿幾盡再耘, 晚稻再耘伊始, 豆·太·木麥間或立苗, 秧苗則得雨之邑, 方始移插. 而如海州·康翎·襄津·長淵·豐川·延安·白川等七邑, 尙今設禱, 一霈終靳, 秧苗無望移插, 田穀率多萎黃, 至於豆·太·木麥段, 尙未出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春麴·小麥過半刈取, 早黍·粟次第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始或三耘, 早稻·木綿今方再耘, 晚稻幾畢初耘, 根耕豆·太·木麥今始播種, 秧苗則得雨優洽之處, 次次移插. 而其中平山·金川兩邑段, 連舉圭璧, 冥應愈邈, 非但移秧之失時, 竝與田穀而受病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暘, 全道不均, 如峽野諸邑, 得雨雖有先後多少之別, 既霑之後, 秧事僅免失期, 來效尙有餘望是白乎乃. 至於沿海七邑及近峽兩邑段, 一直亢旱, 屢禱無應, 間間霏灑, 不足沃渴, 烈暘久曝, 秧坂龜坼, 節候漸已晚晚, 移插殆無餘望是白遣. 田種各穀之已經耘鋤者, 亦皆枯損, 不見沾潤之色, 先播之豆·太·木麥, 出土無幾. 言念民情, 萬萬渴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五月二十五日封.

이번 5월 25일에 저는 해주목 제9차 용수산 기우제를 시행한 후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의 경우,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수확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간혹 싹이 돋았고, 옮겨 심는 모의 경우, 비가 내린 고을은 막 옮겨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주·강령·웅진·장연·풍천·연안·배천 등 7개 고을의 경우, 끝내 한 차례도 쏟아지지 않아서 모는 옮겨 심을 가망이 없고 밭곡식은 대부분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콩·팥·메밀의 경우 아직 싹이 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의 경우, 봄보리·밀은 절반 이상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그루같이하는 콩·팥·메밀은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는 내린 비가 넉넉하게 흡족한 곳은 차례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 평산·금천 2개 고을의 경우, 연이어 기우제를 지냈으나 신령의 감응은 여전히 아득합니다. 모내기할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밭곡식도 병들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비가 오거나 햇볕이 쬔 것은 온 도가 고르지 않아서 산골짜기와 들의 여러 고을의 경우, 비가 내린 것이 비록 앞인지 뒤인지, 많은지 적은지의 구별은 있지만, 이미 적신 후여서 모내는 일은 겨우 시기를 놓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효과가 있을 가망이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 7개 고을 및 산골짜기 근처 2개 고을의 경우, 줄곧 심한 가뭄으로 여러 번 기도하였으나 감응이 없었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렸는데 메마름을 축이기에 는 부족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오래 내리쬘어 못자리는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절기는 이미 점점 늦어지는데 옮겨 심을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 중 이미 김매기를 한 것 또한 모두 말라버려 축축이 적셔주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씨앗을 뿌린 콩·팥·메밀 중 짝이 땅 밖으로 나온 것이 거의 없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애타고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5월 25일 바침.



0118. 1838년(헌종 4) 5월 27일(양력 7월 1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7b~407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7a~87b)

今五月二十八日第十次祈雨祭設行事, 臣當日發行于海州牧牛耳山祭所爲白乎旆, 緣由馳啓  
爲白臥乎事.

戊戌五月二十七日封.

이번 5월 28일에 제10차 기우제를 시행하는 일로 저는 당일 해주목 우이산 제사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5월 27일 바침.

0119. 1838년(헌종 4) 5월 28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07b~407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87b~87b)

臣第十次祈雨祭設行於海州牧牛耳山後，當日還營。而臣營下今五月二十七日酉時始雨，或霏或灑，二十八日丑時乃止。測雨器水深，僅爲五分。而陰雲尙濃，繼此一霽，方切顚望爲白乎旆，今二十五日驟雨，豐川得一鋤，祈雨祭停止是如爲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戌五月二十八日封。

저는 제10차 기우제를 해주목 우이산에서 시행한 후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5월 27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겨우 5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아직 짙으니, 이후로 한바탕 퍼붓기를 바야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25일 소나기로 풍천은 1서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5월 28일 바칩.

## 0120. 1838년(헌종 4) 6월 1일(양력 7월 2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10c~410d)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93b~94a)

臣營下去五月二十八日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 連爲陰翳是白如可, 今六月初一日子時始雨, 間間霏微, 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去月二十八日之雨, 黃州川渠漲流, 載寧·鳳山得一犁. 海州·康翎·襄津·信川·白川·豐川等六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各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初一日封.

저의 감영에 지난 5월 28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이어 먹구름이 끼었다가 이번 6월 초1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묘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달 28일의 비로 황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재령·봉산은 1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웅진·신천·배천·풍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1일 바침.

## 0121. 1838년(헌종 4) 6월 4일(양력 7월 2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0d~411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4a~94b)

去五月二十八日之雨, 黃州等九邑得雨形止, 及今六月初一日之雨, 臣營下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五月二十八日之雨, 長湍得二犁, 祈雨祭停止是如爲白乎旆. 文化得一犁. 安岳·平山得二鋤. 松禾·殷栗·瑞興·金川·新溪·兎山等六邑, 得一鋤. 長連·遂安·谷山·延安等四邑, 僅爲沍塵. 六月初一日之雨, 海州·康翎得一鋤. 襄津·瑞興·延安·白川·新溪·兎山等六邑, 僅爲沍塵是如爲白乎旆. 去五月二十八日, 臣海州牧第十次牛耳山祈雨祭設行後, 猝得身病, 未由將事. 故第十一次今六月初二日南山祈雨祭, 以本州判官金在敬代行使白乎旆. 臣營下今月初三日午時始雨, 或霏或灑, 初四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 渴望之餘, 得此甘露, 誠甚萬幸是白如乎, 各邑均霑與否,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而海州牧祈雨祭停止緣由, 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8일의 비로 황주 등 9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이번 6월 초1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5월 28일의 비로 장연은 2려가 내려 기우제를 중지했다고 합니다. 문화는 1려가 내렸고, 안악·평산은 2서가 내렸고, 송화·은율·서흥·금천·신계·토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련·수안·곡산·연안 등 4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6월 초1일의 비로 해주·강령은 1서가 내렸고, 웅진·서흥·연안·배천·신계·토산 등 6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8일에 저는 해주목에서 제10차 우이산 기우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뒤 갑자기 몸이 병을 얻어 제사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제11차 이번 6월 초2일의 남산 기우제는 본 해주 관관 김재경에게 대신 시행토록 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3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가 주룩주룩 내렸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각 고을에 골고루 적셨는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해주목의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122. 1838년(헌종 4) 6월 6일(양력 7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1a~411c)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4b~96a)

臣營下今六月初四日寅時至, 得雨二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連爲陰翳是白如可, 初五日巳時, 仍爲開霽是白乎旡.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文化·平山川渠漲流. 海州·康翎·延安等三邑, 得二犁. 襄津·信川·載寧·白川·金川等五邑, 得一犁, 而平山·延安祈雨祭停止是如爲白乎旡. 康翎·襄津·白川·金川等四邑段, 祈雨祭已滿十二次, 依例停止是如爲白乎旡. 豐[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胚胎, 晚黍·粟·唐稷三耘垂畢, 早稻·木綿三耘伊始, 晚稻過半再耘, 豆·太·木麥幾盡立苗, 秧苗初庚前得雨處, 幾皆移插. 而海州·康翎·襄津·延安·白川等五邑段, 見今節候, 已爲太晚, 雖或私[移]插, 無望食實, 至若豆·太·木麥, 前因旱乾, 未及出土者, 今始稍稍抽芽, 而立種稀少. 松禾·豐川·長連等三邑段, 乾播畚黍·粟田, 間多有蟲蝕是如爲白乎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春粳·小麥已盡登場, 早黍·粟舉皆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三耘, 早稻·木綿幾盡再耘, 晚稻方始再耘, 豆·太·木麥次第立苗, 秧苗有水根得雨處, 移插垂畢. 而平山·金川兩邑段, 今始得雨, 移插過時, 無望有秋, 兎山段, 黍·粟之田, 或有蟲損, 豆·太·木麥之今方生芽者, 亦甚稀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峽野諸邑田種各穀, 頗多蘇醒之意, 至若畚稼乾播畚及早移不枯者, 似有善就之望, 誠萬幸. 而沿海各邑段, 最晚得雨, 亦未均霑, 雖或有移秧處, 至於有秋, 已無可論是白乎旡. 豆·太·木麥之今始吐芽者, 若得日後雨暘均適, 則庶或可以食實, 而沿峽蟲災, 雖不大熾, 亦甚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初六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4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었다가 초5일 사시에 이내 개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평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강령·연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웅진·신천·재령·배천·금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산·연안은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강령·웅진·배천·

금천 등 4개 고을의 경우, 기우제는 이미 12차례를 채워 규정대로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의 경우,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습니다. 모는 초복 전에 비가 내린 곳은 거의 다 옮겨 심었습니다.

해주·강령·웅진·연안·배천 등 5개 고을의 경우 지금 절기가 이미 너무 늦어서 비록 옮겨 심는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콩·팥·메밀의 경우 앞서 가뭄 때문에 싹이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이제야 비로소 약간 싹이 돋았으나 싹이 선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송화·풍천·장린 등 3개 고을의 경우, 마른 논이 벼와 기장·밭·조밭은 그사이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의 경우, 봄보리·밀은 이미 다 타작했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숙은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싹이 돋고, 모는 물이 생기는 곳이거나 비가 내린 곳은 옮겨심기를 마쳤습니다. 평산·금천 두 고을의 경우, 지금에야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옮겨 심는 시기가 지나 가을걷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토산의 경우, 기장·조 밭은 더러 벌레 피해가 있었고, 지금 막 싹이 생긴 콩·팥·메밀도 또한 씨앗이 매우 드물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으로 골짜기나 들판의 여러 고을의 경우,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자못 살아날 조짐이 많습니다. 논농사의 경우, 마른논 및 일찍 모내기했으나 마르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잘 될 가망이 있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해안가 각 고을의 경우, 가장 늦게 비가 내렸고 또한 골고루 적시지 않아 비록 모내기한 곳이 있을지라도 가을걷이의 경우 이미 따질 것이 없습니다. 콩·팥·메밀 중 지금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만약 앞으로 비나 햇볕이 적당하면 아마도 알맹이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나 골짜기는 벌레 피해가 비록 크게 번지지 않는 않지만, 또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초6일 바침.

### 0123. 1838년(헌종 4) 6월 8일(양력 7월 2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1c~411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6a~96a)

道內農形及今六月初四日之雨, 文化等十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豐川·殷栗川渠漲流. 長淵·安岳·黃州·鳳山等四邑, 得二犁. 松禾·長連·瑞興·遂安·新溪·兔山等六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初七日寅時始雨, 或霏或灑, 初八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是白如乎. 列邑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初八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이번 6월 초4일의 비로 문화 등 10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풍천·은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장연·안악·황주·봉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송화·장련·서흥·수안·신계·토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  
에 이번 6월 초7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초8일 바침.

0124. 1838년(헌종 4) 6월 10일(양력 7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1d~412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6a~96b)

臣營下今六月初七日八日之雨, 得雨四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信川·文化·載寧·鳳山·瑞興等七邑, 川渠漲滿. 襄津·長湍·延安·白川等四邑, 得二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如乎. 餘外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初十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7일·8일의 비로 내린 비가 4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신천·문화·재령·봉산·서흥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웅진·장연·연안·배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초10일 바칩.



0125. 1838년(헌종 4) 6월 12일(양력 8월 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12a~412b)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96b~97a)

今六月初七日八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長連·殷栗·黃州·遂安·谷山·金川·平山等八邑, 川渠漲滿. 松禾·豐川·新溪·龜山等四邑, 得二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知乎. 今番雨澤, 列邑均洽, 誠甚萬幸.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十二日封.

이번 6월 초7일·8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장련·은율·황주·수안·곡산·금천·평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송화·풍천·신계·토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으로 여러 고을이 골고루 흡족했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12일 바침.

## 0126. 1838년(헌종 4) 6월 15일(양력 8월 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2b~412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7a~97b)

臣營下今六月十三日申時始雨, 或霏或灑, 十四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七分. 而其後陰雲不散, 尙多餘霏, 姑未快霽是白遣. 自十三日日出以後, 惡風大作, 氣勢壯猛, 連三日通晝夜, 不暫止息, 一直亂吹, 當此炎節, 天氣之淒冷, 已乖常候, 而風勢所及. 田穀之發穗者, 葉卷莖摧, 間多傷損, 畚秧之新移者, 弱根細苗, 不勝披靡. 不待各邑之來報, 目今營下所見, 誠爲萬萬悶然是白乎脉, 各邑風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3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그 후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여전히 부슬부슬 많이 내릴 듯하며 아직 말끔하게 개이지 않았습니다. 13일 해가 나온 이후로 모진 바람이 크게 일어났는데 기세가 왕성하고 맹렬했으며, 3일을 연이어 밤낮으로 잠시도 그치지 않고 줄곧 마구 불었습니다. 이처럼 몹시 더운 계절에 날씨가 서늘하고 차가운 것은 이미 보통의 날씨에 어그러졌습니다. 바람의 형세가 미쳤던 발곡식 중 이삭이 뻗던 것은 잎이 오그라들고 줄기는 꺾여서 간혹 손상 입은 것이 그사이에 많았습니다. 새롭게 옮겨 심은 논모는 뿌리가 약하거나 가는 모는 쓰러지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각 고을에서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감영에서 본 바로도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각 고을의 비와 바람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15일 바침.

## 0127. 1838년(헌종 4) 6월 17일(양력 8월 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2b~412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7b~98b)

臣營下今六月十三日以後，連三日風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及到十五日戌時，風勢始爲止息，雨澤則十六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又爲七分是白遣。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長淵·殷栗川渠漲流。載寧·瑞興得二犁。海州·延安·白川·平山·新溪·兔山·豐川等七邑，得一犁，襄津浥塵。而其中海州·襄津·豐川·殷栗·瑞興等五邑段，十五日以前數日癘風，爲災不少。田穀之發穗者，偏被摧磨，無望成實。秧苗之新移者，率多披靡，難期蘇醒是如爲白乎旆。農形段，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早黍·粟方張發穗，晚黍·粟·唐稷舉皆胚胎，早稻·木綿三耘垂畢，晚稻今始三耘，豆·太·木麥間間入鋤。而海州·康翎·襄津·延安·白川等五邑之初庚後如干移秧者，節候過時，不無全棄之慮。松禾·豐川·長連等三邑之田畝蟲損，漸次寢息是如爲白乎旆。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早黍·粟始或發穗，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次第胚胎，早稻·木綿今方三耘，晚稻過半再耘，豆·太·木麥幾盡立苗。而平山·金川兩邑，得雨最晚，秋序已近，間多有初不移秧處，兔山之黍·粟蟲損，旋即止息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近因雨澤優洽，方發之黍·粟，早移之秧苗，雖有善就之望是白乎乃，至於晚移者，已無可論是白遣。海州等五邑，三日惡風，許多傷損，不啻狼藉，尤爲悶然是白如乎。餘外各邑風雨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十七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3일 이후로 연이어 3일 비바람이 친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5일 술시에 이르러 바람의 형세는 비로소 그쳤고 우택의 경우 16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7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은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재령·서흥은 2려가 내렸고, 해주·연안·배천·평산·신계·토산·풍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그중 해주·웅진·풍천·은율·서흥 등 5개 고을의 경우 15일 이전 여러 날 세차게 바람이 불어 재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발곡식

중 이삭이 팬 것은 모두 다 쓰러져 열매가 맺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움긴 벼모는 대부분 바람에 쓰러져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의 경우,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알을 맺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김매기를 합니다. 해주·강령·웅진·연안·배천 등 5개 고을은 초복 후 어느 정도 모내기한 것은 절기가 때를 지나쳐 전부 포기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송화·풍천·장련 등 3개 고을의 논밭에는 벌레 피해가 점차 그쳤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의 경우,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이삭이 됐고, 늦기장·늦조·수수와 산밭의 화속은 차례로 알을 맺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습니다. 평산·금천 두 고을은 비 내린 것이 가장 늦었고 가을철이 이미 가까운 데, 그사이에 대부분은 애당초 모내기 한 곳이 있지 않았고 토산의 기장·조는 벌레 피해가 있었으나 곧바로 그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즈음은 우택이 넉넉하여 막 이삭이 팬 기장·조와 일찍 옮겨 심은 모는 비록 잘 될 가망이 있습니다만, 늦게 옮겨 심은 것의 경우, 이미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해주 등 5개 고을의 경우, 3일 동안 모진 바람이 불어 술하게 손상된 것이 파다할 뿐만이 아니니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바람과 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17일 바침.

## 0128. 1838년(헌종 4) 6월 20일(양력 8월 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3a~413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8b~99a)

今六月十三日以後，長淵等七邑雨澤及海州等五邑風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文化·信川·松禾·安岳·鳳山·長連·黃州·遂安·谷山等九邑，川渠漲滿，金川得二犁。而其中松禾·鳳山·長連·金川等四邑，穽風兼作，發穗之田種，新移之秧苗，率多披靡，無望蘇醒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今番雨澤，田種畚稼，雖幸有霑潤之效是白乎乃，松禾等四邑，穽風所過，各穀受損，爲災不少，誠爲悶然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戊戌六月二十日封。

이번 6월 13일 이후 장연 등 7개 고을의 우택 및 해주 등 5개 고을의 바람,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신천·송화·안악·봉산·장련·황주·수안·곡산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천은 2려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송화·봉산·장련·금천 등 4개 고을은 세찬 바람이 아울러 불어 이삭이 괜 밭곡식과 새로 옮긴 벼모는 대부분 쓰러져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우택으로 밭곡식과 논농사가 비록 다행히도 축축이 젖는 효과가 있었으나 송화 등 4개 고을은 세찬 바람이 지나가서 각종 곡식이 입은 피해가 재앙으로 된 것이 적지 않아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20일 바침.

0129. 1838년(헌종 4) 6월 22일(양력 8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3a~413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9a~99a)

臣營下今六月二十一日午時始雨，或霏或灑，至二十二日辰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白如乎。各邑得雨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二十二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1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진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22일 바침.

0130. 1838년(헌종 4) 6월 25일(양력 8월 1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3b~413c)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9b~99b)

臣營下今六月二十二日之雨, 得雨二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文化·黃州川渠漲滿. 海州·信川得二犁. 襄津·延安·載寧·松禾·安岳等五邑, 得一犁. 康翎·新溪·瑞興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二十四日午時, 驟雨霑下, 旋即開霽, 所得又爲一寸八分是白如乎. 各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二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2일의 비로,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황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신천은 2려가 내렸고, 웅진·연안·재령·송화·안악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신계·서흥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4일 오시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곧바로 개었는데, 내린 것은 또 1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25일 바침.

### 0131. 1838년(헌종 4) 6월 27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3c~413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99b~100b)

今六月二十二日之雨, 文化等十二邑得雨形止及臣營下今二十四日之驟雨所得一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二日之雨, 長湍得二犁. 白川·殷栗·鳳山·谷山等四邑, 得一犁. 兔山得二鋤. 平山·金川·遂安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二十四日之驟雨, 文化·長連川渠漲滿. 海州得二犁. 延安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入實, 晚黍·粟·唐稷已盡發穗, 早稻次第胚胎, 木綿間或吹花, 晚稻幾畢三耘, 豆·太·木麥方始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今始向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發穗, 早稻·木綿三耘垂畢,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間間初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望前寧風, 田畝各穀之披靡者, 風定之後, 間多枯損, 難望食實是白遣. 至於風勢不及處段, 向後日候, 若得調順, 則頗有成就之望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六月二十七日封.

이번 6월 22일의 비로 문화 등 12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24일 소나기가 내린 것이 1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2일의 비로 장연은 2려가 내렸고, 배천·은율·봉산·곡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토산은 2서가 내렸고, 금천·평산·수안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24일의 소나기로 문화·장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는 2려가 내렸고, 연안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의 경우,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는 차례로 알을 배고, 목화는 간혹 꽃이 피고, 늦벼는 거의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콩·팥·메밀은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절반 이상이 이삭이 났고, 올벼·



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보름 전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  
데, 논밭의 각종 곡식 중 쓰러진 것은 바람이 안정된 후 그사이에 마른 것이 많아서  
열매 먹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바람의 형세가 미치지 않은 것의 경우, 앞으로 날씨가  
만약 순조롭다면 자못 여물 가망이 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6월 27일 바침.

0132. 1838년(헌종 4) 7월 3일(양력 8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7a~417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07a~107a)

臣營下今七月初二日卯時始雨，或灑或霏，初三日午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六分是白如  
乎。列邑得雨形止，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初三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2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3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초3일 바침.

### 0133. 1838년(헌종 4) 7월 5일(양력 8월 24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17b~417b)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107a~107b)

臣營下今七月初三日之雨，得雨三寸六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安岳·長連·殷栗·文化·載寧·金川等七邑，大小川渠，無不漲流。康翎·長淵·信川·松禾·延安·白川·鳳山等七邑，得二犁。襄津得一犁。豐川·平山得一鋤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七月初四日未時，驟雨霑下，旋即開霽，而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各邑得雨形止，更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初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3일의 비로, 내린 비가 3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안악·장린·은율·문화·재령·금천 등 7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르지 않는 것이 없었고, 강령·장연·신천·송화·연안·배천·봉산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웅진은 1려가 내렸고, 풍천·평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4일 미시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곧바로 갓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초5일 바침.

#### 0134. 1838년(헌종 4) 7월 7일(양력 8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7b~417c)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07b~108a)

今七月初三日之雨, 海州等十七邑得雨形止, 及臣營下今初四日驟雨, 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三日之雨, 新溪川渠漲滿. 兎山得二犁. 黃州·遂安·瑞興·谷山等四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向熟, 晚黍·粟·唐稷已盡入實, 早稻次第發穗, 木綿間或結窠, 晚稻今始胚胎, 豆·太·木麥再耘垂畢. 而信川段, 禾穀蟲大熾, 漸食莖葉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今始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入實, 早稻次第胚胎, 木綿始或開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間再耘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淒風連吹, 冷雨頻仍, 田畝各穀, 俱未善就, 而信川禾穀蟲損不少, 尤切悶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初七日封.

이번 7월 초3일의 비로 해주 등 17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초4일의 소나기로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3일의 비로 신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토산은 2려가 내렸고, 황주·수안·서흥·곡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알이 들었고, 올벼는 차례로 이삭이 났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지금 알이 배기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신천의 경우, 벼곡식에 벼멸구가 크게 발생하여 줄기와 잎사귀를 점차 갉아 먹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올벼는 차례로 알을 배고, 목화는 비로소 더러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요즘은 서늘한 바람이 연이어 불고 찬비가

빈번하게 내려 논밭의 각종 곡식에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 신천의 벼곡식은 벌레 피해가 적지 않아 더욱 매우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초7일 바침.

0135. 1838년(헌종 4) 7월 11일(양력 8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7c~417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08a~108a)

臣營下今七月初十日丑時始雨, 間間霏灑, 東風亂吹, 十一日丑時, 風雨俱爲止息.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 而風勢所及, 田畝各穀, 不無摧磨傷損之慮是白如乎. 列邑風雨形止, 待報來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十一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10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렸으며 동풍이 마구 불었고, 11일 축시에 바람과 비가 모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바람의 형세가 미친 논밭의 각종 곡식은 꺾어져서 손상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의 바람과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11일 바침.

### 0136. 1838년(헌종 4) 7월 14일(양력 9월 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18a~418b)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08b~109a)

臣營下今七月初十日風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文化·延安·白川·金川等四邑，川渠漲流。海州·康翎·襄津·信川·鳳山等五邑，得二犁。而海州·康翎·襄津·延安·金川等五邑段，東風兼雨，晝夜亂吹，向熟之黍·粟，舉多剝落，發穗之禾稻，間或回項，至於豆·太·木麥，風勢所及，莖葉翻磨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海州等五邑，今番風雨，田種畝穀，受損不少，言念民事，誠爲悶然是白乎旆。餘外各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十四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10일 바람과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연안·배천·금천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강령·웅진·신천·봉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습니다. 해주·강령·웅진·연안·금천 등 5개 고을의 경우, 비와 아울러 동풍이 밤낮으로 마구 불어 익어가던 기장·조는 대부분 벗겨 떨어졌고, 이삭이 팬 벼는 목이 돌아갔습니다. 콩·팥·메밀의 경우, 바람의 형세가 미쳐 줄기와 잎사귀는 뒤집히고 쓸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해주 등 5개 고을의 경우, 이번 바람과 비로 밭에 뿌린 씨앗과 논곡식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밖에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14일 바침.

0137. 1838년(헌종 4) 7월 16일(양력 9월 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23c~423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19a~119b)

今七月初十日之雨, 文化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長連·殷栗·谷山·平山·新溪·冤山等七邑, 川渠漲流. 松禾·黃州得二犁. 長淵·豐川·載寧·瑞興·遂安等五邑, 得一犁. 而松禾·安岳·平山等三邑段, 東風晝夜亂吹, 翌日始止. 禾稻之發穗者, 間多回項, 黍·粟之向熟者, 偏被剝落, 至於豆·太·木麥, 開花之際, 受風翻磨, 莖葉摧傷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成就之時, 松禾等三邑, 風損又此不少,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乎旆.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十六日封.

이번 7월 초10일의 비와 문화 등 9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장련·은율·곡산·신계·토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송화·황주는 2려가 내렸고, 장연·풍천·재령·서흥·수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송화·안악·평산 등 3개 고을의 경우, 동풍이 밤낮으로 마구 불다가 다음날 비로소 그쳤습니다. 이삭이 팬 벼는 그사이에 목이 돌아간 것이 많았고, 익어가던 기장·조는 매우 벗겨지고 떨어졌습니다. 콩·팥·메밀은 꽃이 필 즈음에 바람을 맞아 뒤집혔고 줄기와 잎사귀가 부러졌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각종 곡식이 여무는 때에 송화 등 3개 고을은 바람 피해가 또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16일 바침.



### 0138. 1838년(헌종 4) 7월 17일(양력 9월 5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23d~424a)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119b~120a)

今七月初十日雨水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成熟, 晚黍·粟·唐稷次第向熟, 早稻舉皆發穗, 晚稻間或發穗, 木綿幾盡結顆, 豆·太·木麥間間起花, 而信川郡禾穀蟲損, 尙不寢息. 豐川·安岳·延安·白川等四邑, 晚移禾稻, 又有蟲蠱熾盛, 莖葉間多受損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過半成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始向熟, 早稻今方發穗, 晚稻方張胚胎, 木綿次第結顆, 豆·太·木麥幾盡茁茂, 而金川郡晚移之稻, 亦多有蟲食之患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日候之連爲調順, 田種畚稼, 頗有成就之望, 而信川等六邑, 禾稻蟲蝕, 受損非細, 言念民事, 誠爲可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十七日封.

이번 7월 초10일 빗물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농사 상황을 보고한 것을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벼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늦벼는 간혹 이삭이 났고, 목화는 거의 다 다래를 맺었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신천군의 경우 벼곡식의 벌레 피해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풍천·안악·연안·배천 등 4개 고을의 경우 늦게 모내기한 벼도 또한 벼멸구가 심해 줄기와 잎사귀에 입은 손상이 많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익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막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벼는 지금 막 이삭이 났고, 늦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었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무성해졌습니다. 금천군은 늦게 모내기한 벼도 벌레가 갇아 먹을 염려가 많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연달아 순조로워 밭에 씨앗을 뿌린 것과 논에 심은 것들이 자못 여물 가망이 있습니다. 신천 등 6개 고을의 경우 벼곡식을 벌레가

값아먹어 입은 손상이 적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17일 바침.

### 0139. 1838년(헌종 4) 7월 27일(양력 9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24b~424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20b~121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刈取, 晚黍·粟·唐稷幾盡成熟, 早稻今方入實, 晚稻過半發穗, 木綿始或綻綿, 豆·太·木麥今始結殼, 而信川郡段, 禾穀蟲災, 今雖寢息已多蹲縮是如爲白遣. 豐川·安岳·延安·白川等四邑, 蠹蟲終不止息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間間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次第成熟, 早稻幾皆發穗, 晚稻今方發穗, 木綿幾盡結顆, 豆·太·木麥方張起花, 金川郡蟲蝕尙未寢息, 而載寧郡峽畚晚移處, 蠹蟲今又熾盛, 痒稼非細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節候白露已過, 晚移禾稻之今始發穗者, 無望食實, 而當此禾穀向熟之時, 豐川等六邑, 蟲災爲害不少,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乎旆. 臣營下今七月二十六日丑時始雨, 或霏或灑, 同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 爲三寸九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二十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백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익었고, 올벼는 이제 막 알이 들고, 늦벼는 절반 이상 이삭이 났고, 묵화는 더러 숨이 터졌고, 콩·팥·메밀은 이제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천군의 경우, 벼곡식의 벌레 재해가 지금 비록 그쳤지만 이미 오그라든 것이 많다고 합니다. 풍천·안악·연안·백천 등 4개 고을은 벼멸구가 끝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차례로 익었고,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늦벼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묵화는 거의 다 다래를 맺었고, 콩·팥·메밀은 한창 꽃이 피었습니다. 금천군은 벌레가 갉아먹는 것이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 재령군의 골짜기 논 중 늦게 모내기한 곳은 벼멸구가

지금 또 불타오르듯 일어나서 농사 걱정이 적지 않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절기는 백로가 이미 지났고 늦게 모내기한 벼 중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한 것은 알을 먹을 가뭄이 없습니다. 벼 곡식이 익어갈 이때 풍천 등 6개 고을은 벌레 재해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26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같은 날 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27일 바침

0140. 1838년(헌종 4) 7월 29일(양력 9월 17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24d~424d)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121b~121b)

臣營下今七月二十六日得雨三寸九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康翎·信川·安岳·長連·載寧等六邑，川渠漲流。長淵·松禾·延安等三邑，得二犁。甕津得一犁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七月二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26일 내린 비가 3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신천·안악·장린·재령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장연·송화·연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웅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 했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7월 29일 바침

0141. 1838년(헌종 4) 8월 1일(양력 9월 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25c~425d)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23a~123a)

去七月二十六日之雨, 海州等十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豐川·文化·黃州·遂安·谷山·白川·金川·平山·新溪·兎山等十邑, 川渠漲流. 殷栗·鳳山得二犁. 瑞興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八月初一日封.

지난 7월 26일의 비로, 해주 등 10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풍천·문화·황주·수안·곡산·배천·금천·평산·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은율·봉산은 2려가 내렸고, 서흥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8월 초1일 바침.

## 0142. 1838년(헌종 4) 8월 7일(양력 9월 25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25d~426a)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123a~124a)

去七月二十六日之雨, 豐川等十三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農形, 則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登場, 晚黍·粟·唐稷方張刈取, 早稻今方成熟, 晚稻過半入實, 木綿始或摘取, 豆·太·木麥幾盡結穀. 而豐川·安岳·延安等三邑段, 蟲災終不止息, 白川郡段, 漸得寢息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今方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幾盡成熟, 早稻方張入實, 晚稻已盡發穗, 木綿間綻綿, 豆·太·木麥次第結穀, 而載寧·金川蟲蝕, 尙未寢息, 爲害不少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豐川等五邑蟲蝕, 尙今不止, 入實之禾穀, 受損非細,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八月初七日封.

지난 7월 26일의 비로, 풍천 등 13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에서 보고한 농사 상황을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용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타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벼는 지금 막 익어가고, 늦벼는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목화는 더러 따서 거두기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풍천·안악·연안 등 3개 고을의 경우 벌레 재해가 끝내 그치지 않았고 배천의 경우, 점차 그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거의 다 익었고, 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간간이 숨을 터뜨렸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재령·금천에서 벌레가 갉아먹는 것은 아직 그치지 않아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하며 문서 보고 했습니다. 풍천 등 5개 고을에서 벌레가 갉아먹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그치지 않아서 알이 든 벼 곡식이 입은 손상이 적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8월 초7일 바침.



### 0143. 1838년(헌종 4) 8월 17일(양력 10월 5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26d~427b)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125b~126b)

道內農形, 連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已盡刈取, 早稻過半成熟, 晚稻今始向熟, 木綿方張摘取, 豆·太·木麥漸次入實. 而豐川·安岳·延安等三邑, 蟲蝕今始寢息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舉皆收穫,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刈取, 早稻次第向熟, 晚稻幾盡入實, 木綿間間摘取, 豆·太·木麥始或入實, 而載寧·金川蟲災, 漸次止息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年晚移之禾稼, 備經災傷, 率多全棄. 而豐川等五邑段, 加之以蟲蝕, 如千餘存之穗粒, 無不受損, 尤無餘地是白遣. 臣營下今八月十六日巳時始雨, 或霖或灑, 至十七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 爲二寸二分是白如乎. 此時冷雨, 若是夥多, 未穫之各穀, 方摘之木綿, 不無傷損之慮是白乎旆. 臣以各邑災實巡審事, 當日離營, 先由東郡, 轉向西邑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八月十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절반 이상 익었고, 늦벼는 이제 익어가기 시작했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콩·팥·메밀은 점차 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천·안악·연안 등 3개 고을의 경우, 벌레가 갉아먹는 것이 지금에야 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모두 수확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지금 막 베어 거두고 있으며, 올벼는 차례로 익었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목화는 간간이 따서 거두었고, 콩·팥·메밀은 더러 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령·김천의 벌레 재해는 점차 그치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올해 늦게 모내기한 벼는 갓가지로 재해를 겪어서 대부분 전부 포기하였습니다. 풍천 등 5개 고을의 경우, 벌레가 갉아먹는 것이 더해져서 얼마간 남아 있던 낱알도 재해입지 않은 것은 더욱 여지없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6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이때 찬비가 이처럼 많이 내리니 거두지 못한 각종 곡식과 막 따야 할 목화의 경우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각 고을의 재해와 결실을 살펴볼 일로 오늘 감영을 떠나 먼저 동쪽 군에서 서쪽 고을로 향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8월 17일 바침.

0144. 1838년(헌종 4) 8월 19일(양력 10월 7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27b~427b)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126b~126b)

臣營下今八月十六日得雨二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之行部, 方到平山府, 而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安岳得二犁. 康翎·襄津·長淵·金川·平山·兔山等六邑, 得一犁. 瑞興·遂安·谷山等三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各邑,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八月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6일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막 평산부에 도착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안악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장연·금천·평산·토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흥·수안·곡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8월 19일 바침

0145. 1838년(헌종 4) 8월 22일(양력 10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27d~428a)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27b~127b)

今八月十六日海州等十一邑得雨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之行部, 方到新溪縣, 而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文化·松禾·豐川等三邑, 得一犁. 長連·殷栗得二鋤是如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八月二十二日封.

이번 8월 16일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행차는 막 신계현에 도착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송화·풍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련·은울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8월 22일 바침.

0146. 1838년(헌종 4) 8월 24일(양력 10월 1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428a~428a) / 黃海監營狀啓謄錄 5책(127b~128a)

臣之行部，方到鳳山郡，而連接各邑所報，則海州·康翎·襄津·延安·白川·金川·平山·瑞興·遂安·谷山·兔山·新溪等十二邑，今月十八日夜霜降，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長淵·松禾·豐川·黃州·鳳山·載寧等十一邑，同月十九日夜，霜降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列邑農形災實，詳細看審，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八月二十四日封。

저의 행차는 막 봉산군에 도착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연안·배천·금천·평산·서흥·수안·곡산·토산·신계 등 12개 고을은 이번 달 18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장연·송화·풍천·황주·봉산·재령 등 11개 고을은 같은 달 1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과 재해와 결실은 상세히 살피고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8월 24일 바침

## 0147. 1838년(헌종 4) 8월 27일(양력 10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428a~428c) / 黃海監營狀啓臚錄 5책(128a~129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已盡刈取, 木綿過半摘取, 晚稻及豆·太·木麥間間收穫. 而襄津·松禾·豐川等三邑, 今月二十日寅時, 寧風驟起, 雨雪交下, 移時乃止, 未穫之各穀, 受損偏甚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幾皆刈取, 早稻今方收穫, 木綿方張摘取, 晚稻及豆·太·木麥間或收穫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臣之行部, 先由東郡, 轉入西邑, 沿路農形, 詳細看審是白乎則. 禾穀之先移而災形不甚處段, 猶可食實, 至於晚移者, 率多未發穗, 雖或發穗, 間被風損, 又經蟲蝕, 在在白乾, 全無掛鎌處是白遣. 黍·粟·唐稷木麥, 當初被災, 不至大段, 畢竟所收, 足以免歉是白遣. 豆太始因久旱而偏萎, 晚又頻雨而添損, 結實無幾, 實難取種是白遣. 木綿備經旱澇, 結窠既稀, 綻綿且鮮, 一頃所摘, 極其零星, 不能爲常年三分之一是白在如中, 襄津等三邑之此時雨雪, 爲災偏酷, 而全一路霜信, 又此太早, 晚種各穀, 無望成實, 民事誠爲悶然. 若其災實分等, 待其概狀之齊報, 迫于登聞計料爲白乎旆. 臣巡審各邑後, 當日還營.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戌八月二十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벼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목화는 절반 이상 따서 거두었고 늦벼 및 콩·팥·메밀은 간간이 수확하였습니다. 웅진·송화·풍천 등 3개 고을은 이번 달 20일 인시에 세차게 바람이 갑자기 일어났고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렸고 잠시 후 이내 그쳤습니다. 수확하지 못한 각종 곡식은 피해 입은 것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1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거의 모두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지금 막 수확했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었고, 늦벼 및 콩·팥·메밀은 간혹 수확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저의

행차는 먼저 동쪽 군에서부터 서쪽 고을로 들어갔는데, 지나던 길의 농사 상황을 상세하게 살폈습니다.

벼 곡식 중 먼저 모내기 한 것과 재해 상황이 심하지 않은 곳의 경우, 오히려 알맹이를 먹을 수 있고, 늦게 모내기 한 것은 대부분 이삭이 패지 못했습니다. 비록 더러 이삭이 뻗었다고 하더라도 그사이에 바람의 피해를 입었고 또 벌레에게 갉아 먹혀 곳곳이 하얗게 말라서 전혀 낫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기장·조·수수·메밀의 경우 애당초 재해를 입은 것이 대단한 것에 이르지 않는 마침내 거둔 것은 흉년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합니다. 콩·팥은 처음에는 오랜 가뭄으로 매우 시들었고, 늦게는 또한 비가 자주 내려 피해가 더해져 열매가 맺힌 것이 거의 없어 정말로 씨앗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목화는 가뭄과 장마를 갖가지로 겪어 꼬투리를 맺은 것이 이미 드물었고 솜이 터진 것 또한 드물어서 1경에 딴 것은 그지없이 보잘것없어서 보통 해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웅진 등 3개 고을은 이때 비와 눈으로 매우 혹독하게 재해를 입었습니다. 전 지역이 서리가 내리고 또한 이렇게 너무 가물어서 늦게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여물 가망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정말로 걱정입니다. 재해·결실 등급의 경우, 개요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저는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살핀 후 오늘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술년 8월 27일 바침.

0148. 1845년(헌종 11) 2월 29일(양력 4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58c~458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a~7a)

卽接道內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方始抽芽, 春麴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遼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過半脫袴, 春麴間間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清明已屆, 東作伊始, 勸課之政, 不容少忽是白乎等以. 另飭列邑, 借牛勸耕, 分糶助糧, 期於各盡其力, 無或失時, 築堰防洩, 貯水蒙利等節, 亦令着念舉行之意, 一體嚴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二月二十九日封.

방금 황해도 내 각 고을에서 보고한 농사 상황을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트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간간이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청명은 이미 닥쳤고 봄농사는 이제 시작되어 농사를 권장하는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여러 고을에 지시하여 소를 빌리고 땅 가는 것을 권유하고, 환곡을 나누어 식량을 도와주고 기어이 각자 온 힘을 다해 혹시라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독을 쌓거나 보를 막아 물을 담아 이익을 누리는 등의 항목은 또한 유념하여 거행하라는 뜻으로 일체 엄히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2월 29일 바침.



0149. 1845년(헌종 11) 2월 30일(양력 4월 6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460c~460c)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10a~10b)

臣營下今二月二十九日子時始雨，間間霏灑，至當日辰時乃止，測雨器水深爲八分是如乎，列  
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二月三十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2월 29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오늘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2월 30일 바침.

0150. 1845년(헌종 11) 3월 2일(양력 4월 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60d~461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1a~11a)

臣營下去二月二十九日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長淵等三邑, 得一犁, 金川得二鋤, 襄津·文化·安岳·黃州·延安等五邑, 得一鋤, 平山泥塵是如. 牒呈爲白有在乎, 餘外各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三月初二日封.

저의 감영에 지난 2월 29일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장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은 2서가 내렸고, 웅진·문화·안악·황주·연안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문서 보고했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3월 초2일 바침.

0151. 1845년(헌종 11) 3월 9일(양력 4월 15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462d~463a)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14b~14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漸次向青, 春麴間或出土, 早黍·粟, 今始耕播是如爲白乎旅.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小麥方張抽芽, 春麴播種垂畢, 早黍·粟耕種伊始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知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三月初九日封.

황해도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땅에서 나오고, 올기장·울조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올기장·울조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이제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3월 초9일 바침.

0152. 1845년(헌종 11) 3월 14일(양력 4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64b~464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7a~17a)

臣營下今三月十三日卯時始雨, 或霏或灑,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如乎, 列  
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三月十四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13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기도 하면서 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3월 14일 바침.

0153. 1845년(헌종 11) 3월 17일(양력 4월 2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64d~464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8a~18a)

臣營下今三月十三日得雨一寸八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康翎得一犁，長淵·白川得二鋤，松禾·金川得一鋤，安岳·殷栗·瑞興等三邑浥塵是如。爲等如，牒呈爲白有知乎，餘外各邑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乙巳三月十七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13일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은 1려가 내렸고, 장연·배천은 2서가 내렸고, 송화·금천은 1서가 내렸고, 안악·은율·서흥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3월 17일 바침.

## 0154. 1845년(헌종 11) 3월 19일(양력 4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64d~465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8a~18b)

今三月十三日之雨, 海州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新溪·遂安·兎山·谷山等四邑, 得一鋤, 平山溫塵是如爲白乎旡.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次第茁青, 春麴幾盡立苗, 早黍·粟過半耕播是如爲白乎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小麥, 舉皆抽芽, 春麴間多出土, 早黍·粟方張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三月十九日封.

이번 3월 13일의 비로 해주 등 9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계·수안·토산·곡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자라나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거의 다 모종을 냈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그사이 땅에서 나온 것이 많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3월 19일 바침.

0155. 1845년(헌종 11) 3월 29일(양력 5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67d~468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23b~24a)

臣以支勅事離營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自海州牧, 歷過載寧·鳳山·黃州, 看審沿路農形, 則秋麴·小麥, 次第茁青, 春麴幾盡立苗, 早黍·粟間或出土, 而連接各邑所報, 則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七邑段, 與臣所經處, 一般無異是白乎旆. 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二邑段, 秋麴·小麥, 舉皆茁茂. 春麴漸次向青, 早黍·粟方張吐芽, 晚黍·粟·唐稷, 今始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三月二十九日封.

제가 사신을 접대하는 일로 감영을 떠난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해주목에서 재령·봉산·황주를 거치면서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살폈더니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푸르러졌고, 봄보리는 거의 다 모종을 냈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나왔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7개 고을은 제가 거쳐온 곳과 대체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2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모두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차례로 푸르러졌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이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3월 29일 바침.

0156. 1845년(헌종 11) 4월 4일(양력 5월 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71c~471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29a~29b)

臣以支勅事, 出待黃州牧, 而今四月初二日酉時始雨, 間間霏灑, 至初三日亥時乃止, 所得洽爲一犁許是白如乎, 列邑得兩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四月初四日封.

저는 사신을 접대하는 일로 나가서 황주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 4월 초2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기도 하면서 초3일 해시에 그쳤는데, 내린 것은 넉넉하게 1려 정도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4월 초4일 바침.



0157. 1845년(헌종 11) 4월 6일(양력 5월 1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471d~472a)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29b~30a)

今四月初三日, 臣在黃州牧, 得雨一犁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平山·殷栗等三邑, 得二犁, 載寧·瑞興·新溪·信川·文化·長連等六邑, 得一犁, 鳳山·金川得二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各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四月初六日封.

이번 4월 초3일에 저는 황주목에 있었는데 비가 내린 것이 1려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평산·은율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재령·서흥·신계·신천·문화·장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봉산·금천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4월 초6일 바침.

## 0158. 1845년(헌종 11) 4월 10일(양력 5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72a~472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30a~30b)

今四月初三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延安·兔山得二犁, 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安岳·白川·遂安·谷山等九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 間或胚胎, 春粳日漸茁長,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唐稷, 今始吐芽, 早稻·木綿, 間間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秋粳·小麥, 方張茁茂, 春粳漸次向長, 早黍·粟次第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始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稍闕之餘, 一路均霑, 田種各穀, 頗有滋潤之效, 民事多幸是白如乎,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四月初十日封.

이번 4월 초3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시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안·토산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안악·배천·수안·곡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더러 알이 배었으며 봄보리는 날로 점차 자랐으며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모종을 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싹이 텄으며, 올벼·목화는 간간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점차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모종을 냈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막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의 경우 약간 가문 나머지 온 지역에 골고루 적셔서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자못 윤기 나는 효과가 있어서 백성들의 사정에 다행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기사년 4월 초10일 바침

0159. 1845년(헌종 11) 4월 19일(양력 5월 2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78d~479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3a~43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日前隨勅上來時, 自黃州歷觀鳳山·瑞興·平山·金川, 看審沿路農形, 則秋牟·小麥, 間或胚胎, 春牟日漸茁長, 早黍·粟舉皆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吐芽. 早稻·木綿, 幾盡耕播, 而連接各邑所報, 則載寧·谷山·遂安·新溪·兎山等五邑段, 與臣所經處, 一般無異是白乎旆,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牟·小麥, 過半胚胎, 春牟已盡茁茂, 早黍·粟間間入鋤, 晚黍·粟·唐稷, 方張立苗. 早稻·木綿, 始或出土, 晚稻次第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四月十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 사신을 따라 올라왔을 때 황주에서 봉산·서흥·금천·평산을 거치면서 지나는 길 주변의 농사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알이 배었고 봄보리는 날로 점차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모두 모종을 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지금 싹이 트기 시작했고 고을벼와 목화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재령·곡산·수안·신계·토산 등 5개 고을은 제가 거쳐 왔던 곳과 대체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와 밀은 절반 이상 알이 배었고, 봄보리는 이미 다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는 더러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모종을 내고 있고 올벼와 목화는 더러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늦벼는 차례로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4월 19일 바침

## 0160. 1845년(헌종 11) 4월 29일(양력 6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82c~482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1a~51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今方發穗, 春麴幾皆胚胎, 早黍·粟方張初耘, 晚黍·粟·唐稷, 已盡立苗, 早稻·木綿, 舉皆出土, 晚稻落種垂畢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小麥, 間或發穗, 春麴今始胚胎, 早黍·粟間間入鋤,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吐芽, 早稻·木綿, 始或出土, 晚稻今方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四月二十九日封.

항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한창 이삭이 패는 중이고, 봄보리는 거의 모두 알이 배었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 중이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모종을 냈고, 올벼·목화는 거의 모두 땅 밖으로 나왔고, 늦벼는 씨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지금 알이 배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더러 김매기에 들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화전의 화속은 차례로 싹이 났으며, 올벼·목화는 더러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늦벼는 지금 막 씨뿌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4월 29일 바침.

0161. 1845년(헌종 11) 5월 5일(양력 6월 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86b~486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8a~58b)

臣營下今五月初四日巳時始雨，或灑或霏，至初五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五寸九分是白如  
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初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4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5일 인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온 경위는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초5일 바침.

0162. 1845년(헌종 11) 5월 7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86c~486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9a~59a)

臣營下今五月初五日得雨五寸九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川渠漲滿，康翎·松禾得二犁，延安·白川·信川·文化·載寧·長淵·殷栗等七邑，得一犁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初七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5일 내린 비가 5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송화는 2려가 내렸고, 연안·배천·신천·문화·재령·장연·은율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초7일 바침.

### 0163. 1845년(헌종 11) 5월 9일(양력 6월 1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86d~487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9a~59b)

今五月初五日之雨, 海州等十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襄津得二犁. 平山·金川·鳳山·安岳·長連·豐川·黃州·瑞興·遂安·新溪·兎山·谷山等十二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 次第入實, 春粳方張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 始或初耘, 早稻·木綿, 過半立苗, 晚稻間或立苗, 秧苗已盡注秧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秋粳·小麥, 已盡發穗, 春粳今方發穗. 早黍·粟方張入鋤,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舉皆立苗. 早稻·木綿, 間間立苗, 晚稻落種幾畢, 秧苗過半注秧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此雨澤, 旣洽旋霽, 目下農形, 頗有善就之望, 民事多幸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初九日封.

이번 5월 초5일의 비로 해주 등 10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은 2려가 내렸고, 금천·평산·봉산·안악·장련·풍천·황주·서흥·수안·신계·토산·곡산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는 중이며,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모종을 냈고, 늦벼는 간혹 모종을 냈고, 벳모는 이미 못자리에 물을 대고 벳씨를 뿌렸습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는 중이며,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한창 김매기에 들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거의 다 모종을 냈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모종을 냈고 늦벼는 벳씨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벳모는 절반 이상 못자리에 물을 댔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우택은 이미 너덕했는데 곧바로 개었으니 눈앞의 농사 상황은 자못 잘될 가망이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에 다행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초9일 바침.



0164. 1845년(헌종 11) 5월 19일(양력 6월 2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88a~488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61b~62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方張刈取, 春麴·小麥, 次第成熟. 早黍·粟幾皆再耘, 晚黍·粟·唐稷, 再耘伊始. 早稻·木綿, 過半初耘, 晚稻間或入鋤, 秧苗今方移插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今始向熟, 春麴·小麥, 漸次入實, 早黍·粟舉皆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間初鋤. 早稻·木綿, 方始初耘, 晚稻日漸立苗, 秧苗始或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十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는 중이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가 이제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간혹 김매기에 들어갔고 벳모는 이제 막 옮겨 심는 중이라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익기 시작했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모두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매일 점차 모종을 심었고, 모내기 모는 더러 옮겨심기를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19일 바침.

0165. 1845년(헌종 11) 5월 21일(양력 6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88d~488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63a~63b)

臣營下今五月十九日戌時始雨，或霏或灑，至二十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二十一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9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0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21일 바침.

0166. 1845년(헌종 11) 5월 23일(양력 6월 27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488d~489a)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63b~63b)

臣營下今五月二十日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豐川·文化·長連·延安等八邑, 得一犁, 殷栗·信川·安岳·黃州等四邑, 得二鋤, 松禾·瑞興·金川等三邑, 得一鋤, 新溪泥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二十三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0일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풍천·문화·장련·연안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신천·안악·황주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송화·서흥·금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신계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23일 바침.

0167. 1845년(헌종 11) 5월 25일(양력 6월 2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89a~489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63b~64a)

今五月二十日之雨, 海州等十六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白川·兔山得一犁, 載寧·遂安·谷山·平山等四邑, 得一鋤, 鳳山泥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沿峽均霑, 田畝各穀, 俱有滋潤之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二十五日封.

이번 5월 20일의 비로 해주 등 16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배천·토산은 1려가 내렸고, 재령·수안·곡산·평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봉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으로 주변과 골짜기가 골고루 적셔서 논밭의 각종 곡식은 모두 윤택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25일 바침.

0168. 1845년(헌종 11) 5월 28일(양력 7월 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489d~489d)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65a~65a)

臣營下今五月二十六日戌時始雨，或霏或霑，至二十七日未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寸八寸[分]是白如乎，稍闕之餘，得此甘沛，民事多幸是白乎旆，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二十八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6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7일 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었습니다. 조금 가문 끝에 이렇게 단비가 쏟아졌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28일 바침.

### 0169. 1845년(헌종 11) 5월 29일(양력 7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0a~490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65b~66a)

臣營下今五月二十七日得雨, 四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川渠漲流, 康翎·襄津·長淵·松禾·信川·文化·載寧·延安·白川等九邑, 得一犁, 鳳山得二鋤是如爲白乎旂.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粳·小麥, 方張刈取. 早黍·粟今始三耘, 晚黍·粟·唐稷, 幾皆再耘, 早稻·木綿, 再耘伊時, 晚稻舉皆初耘, 秧苗次第着根, 根耕豆·太·木麥, 始或播種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秋粳幾盡收穫, 春粳·小麥, 漸次向熟, 早黍·粟今方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或再耘, 早稻·木綿, 過半初耘, 晚稻間間初耘, 秧苗移插幾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五月二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7일에 내린 비가 4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강령·웅진·장연·송화·신천·문화·재령·연안·배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봉산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이때 하고, 늦벼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했고, 벳모는 차례로 뿌리를 내렸고, 그루깁 이하는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숙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했고, 벳모는 옮겨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

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5월 29일 바침.

## 0170. 1845년(헌종 11) 6월 2일(양력 7월 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1d~492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0a~70a)

去五月二十七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山川渠漲流, 兔山得二犁, 豐川·安岳·長連·殷栗·黃州·瑞興·遂安·谷山·金川等九邑, 得一犁, 新溪得二鋤是如爲白乎旃. 臣營下去五月三十日戌時始雨, 或灑或霏, 至今六月初一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初二日封.

지난 5월 27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토산은 2려가 내렸고, 풍천·안악·장린·은율·황주·서흥·수안·곡산·금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계는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 5월 30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이번 6월 초1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초2일 바칩.



0171. 1845년(헌종 11) 6월 4일(양력 7월 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2c~492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1b~71b)

臣營下今六月初一日得雨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延安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初三日寅時始雨, 或霏或灑, 至初四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初四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1일 내린 비가 6푼인 연우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연안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3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초4일 바침.

## 0172. 1845년(헌종 11) 6월 7일(양력 7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2d~493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2a~72b)

今六月初一日之雨, 海州等三邑, 得雨形止及今月初四日之雨, 臣營下得雨三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一日之雨, 長湍得一犁, 平山·金川得一鋤是如爲白乎旆, 初四日之雨, 海州川渠漲滿, 延安得二犁, 康翎·長湍·文化·殷栗·長連·載寧·白川等七邑, 得一犁, 松禾·信川·安岳等三邑, 得二鋤, 襄津·豐川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初六日丑時始雨, 或灑或霏, 當日未時至, 測雨器水深爲五分, 而陰雲四塞, 雨意尙濃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初七日封.

이번 6월 초1일의 비로 해주 등 3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장연은 1려가 내렸고, 금천·평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4일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연안은 2려가 내렸고, 강령·장연·문화·은율·장련·재령·배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송화·신천·안악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웅진·풍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6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다가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구름이 사방에 짙 차서 비올 조짐이 여전히 짙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초7일 바침.

### 0173. 1845년(헌종 11) 6월 10일(양력 7월 1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3a~493c)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2b~73a)

今六月初四日之雨, 海州等十四邑, 得雨形止及今月初六日之雨, 臣營下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四日<之>雨, 平山·遂安川渠漲流, 鳳山得二犁. 金川·黃州·冤山·新溪·瑞興·谷山等六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初六日之雨, 康翎得一犁, 海州得二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初七日寅時, 又爲始雨, 或灑或霏, 至初八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一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過半三耘, 晚黍·粟·唐稷, 三耘伊時, 早稻·木綿, 已盡再耘, 晚稻始或再耘, 秧苗今方向青. 根耕豆太, 幾盡播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平山·金川等十邑, 春粳·小麥, 方張刈取. 早黍·粟再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舉皆再耘. 早稻·木綿, 初耘已畢, 晚稻幾盡初耘, 秧苗已盡着根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初十日封.

이번 6월 초4일의 비로 해주 등 14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4일의 비로 평산·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봉산은 2려가 내렸고, 금천·황주·토산·신계·서흥·곡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6일의 비로 강령은 1려가 내렸고, 해주는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초8일 사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이때 하고, 올벼·목화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하고, 벳모는 지금 막 푸르렀고, 그루같이하는 콩·팥은 거의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

밀은 한창 베어 거두는 중이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의 화속은 거의 모두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벼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모내기한 모는 이미 다 뿌리를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초10일 바침.

0174. 1845년(헌종 11) 6월 12일(양력 7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3d~494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4a~74a)

臣營下今六月初八日得雨二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白川·金川·平山·瑞興等四邑, 川渠漲流, 海州·信川·延安等三邑, 得二犁, 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文化等六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十二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8일에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배천·금천·평산·서흥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신천·연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문화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12일 바침.

0175. 1845년(헌종 11) 6월 15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4a~494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4a~74b)

今六月初八日之雨, 白川等十三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新溪·兎山等三邑, 川渠漲流, 谷山·長連·安岳·殷栗等四邑, 得一犁, 載寧得二鋤, 黃州·鳳山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十五日封.

이번 6월 초8일의 비로 배천 등 13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신계·토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곡산·장린·안악·은율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재령은  
2서가 내렸고, 황주·봉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  
합니다.

을사년 6월 15일 바침.

## 0176. 1845년(헌종 11) 6월 19일(양력 7월 2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5a~495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6a~76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胚胎, 晚黍·粟·唐稷, 幾盡三耘. 早稻·木綿, 三耘伊始, 晚稻舉皆再耘, 秧苗今方入鋤. 豆·太·木麥, 次第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三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始或三耘. 早稻·木綿, 過半再耘, 晚稻再耘方始, 秧苗間或入鋤. 豆·太·木麥, 已盡播種是如. 爲等如, 牒呈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十八日辰時始雨, 或霏或灑, 至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十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배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이제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했고, 벳모는 이제 막 김매기에 들어갔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밭 화속은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막 시작했고, 모내기한 모는 간혹 김매기에 들어갔고, 콩·팥·메밀은 이미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8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19일 바침.

0177. 1845년(헌종 11) 6월 22일(양력 7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5b~495c)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76b~77a)

臣營下今六月十八日未時至, 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新溪川渠漲流, 海州·延安·白川等三邑, 得一犁, 杠禾殷栗得二鋤, 康翎·襄津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十八日以後, 連爲陰翳是白如可, 二十一日卯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二十二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六寸一分是白如乎, 今此雨澤, 若是過多, 傍川田畝, 或有潰傷之慮, 誠爲悶然是白乎旆,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二十二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8일 미시까지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연안·배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송화·은율은 2서가 내렸고, 강령·웅진은 1서가 내렸다고 저의 감영에 이번 18일 이후 연이어 검은 구름이 끼다가 21일 묘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사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1푼이었습니다. 이번 우택은 이처럼 많아서 시내 옆 논밭은 더러 터져 손상될 염려가 있으니 정말로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22일 바침.



## 0178. 1845년(헌종 11) 6월 26일(양력 7월 30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495d~496a)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77b~78a)

今六月十八日之雨, 新溪等八邑雨澤形止, 及二十二日巳時至, 臣營下得雨六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信川·文化·安岳·長湍·豐川·長連·載寧·金川·平山等九邑, 川渠漲流, 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等五邑, 得二犁, 兎山得一犁是如爲白乎旆. 二十二日之雨, 海州·長湍·豐川·文化·安岳·長連·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白川·金川·新溪·兎山等十五邑, 大小川渠, 無不漲溢. 康翎·襄津·松禾·殷栗·延安等五邑, 伊日大雨連霍, 獐風兼作, 早晚黍·粟, 率多披靡是如爲白乎旆. 平山·信川段, 前漲未退, 新潦繼添, 田畝之沈墊舉多, 各穀之受損不鮮, 其被害淺深, 姑俟水退, 更報計料是如爲白乎旆. 載寧段, 平陸汎濫, 三支江城垣, 兩坊堤堰畝數百石落, 盡爲潰決, 而禾穀覆汰, 人家漂頽, 待水退隨即摘奸, 更報計料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潦漲, 無邑不過多, 而平山·信川·載寧等三邑之偏被災損, 言念民情, 不勝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二十六日封.

이번 6월 18일의 비로 신계 등 8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22일 사시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비로 신천·문화·안악·장연·풍천·장려·재령·금천·평산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토산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22일의 비로 해주·장연·풍천·문화·안악·장려·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배천·금천·신계·토산 등 15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강령·웅진·송화·은율·연안 등 5개 고을은 그날 큰비가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고 사나운 바람이 크게 불어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쓰러졌다고 합니다. 평산·신천의 경우, 앞서 불어난 물이 빠지지 않고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더해져 논밭은 대부분 잠기었고 손상을 입은 각종 곡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깊은지 얕은지는 일단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입니다. 재령의 경우, 평지는 범람했고 세 줄기의 강이 성을

둘러쌓고 두 고을의 제언답 수백 섬지기가 모두 터져 벼곡식은 사태가 나 뒤덮였고 백성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즉시 캐보고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내린 큰비가 지나치지 않은 고을이 없습디만, 평산·신천·  
재평 등 3개 고을은 심하게 재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걱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간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26일 바침

0179. 1845년(헌종 11) 6월 29일(양력 8월 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497b~497c)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80b~81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過半發穗, 晚黍·粟·唐稷, 今方胚胎, 早稻·木綿, 已盡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 間間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方張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垂畢, 早稻·木綿, 始或三耘, 晚稻舉皆再耘, 豆·太·木麥, 次第立苗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六月二十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제 막 알을 났고, 올벼·목화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6월 29일 바침

## 0180. 1845년(헌종 11) 7월 5일(양력 8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499d~500d)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85b~87b)

去六月二十二日之雨, 各邑風雨形止及平山·信川·載寧等三邑水災, 待水退更報計料.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信川段, 谷畚埋沙處, 不至大段損傷, 堰垵諸處, 客水停滯, 不無傷稼而旋即水退, 將有食實之望是如爲白乎旆. 載寧段, 城垣坊內, 野坪畚二十九石十二斗落, 沙場坪畚二石八斗落, 每次垵畚一石落, 合畚三十三石落, 堰垵潰決, 潦水沈淹, 而數日之後, 仍即水退, 禾穀雖有少損, 將有蘇醒之望, 三支江坊, 民家全頽爲五戶是如爲白乎旆. 金川段, 沿江七面田畚, 或有成川者, 或有沈墊者, 水退之後, 黍稷木綿, 皆被委靡, 如箒掃者, 無復可望, 而禾穀間間有蘇醒之望, 山峽八面, 溪水悍激, 田土汰落, 往往有不辨形址處, 覆沙潰決, 在在皆然, 比沿江諸面, 尤爲甚焉, 而江東面岐灘里, 民家全頽爲一戶, 江面助邑里, 民家全頽爲二十五戶是如爲白乎旆. 松禾·長淵·文化等三邑段, 川傍山峽之地, 間多潰堰覆沙之患, 風勢所磨, 黍·粟·木花, 無不受傷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伊日風雨受損, 各邑有淺深之別, 而載寧·金川兩邑之民家全頽, 至爲三十一戶者, 誠爲矜惻是白乎等以. 原恤典, 以各該邑所在常賑穀, 依例題給, 亦自臣營, 別加顧助, 借材助丁, 俾即結構, 潰垵處段置, 各別董飭, 趁即修築之意, 嚴加申飭爲白遣, 全頽戶家舍間數, 後錄馳啓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旆. 平山段, 該邑之摘奸形止, 姑未報來, 今啓中未能一體舉論, 待其報來, 隨即修啓計料爲白乎旆. 臣營下今七月初三日未時, 又爲始雨, 間間霏灑, 初四日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是白如乎. 各邑得雨形止, 隨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後

載寧郡全頽戶秩.

獨戶, 幼學宋成祚, 草家三間.

獨戶, 幼學宋元益, 草家二間.

獨戶, 御營保孫萬甲 草家二間.

獨戶, 無役孫京用, 草家二間.

獨戶，津夫姜一元，草家二間。  
金川郡全額戶秩。  
小戶，幼學鄭寬河，草家七間。  
殘戶，軍餉保朴好哲，草家五間。  
殘戶，無役張致寬，草家五間。  
獨戶，無役金成執，草家三間。  
獨戶，無役李明奎，草家三間。  
獨戶，無役申化之，草家三間。  
獨戶，無役金仁西，草家三間。  
獨戶，無役金哲甫，草家三間。  
獨戶，無役李公益，草家三間。  
獨戶，無役李京右，草家三間。  
獨戶，無役金處坤，草家三間。  
獨戶，無役李大僉，草家三間。  
獨戶，無役張一元，草家三間。  
獨戶，無役李通川，草家三間。  
獨戶，無役金汝百，草家三間。  
獨戶，無役洪成辰，草家三間。  
獨戶，無役趙龍化，草家三間。  
獨戶，無役金信永，草家三間。  
獨戶，無役韓大曷金，草家三間。  
獨戶，無役李百京，草家三間。  
獨戶，無役洪君一，草家三間。  
獨戶，無役朴君西，草家三間。  
獨戶，無役金業龍，草家二間。  
獨戶，無役金遂安，草家二間。  
獨戶，無役高致成，草家二間。  
獨戶，無役金士玉，草家二間。

乙巳七月初五日封.

지난 6월 22일의 비로 각 고을에 비바람이 분 경위 및 평산·신천·재령 등 3개 고을의 수재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는 연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신천의 경우, 모래 파묻혔던 계곡의 논은 큰 손상에 이르지 않았고, 독과 물막이 여러 곳은 걸물이 고여 심어놓은 곡식 중 상처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바로 물이 빠져서 장차 알맹이를 먹을 가망이 있었습니다. 재령의 경우, 성벽 성안의 들판 논 29섬 12말, 사장평 논 2섬 8말, 매차동 논 1섬, 총 논 33섬은 독과 물막이가 터지고 큰물이 고였는데 며칠이 지난 후 이내 즉시 물이 빠져 벼곡식에 비록 약간의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삼지강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은 5가구라고 합니다. 금천의 경우, 강 주변 7개 면의 논밭은 더러 강을 이루거나 더러 잠기게 되었는데 물이 빠진 후에 기장·조·목화는 모두 시들고 문드러져 마치 비로 쓴듯해서 다시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벼 곡식은 더러 살아날 가망이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8개 면은 계곡물이 거세게 닳쳐 밭은 사태로 떨어져 나갔는데, 종종 형태를 판별할 수 없는 곳이 있었고 모래로 뒤덮이거나 독이 터진 곳은 곳곳마다 모두 그러해서 강 주변 여러 면에 비해 더욱 심했습니다. 강동면 기탄리는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이 1가구, 강면 조읍리는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이 25가구였다고 합니다.

송화·장연·문화 등 3개 고을의 경우 물가나 산골짜기 지역은 그사이에 독이 터지고 모래로 덮일 근심이 많았고 바람의 형세에 휩쓸려 기장·조·목화는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날의 비바람으로 입은 손상은 각 고을마다 알고 깊은 구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령·금천 2개 고을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31호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불쌍합니다. 기본 구호는 각 해당 고을에 있는 상진곡으로 규정대로 결정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의 감영에서도 별도로 돌보아주었는데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주어 즉시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물막이가 터진 곳의 경우 각별하게 감독하고 지시하여 즉시 수리해 쌓으라는 뜻으로 엄히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구의 건물 칸수는 뒤에 기록하여 긴급 보고하니 해당 관청에 지시해 규정대로 회계 처리토록 해주십시오. 평산의 경우 해당 고을에서 캐낸 경위는 아직 보고가 오지 않아

지금 보고 중에서 모두 다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작성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3일 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초4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보고가 오는 대로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추가

재령군의 완전히 무너진 가구 건

독호, 유학, 송성조, 초가 3칸

독호, 유학, 송원익, 초가 2칸

독호, 어영청 보인, 손만갑, 초가 2칸

독호, 무직, 손경용, 초가 2칸

독호, 나루터 사공, 강일원, 초가 2칸

금천군의 완전히 무너진 가구 건

소호, 유학, 정관하, 초가 7칸

잔호, 군향청 보인, 박호철, 초가 5칸

잔호, 무직, 장치관, 초가 5칸

독호, 무직, 김성집, 초가 3칸

독호, 무직, 이명규, 초가 3칸

독호, 무직, 신화지, 초가 3칸

독호, 무직, 김인서, 초가 3칸

독호, 무직, 김철보, 초가 3칸

독호, 무직, 이공익, 초가 3칸

독호, 무직, 이경우, 초가 3칸

독호, 무직, 김처곤, 초가 3칸

독호, 무직, 이대첨, 초가 3칸

독호, 무직, 장일원, 초가 3칸  
독호, 무직, 이통천, 초가 3칸  
독호, 무직, 김여백, 초가 3칸  
독호, 무직, 홍성진, 초가 3칸  
독호, 무직, 조용화, 초가 3칸  
독호, 무직, 김신영, 초가 3칸  
독호, 무직, 한대갈금, 초가 3칸  
독호, 무직, 이백경, 초가 3칸  
독호, 무직, 홍균일, 초가 3칸  
독호, 무직, 박군서, 초가 3칸  
독호, 무직, 김엽룡, 초가 2칸  
독호, 무직, 김수안, 초가 2칸  
독호, 무직, 고치성, 초가 2칸  
독호, 무직, 김사옥, 초가 2칸  
을사년 7월 초5일 바침



## 0181. 1845년(헌종 11) 7월 8일(양력 8월 10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500d~501c)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87b~88b)

臣營下今七月初四日戌時至, 得雨二寸八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信川·長連, 川渠漲滿, 海州·康翎·長淵·文化等四邑, 得二犁, 襄津·殷栗·黃州·瑞興·延安等五邑, 得一犁, 豐川·白川, 得二鋤是如爲白乎跡. 平山段, 去六月二十二日之雨水, 近浦傍川處, 各穀俱爲受損, 及其水退, 非無如干蘇醒, 而污下之地, 日久沈墊, 多有食實無期者是遭, 外邑面, 民家全賴爲五戶, 金巖面, 民家全賴爲七戶, 而摘奸往來之際, 阻水遲滯, 今始牒報是如爲白乎跡. 該邑水災, 各穀受損, 已極憂悶, 而民家全賴, 至爲十二戶者, 尤爲矜惻是白乎等以. 原恤典, 以該邑所在常賑穀, 依例題給, 亦自臣營別加顧助, 借材助丁, 俾卽結構入處之意, 另加申飭爲白遭. 全賴戶家舍間數, 開錄于後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跡. 臣營下今七月初八日子時, 又爲始雨, 或灑或霖, 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如乎. 各邑雨澤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後

平山府全賴戶秩.

大戶, 無役玄玉芴, 草家十四間.

九斗.

中戶, 無役金龍翼, 草家八間.

中戶, 無役崔致學, 草家八間.

各八斗.

殘戶, 無役李東益, 草家五間.

殘戶, 砲保朴士芴, 草家五間.

殘戶, 無役李玄福, 草家五間.

殘戶, 無役金於仁老未, 草家四間.

殘戶, 幼學李東奎, 草家四間.

殘戶, 幼學李禹錫, 草家四間.

各六斗.

獨戶, 無役崔義吉, 草家三間.

獨戶, 寡女金召史, 草家三間.

獨戶, 無役李培根, 草家三間.

各五斗.

合小米五石一斗.

乙巳七月初八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4일 술시까지 내린 비가 2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찬·장륜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강령·장연·문화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웅진·은율·황주·서흥·연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풍천·배천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평산의 경우 지난 6월 22일 빗물로 근처 포구와 시냇가의 각종 곡식은 모두 손상을 입었습니다. 물이 빠지자 약간 살아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낮은 지역은 오래도록 잠겨서 대부분 열매를 먹을 기대가 없었습니다. 외읍면의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은 5가구이고, 금암면의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은 7가구였습니다. 캐보는 조사관이 오고갈 즈음에 물에 막혀 지체되어 지금 비로소 문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고을의 수재와 각종 곡식의 입은 피해로 이미 근심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백성 집이 12호에 이르고 하니 더욱 애처롭습니다. 기본 구호는 해당 고을에 있는 상진곡으로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었고 또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돌보아서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도와주고, 즉시 집을 지어서 들어가게 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구의 건물 칸수는 뒤쪽에 기록했으니 해당 관청에서 규정대로 회계 처리토록 해주십시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8일 자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각 고을의 우택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첨부

평산부 완전히 무너진 가구 건

대호, 무직, 현옥돌, 초가 14칸

9말

중호, 무직, 김용익, 초가 8칸

중호, 무직, 최치학, 초가 8칸

각 8말

잔호, 무직, 이동익, 초가 5칸

잔호, 포보, 박사돌, 초가 5칸

잔호, 무직, 이현복, 초가 5칸

잔호, 무직, 김어인노미, 초가 4칸

잔호, 유학, 이동규, 초가 4칸

잔호, 유학, 이우석, 초가 4칸

각 6말

독호, 무직, 최의길, 초가 3칸

독호, 과부, 김 조이, 초가 3칸

독호, 무직, 이배근, 초가 3칸

각 5말

총 소미 5섬 1말

을사년 7월 초8일 바침

## 0182. 1845년(헌종 11) 7월 10일(양력 8월 1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01d~502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89a~90a)

今七月初四日之雨, 信川等十三邑得雨形止及臣營下今七月初八日得雨二寸二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四日之雨, 松禾·遂安, 川渠漲滿, 載寧·兎山得二犁, 安岳·鳳山·谷山·平山·新溪等五邑, 得一犁金川得二鋤, 今月初八日之雨, 海州得二犁, 康翎·襄津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 今方入實, 晚黍·粟·唐稷, 次第發穗, 早稻今始胚胎, 木綿漸次開花, 晚稻幾皆三耘, 豆·太·木麥, 再耘伊始, 而海州段, 沿海畝稼, 蟲蝕蟹損, 間多爲災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 幾盡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盡胚胎, 始或發穗, 早稻三耘垂畢, 木綿間間起花, 晚稻方張三耘, 豆·太·木麥, 舉皆初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日東風連吹, 雨水浸露, 毋論沿峽, 早晚各穀, 多爲受傷, 而至於木綿, 自是旱種, 被災尤甚, 早開之花房, 太半腐落, 禾稻則沈曳覆沙處間多蘇醒, 而海州沿海之坊, 又添蟲蟹之損, 民事可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七月初十日封.

이번 7월 초4일의 비로 신천 등 13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8일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4일의 비로 송화·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재령·토산은 2려가 내렸고, 안악·봉산·곡산·평산·신계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은 2서가 내렸습니다. 이번 초8일의 비로 해주는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가 지금 막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이삭이 패었고, 올벼는 이제 이삭이 배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었고, 늦벼는 대부분 세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해주의 경우, 바닷가

근처 논에 심은 것은 벌레가 갇아 먹거나 게로 인한 피해가 그사이에 대부분이 재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뻗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이미 다 알을 뻗었는데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는 더러 꽃이 피었고, 늦벼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콩·팥·메밀은 거의 모두 초벌 김매기를 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즈음 동풍이 연이어 불고 빗물이 고여 물가나 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알곡이든 늦곡이든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은 것이 많았습니다. 목화의 경우 본래 가뭄에 견디는 종자인데, 입을 재해 더욱 심해 일찍 열린 화방 대부분이 썩어 떨어졌고 벼는 잠기거나 모래에 덮였는데도 그사이 살아난 것이 많았습니다. 해주의 바닷가 마을은 또 벌레와 게의 피해가 더해져 백성들의 사정은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7월 초10일 바침.

0183. 1845년(헌종 11) 7월 20일(양력 8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06a~506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97a~97b)

道內農形及各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 方張向熟, 晚黍·粟·唐稷, 已盡發穗, 早稻間或發穗, 木綿今始結窠, 晚稻幾盡胚胎, 豆·太·木麥, 再耘垂畢, 而海州段, 蟲食蟹損, 尙未寢息. 長淵·延安段, 低下之畓, 率多沈墊, 而消融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 次第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發穗, 早稻間間胚胎, 木綿今方起花, 晚稻始或胚胎, 豆·太·木麥, 方張再耘, 而載寧·黃州段, 堰垌畓穀間多蟲損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日候調和, 早晚各穀, 頗有成就之望, 而至於禾稻段, 海州等五邑之蟲蝕消融, 爲害非細,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七月二十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는 더러 이삭이 났고, 목화는 지금 다래를 맺기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을 났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는데, 해주의 경우, 벌레가 먹거나 게로 인한 피해가 아직 그치지 않았고, 장연·연안의 경우, 낮은 지역의 논은 대부분 잠겨 녹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이삭이 났고, 올벼는 더러 알을 났고, 목화는 지금 막 꽃이 피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콩·팥·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재령·황주의 경우, 독과 물막이의 논곡식은 그사이에 벌레 피해가 많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화로워 올곡식이든 늦곡식이든 자못 여물 가망이 있습니다. 벼의 경우, 해주 등 5개 고을에서 벌레가 갹아먹거나 녹아 없어졌는데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7월 20일 바침.

## 0184. 1845년(헌종 11) 7월 30일(양력 9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06d~507a)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99a~99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間或刈取, 晚黍·粟·唐稷, 次第入實, 早稻幾皆發穗, 木花間綻綿, 晚稻今始發穗, 豆·太·木麥, 過半起花, 而康翎·松禾兩邑, 晚稻蟲蝕間多爲災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方張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舉皆發穗, 早稻方始發穗, 木綿已盡開花, 晚稻幾盡胚胎, 豆·太·木麥, 再耘垂畢, 而鳳山段, 畚稼間有蟲蝕之患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前此海州·黃州兩邑, 蟲蝕尙未寢息, 而康翎·松禾·鳳山等三邑, 又有此患, 殊極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七月三十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벼는 거의 모두 이삭이 났고, 목화는 더러 솜이 터져 나오고, 늦벼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꽃이 피었고, 강령·송화 2개 고을은 늦벼를 벌레가 갉아먹어 그사이에 재해가 많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대부분 이삭이 났고, 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목화는 이미 다 꽃이 피었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을 났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봉산의 경우, 논에 심은 것을 그사이에 벌레가 갉아먹을 근심이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주·황주 2개 고을에서 벌레가 갉아 먹는 것이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령·송화·봉산 등 3개 고을에도 또한 이런 근심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



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7월 30일 바침.

0185. 1845년(헌종 11) 8월 4일(양력 9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08c~508c)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02b~102b)

臣營下去七月三十日得雨一寸七分. 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得二犁, 黃州·信川·松禾等三邑, 得一鋤, 康翎·殷栗·新溪等三邑沍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八月初四日封.

저의 감영에 지난 7월 30일에 내린 비가 1치인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2려가 내렸고, 황주·신천·송화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령·은율·신계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8월 초4일 바침.

## 0186. 1845년(헌종 11) 8월 10일(양력 9월 1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508c~508d)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102b~103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刈取, 晚黍·粟·唐稷, 次第向熟, 早稻今方入實, 木綿始或摘取, 晚稻漸次發穗, 豆·太·木麥, 舉皆起花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始或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入實, 早稻幾盡發穗, 木麥今方結窠, 晚稻間或發穗, 豆·太·木麥, 始爲起花, 而海州·長淵·松禾·延安·白川·載寧·金川·平山等八邑段, 畚稼之晚稻, 始損於潦水之沈淹, 近緣於淒風之連吹, 或有胚胎, 而含縮未發, 或有萎黃, 而直立徑枯, 以今所見食實無望. 長淵·平山, 又有禾穀之蟲災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前此康翎·松禾·海州·黃州·鳳山等五邑蟲損, 尙未寢息, 而長淵·平山, 又此滋蔓, 白露已過, 晚稻之未發, 若是夥然, 言念穡事, 俱切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八月初十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벼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목화는 더러 따서 거두기 시작했고, 늦벼는 점차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거의 모두 꽃이 피었다고 하였습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패고, 목화는 지금 막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으며, 늦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해주·장연·송화·연안·배천·재령·금천·평산 등 8개 고을의 경우 논에 심은 늦벼는 처음에는 큰물에 잠기는 손상을 입었다가 요즈음은 서늘한 바람이 연달아 불게 되어 더러 베었던 것이 쪼그라들어 패지 못했고 더러 누렇게 시들어 곳곳이 선 채로 지레 말라서 지금

본 바로는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장연·평산은 또 벼 곡식에 벌레 재해가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강령·송화·해주·황주·봉산 등 5개 고을은 벌레 피해가 아직 그치지 않았고 장연·평산은 또 이렇게 번졌습니다. 백로가 이미 지났는데 늦벼 중 패지 못한 것이 이처럼 많습니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모두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8월 초10일 바침.

## 0187. 1845년(헌종 11) 8월 20일(양력 9월 2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509a~509b)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103b~104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 今方刈取, 早稻漸次向熟, 木綿方張摘取, 晚稻次第入實, 豆·太·木麥, 過半結穀是如爲白乎旅.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早黍·粟, 舉皆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盡成熟, 早稻今始入實, 木綿間綻綿, 晚稻已盡發穗, 豆·太·木麥, 間或結穀, 而長連·松禾·康翎·延安·白川等五邑段, 連因淒風不止, 禾稻之未發, 豆太之萎枯者, 蘇醒無望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見今秋序過半, 日候漸寒, 受損各穀, 難望食實, 言念穡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八月二十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점차 익어갔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었고, 늦벼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모두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익었고, 올벼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했고, 목화는 더러 숨이 터졌고, 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으며, 콩·팥·메밀은 간혹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장련·송화·강령·연안·배천 등 5개 고을의 경우 연이어 서늘한 바람이 그치지 않아서 벼곡식은 패지 않고, 콩팥은 말라 시들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가을이 절반이 지났고 날씨는 점차 추워지는데 손상입은 각종 곡식은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습니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8월 20일 바침.

0188. 1845년(헌종 11) 8월 21일(양력 9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09b~509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04a~104a)

臣營下今八月二十一日寅時始雨，間間霏灑，至申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八月二十一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21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8월 21일 바침.

## 0189. 1845년(헌종 11) 8월 25일(양력 9월 26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509b~509c) / 黃海監營狀啓謄錄 6책(104a~104b)

臣營下今八月二十一日得雨一寸. 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文化·黃州·新溪·延安等十邑, 得一犁, 白川得二鋤, 信川·金川得一鋤是如爲白乎旡. 長淵段, 今八月十九日驟雨, 新化·尊澤兩坊, 雨雹交下, 移時乃止, 其形如鳥卵如, 橡實所經處, 長爲四十里, 廣爲十里, 而田種畚稼, 舉皆撲落是如爲白乎旡. 松禾·豐川·延安等三邑段, 亦於伊日, 風雹交作, 旋即乃止, 經過處延袤長短, 被災淺深, 待摘奸更報計料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成熟之時, 被雹傷損, 至於四邑,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八月二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21일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문화·황주·신계·연안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은 2서가 내렸고, 신천·금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장연의 경우, 이번 8월 19일 소나기로 내렸는데 신화·순택 등 두 방은 비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있다가 이내 그쳤는데, 그 모양이 새알만 하거나 도토리만 했고, 거쳐 간 곳은 길이는 40리, 넓이는 10리였는데, 논밭의 곡식은 대부분 떨어졌다고 합니다. 송화·풍천·연안 등 3개 고을의 경우, 또한 그날 바람과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곧바로 이내 그쳤습니다. 거쳐 간 곳은 넓이와 길이, 입은 피해가 얕은지 깊은지는 캐보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이번 각종 곡식이 익어가던 때에 우박의 재해를 입은 것이 4개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8월 25일 바침.

## 0190. 1845년(헌종 11) 9월 1일(양력 10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14d~515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13a~114a)

去八月二十一日之雨, 海州等十三邑得雨, 緣由及松禾等三邑, 去月十九日雨雹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之雨, 兎山·遂安·鳳山·殷栗·長連等五邑, 得一犁, 谷山·瑞興·載寧·安岳·平山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十九日之雨雹, 松禾段, 藥山·蓮花·蓬萊·長陽等四坊, 計其所過處, 長爲五十里, 廣爲十里, 而方熟之禾稻, 向實之豆·太·木麥, 舉皆撲落, 食實無幾是如爲白乎旆. 延安段, 大山·召食·苐串·竝城等四坊, 其被災處, 長爲二十五里, 廣爲七里, 而田種畚稼, 無不傷損是如爲白乎旆. 豐川段, 栗里眞等兩坊受損處, 長爲二十里, 廣爲五里, 而田畚各穀, 間多撲傷是如爲白乎旆. 平山亦於伊日雨雹, 馬山·積巖·細谷等三坊所經處, 長爲三十里, 廣爲十里, 而各穀被損, 不甚大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幾盡成熟, 木綿過半摘取, 晚稻漸次向熟, 豆·太·木麥, 今方向實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皆刈取, 早稻今始向熟, 木綿方張摘取, 晚稻次第入實, 豆·太·木麥, 已盡結穀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成熟之時, 松禾·延安·豐川·平山等四邑, 雹災長廣, 雖不至闊遠, 已熟之穀, 多被災損, 言念民事, 誠切悶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巳九月初一日封.

지난 8월 21일의 비로 해주 등 13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송화 등 3개 고을에 지난달 19일에 우박이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1일에 비로 토산·수안·봉산·은율·장련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곡산·서흥·재령·안악·평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19일의 우박으로 송화의 경우, 약산·연화·봉래·장양 등 4개 방에 지나간 곳을 계산해보면 길이는 50리, 너비는 10리였고, 막 익기 시작한 벼와 여물어가는 콩·팥·메밀은 거의 모두 떨어져서 먹을 만한 열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연안의 경우 대산·소식·영관·병성 등 4개 방에 재해를 입은 곳은 길이는 25리, 너비는 7리이고, 논밭의 곡식 중 상처 입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풍천의 경우, 울리·진등 두 방에 재해 입은 곳은 길이는 20리, 너비는 5리였고 논밭의 각종 곡식은 그사이에 대부분 얻어맞아 상처 입었다고 합니다. 평산 또한 그날 우박으로 마산·적암·세곡 등 3개 방에 거쳐 간 곳은 길이는 30리, 너비는 10리였고 각종 곡식이 재해 입은 것은 매우 대단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벼는 거의 다 익었고, 목화는 절반 이상 따서 거두었고, 늦벼는 점차 익어갔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여물어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모두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으며,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었고, 늦벼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혔다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각종 곡식이 익어가는 때에 송화·연안·풍천·평산 등 4개 고을에 우박 재해의 길이와 넓이가 비록 드넓은 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익은 곡식은 대부분 재해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9월 초1일 바칩.

0191. 1845년(헌종 11) 9월 7일(양력 10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515b~515b) / 黃海監營狀啓臚錄 6책(114a~114a)

卽接各邑所報, 則遂安·新溪·松禾等三邑, 今九月初二日夜霜降, 延安·白川·載寧·康翎等四邑, 初四日夜霜降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巳九月初七日封.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수안·신계·송화 등 3개 고을은 이번 9월 초2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연안·배천·재령·강령 등 4개 고을은 초4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사년 9월 초7일 바침.

0192. 1848년(헌종 14) 4월 14일(양력 5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38c~538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2a~2b)

道內農形, 前道臣南在任時,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始或胚胎, 春麴今方茁茂,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唐稷間或出土, 早稻·木綿次第耕播是如爲白乎旅,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已盡茁茂, 春麴日漸向長, 早黍·粟過半立苗, 晚黍·粟·唐稷舉皆耕播, 山田火粟及早稻·木綿, 今始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旅. 臣營下今四月十三日卯時始雨, 間間霏微, 至戌時乃止, 所得僅爲浥塵是白乎所. 臣於赴任之路, 歷過金川·白川·延安·海州等四邑, 則近因雨澤之稍闕, 麴·麥間多萎枯, 秧坂亦或乾涸, 而今此霏微, 無益於滋潤, 際茲霏然, 方切顚望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전 감사 남의 재임시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봄보리는 지금 막 무성하게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싹이 무성하게 자랐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산전의 화속 및 올벼·목화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3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길에 금천·배천·연안·해주 등 4개 고을을 거쳐 왔습니다. 요즘 우택이 조금 가뭄으로 그사이 대부분 보리·밀은 메말라 시들었고 못자리는 또한 더러 메말랐습니다. 이번에 부슬부슬 내렸지만 촉촉하게 젖는 데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이즈음 쏟아지기를 막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193. 1848년(헌종 14) 4월 19일(양력 5월 2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7책(541a~541a) / 黃海監營狀啓謄錄 7책(6b~6b)

臣營下今四月十三日得雨浥塵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豐川·安岳·長連·遂安等四邑, 得一鋤, 海州·康翎·松禾·信川·文化·殷栗·黃州·鳳山·金川·新溪·瑞興等十一邑, 浥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四月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3일 내린 비가 먼지만 적실 정도였던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풍천·안악·장린·수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해주·강령·송화·신천·문화·은율·황주·봉산·금천·신계·서흥 등 11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4월 19일 바침.

0194. 1848년(헌종 14) 4월 23일(양력 5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45c~545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15b~16a)

臣營下今四月二十二日寅時始雨, 或霏或灑, 當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乎所, 今此雨澤久闕之餘, 尙未優洽, 田畝各穀, 別無滋潤之效, 繼此一霈, 誠切顙望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四月二十三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2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이번 우택은 오래 가문 끝에 아직 넉넉하게 적시지 못해 논밭의 각종 곡식은 별달리 촉촉이 젖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한바탕 쏟아지기를 정말로 매우 갈망입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4월 23일 바칩.

# 0195. 1848년(헌종 14) 4월 25일(양력 5월 2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46c~546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17b~18b)

臣營下今四月二十二日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豐川得二鋤, 海州·長淵·松禾等三邑, 得一鋤, 康翎·文化·信川·殷栗·延安·平山等六邑, 僅爲浥塵是如爲白乎跡.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漸次發穗, 春麴方張胚胎, 早黍·粟間或初耘, 晚黍·粟·唐稷幾盡立苗, 早稻·木綿今始出土, 晚稻次第耕播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今方胚胎, 春牟[麴]幾皆茁茂, 早黍·粟已盡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間抽芽, 早稻·木綿, 舉皆播種, 晚稻始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不過浥塵, 或鋤餘而止, 則發穗之麴·麥受損既久, 穗穎尖小, 至於畚庫, 有水根處外, 在在乾涸, 言念民事, 殊甚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四月二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2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풍천은 2서가 내렸고, 해주·장연·송화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령·문화·신천·은율·연안·평산 등 6개 고을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이삭이 났고, 봄보리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늦벼는 차례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알을 배고, 봄보리는 거의 모두 싹이 무성해졌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간이 싹이 나왔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

였습니다. 이번 우택은 먼지를 적실 정도에 불과하였고 더러 1서 남짓에 그쳤습니다. 이삭이 팬 보리·밀은 손상을 입은 지 오래되어 이삭은 약간 솟았고, 논의 경우 물이 나오는 근처 이외에 곳곳이 메말랐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4월 25일 바침.



0196. 1848년(헌종 14) 4월 27일(양력 5월 2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47b~547c)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19b~19b)

今四月二十二日之雨, 豐川等十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黃州得二鋤, 襄津·長連·鳳山·白川·金川·瑞興·遂安·新溪·冤山·谷山等十邑, 得一鋤, 載寧僅爲泥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申四月二十七日封.

이번 4월 22일의 비로 풍천 등 10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황주는 2서가 내렸고, 웅진·장려·봉산·배천·금천·서흥·수안·신계·토산·곡산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는데, 재령은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4월 27일 바침.

## 0197. 1848년(헌종 14) 5월 5일(양력 6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49d~550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24a~25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次第入實, 春麴·小麥方張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初耘垂畢, 早稻·木綿今方入鋤, 晚稻幾皆出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今始入實, 春麴·小麥間間發穗, 早黍·粟舉皆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初耘, 早稻·木綿已盡立苗, 晚稻間或出土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旆. 臣營下今五月初四日辰時始雨, 或霏或灑, 當日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今此雨澤, 久旱之餘, 雖幸少霑, 殆同沃焦, 乾涸之畝庫, 到底龜坼, 受損之田種, 日漸萎黃, 言念民事, 去益悶然, 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初五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했고, 봄보리·봄밀은 간간이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이번 우택은 오래 가문 나머지 비록 다행히 조금 적었지만 타는 술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다급합니다. 메마른 논은 이르는 곳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손상을 입은 밭의 씨앗은 날마다

점차 누렇게 시들어 갔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합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  
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5월 초5일 바침.

## 0198. 1848년(헌종 14) 5월 7일(양력 6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0c~550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26a~26a)

今五月初四日臣營下得雨六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得二鋤，長淵得一鋤，康翎·襄津·信川·文化·延安等五邑，浥塵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五月初六日寅時始雨，或霏或灑，至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田種各穀庶可解渴，至於畚庫有水根處，雖得添沃，而高燥乾涸處尙無滋潤之效，繼此一霽，益切顒望是白乎旆，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初七日封。

이번 5월 초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2서가 내렸고, 장연은 1서가 내렸고, 강령·웅진·신천·문화·연안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6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아마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외의 경우 물이 나오는 근처는 비록 더 기름져지겠지만 높고 메마른 곳은 오히려 축축해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쏟아지기를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5월 초7일 바칩.

0199. 1848년(헌종 14) 5월 10일(양력 6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1a~551b)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26b~27a)

今五月初四日之雨, 海州等七邑得雨形止及今月初六日臣營下得雨一寸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四日之雨, 黃州·新溪·兔山等三邑, 得二鋤, 瑞興·平山·谷山等三邑, 得一鋤, 安岳·長連·載寧·遂安·白川等五邑, 浥塵是如爲白乎旆, 初六日之雨, 海州·康翎·信川·文化·安岳·載寧·鳳山·瑞興等八邑, 得一犁, 長淵·松禾·延安·白川·平山等五邑, 得二鋤, 襄津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如乎, 餘外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初十日封.

이번 5월 4일의 비로 해주 등 7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이번 달 초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4일의 비로 황주·신계·토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서흥·평산·곡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악·장연·재령·수안·배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초6일의 비로 해주·강령·신천·문화·안악·재령·봉산·서흥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송화·연안·배천·평산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웅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5월 초10일 바침.

## 0200. 1848년(헌종 14) 5월 11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1b~551b)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27a~27b)

今五月初六日之雨, 海州等十四邑得雨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豐川·黃州·金川·新溪·龜山·遂安·谷山等七邑, 得一犁, 長連·殷栗得一鋤是如爲白乎旡. 臣營下今五月初十日申時始雨, 或霏或灑, 至亥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近日雨澤, 雖前後相續, 俱不過鋤犁而止, 終未優洽, 際此一霽, 更切顚望是白乎旡,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十一日封.

이번 5월 초6일의 비로 해주 등 14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풍천·황주·금천·신계·토산·수안·곡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련·은율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10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요즈음 우택은 비록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모두 1서나 1려 정도 내리고 그쳤고 끝내 넉넉히 적셔주지 못했습니다. 이즈음 한차례 퍼붓기를 다시 절실히 갈망합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5월 11일 바침.

## 0201. 1848년(헌종 14) 5월 19일(양력 6월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1c~552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28a~29a)

今五月初十日臣營下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長淵·松禾·豐川·信川·載寧·黃州·延安·金川等十邑, 得一鋤, 安岳·殷栗·湍塵是如爲白乎跡.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方張成熟, 春粳·小麥今始入實, 早黍·粟過半再耘, 晚黍·粟·唐稷間或再耘, 早稻·木綿今方初耘, 晚稻已盡立苗秧苗, 始或移插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次第入實, 春粳·小麥舉皆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初耘垂畢, 早稻·木綿方始入鋤, 晚稻間間入[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春旱爲災, 粳·麥已判歉荒, 而至於黍·粟·木綿, 立[入]種亦皆差遲, 近因微雨之頻霑, 稍有勃興之效, 畚庫污下有水根處, 間或移秧, 而高燥之處, 尚未優洽, 乾涸居多, 民事悶然是白如乎, 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十五日封.

이번 5월 초10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장연·송화·풍천·신천·  
재령·황주·연안·금천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안악·은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용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익어가는 중이고, 봄보리·봄밀은 이제 알이 들기 시작했  
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두벌 김매기  
를 했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벳모는  
더러 옮겨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막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더러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봄 가뭄이 재해가 되어 보리·밀은 이미 흉년으로 판가를 났고 기장·조·메일은 씨앗을 심는 것도 또한 모두 지체되었습니다. 요즈음 약간의 비가 내려 자주 적셔주니 조금 왕성하게 일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논·의 경우, 낮은 곳에 물이 나오는 가까이 있는 곳은 더러 모내기를 하였고, 높은 곳은 아직 넉넉하게 적셔주지 못하고 메마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백성들의 사정상 걱정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5월 15일 바침.



## 0202. 1848년(헌종 14) 5월 25일(양력 6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3c~553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2b~33a)

道內農形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過半刈穫, 春麴·小麥次第向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再耘垂畢, 早稻·木綿間間再耘, 晚稻方張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秋麴今始刈取, 春麴·小麥已盡入實, 早黍·粟再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再耘伊始, 早稻·木綿過半初耘, 晚稻方始初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早乾頗久, 一霈終斷, 田種各穀姑無爲痒, 而至於畚庫, 有水根處外, 舉皆龜坼, 見今夏至已過, 移秧漸晚, 言念民事, 誠甚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二十五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절반 이상 베어 거두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갔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더러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가뭄이 자못 오래되었고 한바탕 쏟아지는 것이 끝내 없었지만, 씨앗을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일단 손상은 없습니다. 논의 경우 물이 나오는 가까운 곳 이외에 거의 모두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현재 하지가 이미 지났고 모내기는 점차 늦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5월 25일 바침.

### 0203. 1848년(헌종 14) 5월 2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3d~554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3a~33b)

道內農形悶旱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夏至已過, 旱乾日甚, 田種各穀雖不至大段受損, 而至於畚庫, 毋論高低, 在在龜坼, 移秧愆期, 目下民情, 誠爲遑汲乙仍于, 臣以海州牧祈雨祭, 今二十八日虔誠設行事, 當日發行于社稷壇所爲白遣, 各邑段, 隨其緩急, 量宜設行之意, 發關知委爲白乎旆, 旱氣太甚邑之此際曠官, 一時爲悶, 而海州判官金獻淳, 金川郡守徐有象, 姑未赴任, 載寧郡守韓弼教, 白川郡守朴齊韶, 俱爲受由上京是白如乎. 竝令該曹催促下送爲白只爲.

戊申五月二十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고 가뭄은 날로 심하여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비록 대단한 손상에 이르지 않았지만, 논의 경우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곳곳마다 거북등처럼 갈아져서 모내기의 기일이 지체되었으니 현재 백성들의 심정은 정말로 다급합니다. 저는 해주목 기우제를 이번 28일에 정성스럽게 시행할 일로 당일 사직단 장소로 떠났습니다. 각 고을의 경우 다급한지에 따라 적절히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알렸습니다. 가뭄의 조짐이 너무 심한데 이즈음 수령이 비어있는 고을은 일시적으로 걱정입니다. 해주 판관 김현순, 금천 군수 서유상이 아직 부임 못했고, 재령 군수 한필교, 배천 군수 박제소는 모두 휴가를 받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해당 부서로 하여금 내려 보내도록 재촉해 주십시오.

무신년 5월 27일 바침.

0204. 1848년(헌종 14) 5월 28일(양력 6월 2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4a~554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3b~33b)

臣海州牧社稷壇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爲白乎旂，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二十八日封，

저는 해주목의 사직단 기우제를 시행한 후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5월 28일 바침.

## 0205. 1848년(헌종 14) 5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4b~554b)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3b~34a)

臣海州牧社稷壇祈雨祭設行後, 還營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再次祈雨祭, 以來六月初一日設行事, 臣當日發行于海州牧龍塘浦祭所爲白乎旆, 延安·信川·康翎·襄津·鳳山·文化·長連·安岳·黃州等九邑, 祈雨祭亦爲設行是如. 次第報來是白如乎, 餘外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五月三十日封.

제가 해주목의 사직단 기우제를 시행한 후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2차 기우제의 경우, 오는 6월 초1일 시행할 일로 저는 그날 해주목 용당포 제사 지내는 장소로 떠났습니다. 연안·신천·강령·웅진·봉산·문화·장련·안악·황주 등 9개 고을의 기우제 또한 시행했다고 하며 차례로 보고가 왔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무신년 5월 30일 바침.

0206. 1848년(헌종 14) 6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5b~555b)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5b~36a)

臣海州牧龍塘浦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爲白乎旂，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初一日封。

저는 해주목 용당포의 기우제를 시행한 후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초1일 바침.

## 0207. 1848년(헌종 14) 6월 5일(양력 7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5b~555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6a~37a)

海州牧祈雨祭, 再次設行後, 還營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今六月初四日, 龍首山三次祈雨祭, 臣適患暑泄, 無以將事, 使本牧判官金獻淳虔誠設行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遂安·平山·兎山·殷栗·豐川·白川等六邑, 祈雨祭亦爲次第設行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粳·小麥已盡收穫, 早黍·粟三耘垂畢, 晚黍·粟·唐稷三耘伊始, 而莖葉間多萎枯, 早稻·木綿過半再耘, 晚稻初耘已畢, 而秧坂舉皆龜坼, 移插無望, 豆·太·木麥方張播種, 而土脈燥硬, 先播者未能吐芽, 松禾段, 去五月三十日驟雨, 霎時霑下, 所得爲二犁, 田畝各穀幸得解渴, 信川得一鋤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幾皆刈取, 早黍·粟過半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再耘垂畢, 早稻·木綿間間再<耘>, 晚稻幾盡初耘, 豆·太·木麥今始耕播, 而連因嘆乾, 秧坂在在龜坼, 禾苗之未移者, 已無可言, 且以堰洑引水處先播者言之, 乾涸已久, 鋤役愆期, 田種段置, 黍·粟·唐稷間或向萎, 豆·太·木麥, 尙多未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道內農形, 毋論沿峽, 一直亢旱, 烈陽愈曝, 田種各穀無不受損, 至於未移之秧苗, 節序漸晚, 餘望無幾, 而連舉圭璧, 雨意漠然, 言念民事, 去益渴悶乙仍于, 列邑祈雨祭, 各別虔誠連爲設行之意, 另加申飭爲白乎旆, 嗣後形止, 更待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初五日封.

해주목에서 기우제를 재차 시행한 후 감영에 돌아온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이번 6월 초4일 용수산 3차 기우제의 경우, 제가 마침 설사로 아파 제사를 지낼 수 없어 본 해주목 판관 김현순을 시켜 정성스럽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수안·평산·토산·은율·풍천·배천 등 6개 고을의 경우 기우제를 차례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수확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줄기와 잎이 그사이에 대부분 시들어 말랐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초벌갈이를 이미 마쳤는데, 못자리는 거의 모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옮겨 심을 가망이 없습니다. 콩·팥·메밀은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마르고 딱딱해 먼저 뿌린 씨앗은 제대로 싹이 트지 못했습니다. 송화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소나기가 순식간에 주룩주룩 내렸는데 내린 것은 2려여서 논밭의 각종 곡식은 다행히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신청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거의 모두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더러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가뭄으로 인해 못자리는 곳곳마다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옮겨 심지 못한 벼모는 이미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 독과 보에서 물을 끌어들여 먼저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 말하자면 마른 것이 이미 오래되어 김매기 일은 기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밭에 뿌린 곡식의 경우, 기장·조·수수는 더러 시들어가고 콩·팥·메밀은 아직 대부분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도내 농사 상황의 경우 물가나 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줄곧 가뭄이 들고 뜨거운 햇볕이 더욱 내리쬘니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손상을 받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옮겨 심지 못한 벼모의 경우 절기가 점차 늦어져 남은 가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연이어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 올 조짐은 아득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애타게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기우제는 각별히 정성스럽게 연이어 시행하라는 뜻으로 별도로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초5일 바침.

## 0208. 1848년(헌종 14) 6월 6일(양력 7월 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5d~556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7a~37b)

道內農形及祈雨祭連爲設行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六月初五日巳時始雨，或霏或灑，初六日丑時仍爲開霽，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渴望之餘，得此甘澍，雖有霑潤之效，終斬一需，民事切悶，各邑形止，待其報來，隨即登聞計料爲白乎跡，長淵縣祈雨祭，今月初四日設行是如。牒呈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初六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한 사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5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축시에 그대로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록 촉촉이 젖는 효과는 있었지만 끝내 한바탕 쏟아지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걱정입니다.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장연현의 기우제는 이번 달 초4일에 시행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초6일 바침.



0209. 1848년(헌종 14) 6월 9일(양력 7월 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7책(556a~556a) / 黃海監營狀啓謄錄 7책(37b~38a)

今六月初六日臣營下得雨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延安·白川得一犁, 海州·康翎得二鋤, 襄津·信川·瑞興·載寧等四邑, 得一鋤, 平山·文化·長淵·松禾等四邑, 泥塵是如爲白有在乎, 此外列邑雨澤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初九日封.

이번 6월 초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안·배천은 1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은 2서가 내렸고, 웅진·신천·서흥·재령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산·문화·장연·송화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밖의 여러 고을의 우택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초9일 바침.

## 0210. 1848년(헌종 14) 6월 11일(양력 7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7a~557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39b~39b)

今六月初六日之雨, 延安等十二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兎山得二犁, 金川得二鋤, 新溪·鳳山得一鋤, 黃州·安岳·豐川·遂安等四邑浥塵, 而兎山段, 所得稍洽, 祈雨祭停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秧節已晚, 雨澤若是靳閼, 民事去益渴悶乙仍于, 祈雨祭已設行之海州等十六邑, 連爲虔禱之意, 更加申飭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十一日封.

이번 6월 6일의 비로 연안 등 12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토산은 2려가 내렸고, 금천은 2서가 내렸고, 신계·봉산은 1서가 내렸고, 황주·안악·풍천·수안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토산의 경우 내린 것이 조금 넉넉하여 기우제를 중지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모내기는 절기가 이미 늦었고 우택은 이렇게 드물어 백성들의 사정은 갈수록 애가 탑니다. 기우제를 이미 시행한 해주 등 16개 고을에 연이어 제사 지내라는 뜻으로 다시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11일 바침.

## 0211. 1848년(헌종 14) 6월 15일(양력 7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7b~557c)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40a~40b)

道內農形及海州等十六邑祈雨祭, 連爲虔禱緣由, 前已連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松禾·新溪·載寧等三邑, 祈雨祭亦爲設行是如是白遣,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胚胎, 晚黍·粟·唐稷方張三耘, 早稻·木綿幾皆再耘, 晚稻過半再耘, 豆·太·木麥始或立苗, 而早[旱]災孔酷, 黍·粟木綿莖葉間多白乾, 畚庫段, 堰洑俱涸, 灌溉已絕, 先移之禾苗在在萎黃, 至於如間乾播處, 立苗幾稀, 從而萎枯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間或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伊始, 早稻·木綿方張再耘, 晚稻今始再耘, 豆·太·木麥間間吐芽, 而連因旱乾, 田種各穀無不受損, 畚庫無論高低, 到底乾涸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旆. 臣營下今六月十五日辰時始雨, 間間霏微, 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分是白如乎, 初庚不遠, 亢旱轉甚, 言念民事, 去益憂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十五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해주 등 16개 고을에서 기우제를 연이어 지낸 연유는 앞서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송화·신계·재령 등 3개 고을에서도 기우제를 또한 시행했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싹이 돋았습니다. 가뭄 재해가 심해 기장·조·목화의 줄기와 잎은 그사이 대부분 하얗게 말랐고 논의 경우, 득과 보가 모두 말라 물을 대는 것은 이미 끊어졌고 먼저 옮겨 심은 벳모는 곳곳이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얼마간 마른 논에 씨앗을 뿌린 곳의 경우, 싹이 돋은 것이 거의 드물었고 따라서 말라 시들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혹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올벼·목화

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싹이 났습니다. 연이은 가뭄으로 인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으며 논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 따질 것 없이 이르는 곳마다 말랐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5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푼이었습니다. 초복이 멀지 않았는데 가뭄은 오히려 심해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 걱정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15일 바침.

0212. 1848년(헌종 14) 6월 19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7c~557c)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40b~41a)

臣營下今六月十五日得雨二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豐川·平山得一犁，殷栗·黃州·鳳山·瑞興·長湍·新溪等六邑，得一鋤，海州·康翎·信川·文化·安岳·載寧·延安等七邑浥塵，而豐川·平山段，所得稍洽，祈雨祭姑爲停止是如。爲等如，牒呈是白如乎，餘外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隨即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5일 내린 비가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풍천·평산은 1려가 내렸고, 은율·황주·봉산·서흥·장연·신계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해주·강령·신천·문화·안악·재령·연안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풍천·평산의 경우 내린 것이 조금 넉넉해 기우제를 일단 정지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19일 바칩.

0213. 1848년(헌종 14) 6월 21일(양력 7월 2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7c~557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41a~41a)

今六月十五日之雨, 豐川等十五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松禾得二犁, 遂安得一犁, 谷山·金川·兔山·白川等四邑, 得二鋤, 而松禾·遂安祈雨祭, 姑爲停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見今初庚奄過, 一霈終斬, 未移畚庫, 已爲失節, 民情去益遑汲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二十一日封.

이번 6월 15일의 비로 풍천 등 15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송화는 2려가 내렸고, 수안은 1려가 내렸고, 곡산·금천·토산·배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송화·수안의 기우제는 일단 중지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초복이 지났는데 한바탕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모를 옮겨 심지 못한 논은 이미 절기를 잃어버려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다급해졌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21일 바침.

## 0214. 1848년(헌종 14) 6월 26일(양력 7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8b~558c)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42b~43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發穗, 晚黍·粟·唐稷今方胚胎, 早稻·木綿方張三耘, 晚稻間或三耘, 豆·太·木麥過半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已盡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垂畢, 早稻·木綿三耘伊始, 晚稻幾皆再耘, 豆·太·木麥次第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見今中庚, 只餘二日, 節序已晚, 雖有大需, 移秧一款, 更無可論, 言念民事, 不勝罔措是白乎旆, 各邑祈雨祭, 或爲十一二次, 或爲八九次, 而一向將事, 反涉瀆屑是白乎等以. 祈雨祭一併停止.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二十六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알을 배고, 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배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중복이 단지 2일 남았고 절기는 이미 늦어서 비록 크게 비가 쏟아지더라도 모내기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다시 따질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각 고을의 기우제는 더러 11·12차례 지내기도 하고 더러 8·9차례 지내기도 했는데 줄곧 제사를 지낸다면 도리어 신령을 더럽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우제를 모두 정지한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26일 바침.

0215. 1848년(헌종 14) 6월 28일(양력 7월 2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9c~559c)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45a~45b)

道內農形及祈雨祭停止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六月二十七日卯時始雨, 戌時止, 測雨器水深爲五寸二分是白如乎, 渴望之餘, 得此大霈, 誠爲多幸是白乎旆, 列邑得雨形止及農形, 待其報來, 隨即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二十八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기우제 중지 사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7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2푼이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크게 쏟아졌으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28일 바침.



0216. 1848년(헌종 14) 6월 29일(양력 7월 2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7책(559c~559d) / 黃海監營狀啓謄錄 7책(45b~45b)

今六月二十七日, 臣營下得雨五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六月二十八日午時又爲始雨, 或霖或灑, 至二十九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 列邑雨澤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六月二十九日封.

이번 6월 27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8일 오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6월 29일 바침.

## 0217. 1848년(헌종 14) 7월 3일(양력 8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61d~562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0a~50b)

臣營下去六月二十七日八日雨澤形止, 已爲連續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二十七八日之雨, 海州·康翎·襄津·殷栗·信川·白川·金川等七邑, 川渠漲流, 長湍·文化·載寧·黃州·鳳山·延安等六邑, 得二犁, 長連·瑞興·新溪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七月初一日寅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初二日戌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 而陰雲四低, 雨意尙濃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七月初三日封.

저의 감영의 지난 6월 27일·28일 우택의 경위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바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7일·28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은율·신천·배천·금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장연·문화·재령·황주·봉산·연안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장련·서흥·신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사방에 깔리면서 비올 조짐이 여전히 짙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초3일 바침.

## 0218. 1848년(헌종 14) 7월 5일(양력 8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62d~563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2b~53a)

去六月二十七八日之雨, 海州等十六邑得雨形止及今七月初一二日臣營下得雨四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七八日之雨, 安岳·平山·遂安等三邑, 川渠漲流, 松禾·豐川·谷山等三邑, 得二犁, 菟山得一犁是如爲白乎旆, 初二日之雨, 海州·康翎·長淵·松禾·白川·金川等六邑, 川渠漲流, 襄津·信川·延安等三邑, 得二犁, 載寧·鳳山得一犁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七月初五日封.

지난 6월 27·28일의 비로 해주 등 16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이번 7월 초1·2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7·28일의 비로 안악·평산·수안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송화·풍천·곡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토산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1·2일의 비로 해주·강령·장연·송화·배천·금천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웅진·신천·연안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재령·봉산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초5일 바침.

## 0219. 1848년(헌종 14) 7월 7일(양력 8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63d~564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4b~55b)

今七月初一二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長連·黃州·瑞興·遂安·新溪·兔山·谷山等八邑, 川渠漲流, 豐川·文化得二犁, 殷栗·平山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入實, 晚黍·粟·唐稷方張發穗, 早稻·木綿已盡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間或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過半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間胚胎, 早稻·木綿幾盡三耘, 晚稻方始三耘, 豆·太·木麥舉皆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去月二十七日及今月初一日兩次雨澤, 雖已晚時, 峽野均洽, 田種各穀, 毋論早晚, 因旱萎黃者, 舉有霑潤之效, 畚庫段, 未移秧全棄十居七八, 而已無可論是白乎矣, 水付及乾播之乾涸焦枯者, 庶有蘇醒之望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七月初七日封.

이번 7월 초1·2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장련·황주·서흥·수안·신계·토산·곡산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풍천·문화는 2려가 내렸고, 은율·평산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알이 들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벼·목화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간이 알을 배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 및 이번 달 초1일 두 차례 우택은 비록 이미 때가 늦었지만 골짜기나 들에  
골고루 적셔주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올곡이든 늦곡이든 따질 것 없이 가뭄으  
로 누렇게 시든 것이 대부분 축축이 젖는 효과가 있었고 논외의 경우 모내기하지 못해  
전부 포기한 것이 10 중 8, 9나 되어 이미 따질 만한 것이 없지만, 무논이든 마른 논이든  
벼씨를 뿌렸는데 말라서 시든 것은 거의 살아날 가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초7일 바침.

0220. 1848년(헌종 14) 7월 12일(양력 8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64a~564b)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5b~55b)

臣營下今七月初十日酉時始雨，或霏或灑，十一日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遣，東風兼作，終夜不止，發穗之黍·粟，開花之木綿，不無受損之慮是白如乎，列邑風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七月十二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10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동풍이 아울러 불어 밤새도록 그치지 않아 이삭이 팬 기장·조와 꽃이 핀 목화는 손상을 입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에 바람이 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12일 바침.

0221. 1848년(헌종 14) 7월 16일(양력 8월 1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67d~567d)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62b~63a)

今七月十一日臣營下得雨一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康翎·甕津·信川·載寧等四邑, 得二犁, 海州·豐川·殷栗·松禾·文化·鳳山·新溪·白川等八邑, 得一犁, 長湍得二鋤, 延安·瑞興得一鋤, 而海州·新溪兩邑, 東風兼作, 田種各穀受損非細是如爲白乎旅. 臣營下今七月十四日酉時始雨, 或霏或灑, 十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五寸九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七月十六日封.

이번 7월 11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령·웅진·신천·재령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풍천·은율·송화·문화·봉산·신계·배천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은 2서가 내렸고, 연안·서흥은 1서가 내렸습니다. 해주·신계 2개 고을의 경우 동풍이 아울러 불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4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16일 바침.

## 0222. 1848년(헌종 14) 7월 19일(양력 8월 1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67d~568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63a~63b)

今七月十一日之雨, 康翎等十五邑雨澤形止及臣營下今月十六日卯時至, 得雨五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一日之雨, 長連·黃州得一犁, 平山得二鋤, 金川得一鋤是如爲白遣, 十六日之雨, 海州·康翎川渠漲流, 延安得二犁, 白川得二鋤是如爲白乎跡.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始向熟, 晚黍·粟·唐稷幾皆入實, 早稻方張胚胎, 木綿今始起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再耘伊始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皆發穗, 早稻間或胚胎, 木綿始或起花, 晚稻過半三耘, 豆·太·木麥初耘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七月十九日封

이번 7월 11일의 비로 강령 등 15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내린 비가 5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1일의 비로 장련·황주는 1려가 내렸고, 평산은 2서가 내렸고, 금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16일의 비로 해주·강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연안은 2려가 내렸고, 배천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막 익어가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벼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는 간혹 알을 배고, 목화는 더러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19일 바침.

## 0223. 1848년(헌종 14) 7월 21일(양력 8월 1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69a~569b)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65b~66a)

今七月十六日之雨, 海州等四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甕津·安岳·平山·瑞興·長連·文化·鳳山·殷栗·豐川·新溪等十邑, 大小川渠, 無不漲流, 遂安·金川·松禾·菟山·谷山等五邑, 得一犁, 而新溪段, 獐風兼作, 早晚黍·粟, 率多披靡是如爲白乎旆, 載寧·信川·黃州·長淵等四邑段, 傍川低下之處, 漲潦汎溢, 民家田畝, 多有沈沒之患, 待水退摘奸, 更報計料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旱餘方蘇之各穀, 暴漲而沈曳, 獐風而磨蕩, 受災非細, 至於民家之漂沒, 尤極驚心乙仍于, 被災淺深, 一一摘奸馳報之意, 嚴飭各該邑爲白如乎, 待其報來, 隨即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  
乎事.

戊申七月二十一日封.

이번 7월 16일의 비로 해주 등 4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안악·평산·서흥·장린·문화·봉산·은율·풍천·신계 등 10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수안·금천·송화·토산·곡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계의 경우 사나운 바람이 아울러 일어나 올기장·올조·늦기장·늦조는 대부분 쓰러졌다고 하였습니다. 재령·신천·황주·장연 등 4개 고을의 경우 시냇가나 낮은 곳은 물이 불어나 범람하여 백성 집과 논밭이 잠기게 될 우려가 많은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보고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가뭄 끝에 막 살아나던 각종 곡식은 맹렬히 불어난 물에 깊이 잠겼고, 사나운 바람에 휩쓸려서 입은 재해가 적지 않습니다.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잠긴 일의 경우, 더욱 놀란 마음 그지없습니다. 입은 재해가 얕은지 깊은지를 하나하나 캐보고 긴급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마을에 각각 엄히 지시했습니다.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21일 바침.

## 0224. 1848년(헌종 14) 7월 28일(양력 8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70b~570c)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68b~69b)

今七月十六日列邑雨水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漲水, 新溪·平山·金川·鳳山·瑞興·長連·殷栗·海州等八邑段, 傍川低下之處, 民家田畝, 多有頽壓沈潰之患, 詳細摘奸更報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刈取, 晚黍·粟·唐稷, 次第向熟, 早稻方張發穗, 木綿已盡開花, 晚稻過半胚胎, 豆·太·木麥再耘垂畢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皆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入實, 早稻幾盡胚胎, 木綿今方起花, 晚稻間或胚胎, 豆·太·木麥, 再耘伊始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及被災淺深, 待其齊報, 隨即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七月二十八日封.

이번 7월 16일 여러 고을에 빗물의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물이 불어나 신계·금천·평산·봉산·서흥·장련·은율·해주 등 8개 고을의 경우 시냇가 낮은 곳의 백성 집과 논밭은 무너지고 잠기고 터질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세히 캐보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익어갔고, 올벼는 한창 이삭이 났고, 목화는 이미 다 꽃이 피었고, 늦벼는 절반 이상 알을 났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익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올벼는 거의 다 알을 났고, 목화는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는 간혹 알을 났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재해 입은 것이 얕은지 깊은지는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7월 28일 바침.

## 0225. 1848년(헌종 14) 8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70d~582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70a~84b)

去七月十六日雨水，道內各邑民戶漂頽堰垵潰決形止，待摘奸更報，隨即登聞計<料>。緣由，前已馳啓爲白有在果，卽接各邑所報是白乎則，瑞興府段，邑內坊民家漂流爲一戶，全頽爲十戶是如爲白乎旆，平山府段，金巖坊民家全頽爲十二戶是如爲白乎旆，黃州牧段，慕聖坊人物淹死爲一名，而屍身未拯得，齊安坊民家全頽爲一百十九戶，半頽爲五十戶，仁濟坊人物淹死爲一名，而屍身已爲拯得，民家全頽爲十六戶，半頽爲二十五戶是如爲白乎旆，信川郡段，馬山坊民家漂流爲一戶，全頽爲一戶，東部坊民家全頽爲五戶，西部坊民家全頽爲一戶，陵垵防[陵垵坊]民家全頽爲四戶，加介坊民家全頽爲一戶，大井坊民家全頽爲八戶，於項左坊民家全頽爲六戶，於項右坊民家全頽爲二戶，加山左坊民家全頽爲二戶，加山右坊民家全頽爲一戶，魚蘆坊民家全頽爲一戶，聲月坊民家全頽爲四戶，邑內坊民家全頽爲八戶，潰決垵畓爲六百三十七石十二斗落，田爲二百六日耕是如爲白乎旆，金川郡段，郡內坊民家全頽爲十四戶，江北面民家全頽爲三十三戶，古縣坊民家全頽爲一戶是如爲白乎旆，新溪縣段，沙里谷坊民家漂流爲六戶，全頽爲十戶是如爲白乎旆，載寧郡段，柳洞坊人物淹死爲一名，而屍身已爲拯得，右里坊民家全頽爲十戶，城垣坊民家全頽爲二十五戶，半頽爲十五戶，三支江坊民家漂流爲八戶，全頽爲四十八戶，半頽爲四十二戶，銀叱只坊民家全頽爲十戶，半頽爲六戶，栗串坊民家全頽爲三十七戶，半頽爲三十六戶，清水里坊民家全頽爲二戶，半頽爲二戶，左里坊民家半頽爲六戶，潰決垵畓爲一千五百八十七石八斗落是如爲白乎旆，海州牧段，檢丹坊民家全頽爲十二戶，青山坊民家全頽爲十戶，成川覆沙畓爲三石十八斗落，田爲六十八日耕是如爲白乎旆，長連縣段，水沈覆沙畓爲五十七石十七斗五升落是如爲白乎旆，殷栗縣段，水沈覆沙畓爲三十六石四斗落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今此十邑之水災，挽近罕有，人物淹死爲三名，民家漂頽爲四百三十戶，半頽爲一百八十二戶，潰垵畓爲二千二百二十五石落，田爲二百六日耕，覆沙畓爲三十二石十一斗五升落，田爲三十七日耕，水沈畓爲六十四石十二斗落，成川畓爲十六斗落，田爲三十一日耕是白如乎，被災之若是夥多，萬萬驚慘乙仍于，分遣編裨，使之一邊摘奸，一邊慰撫是白加尼，其所回告，與邑報無異是白乎等以。原恤典，以各該邑所在常賑穀，依例題給，亦自臣營，別加助給是白遣，漂頽戶結構之方，潰垵修築之功，淹死人已拯屍埋瘞之需，

未拯屍搜拯之節，另加申飭於各其地方官，半額戶段，與全額有異，容可修葺而入處，故原恤典，不爲舉論爲白乎跡，滄死人役·姓名·年歲及漂額戶家舍間數，潰垆覆沙水沈成川處，區別宮畜·民畜，開錄于後，而恤典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跡，鳳山·長淵段，待摘奸褊裨回告，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7월 16일 빗물로 황해도 내 각 고을의 백성 가구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독과 물막이가 터진 경위는 캐보아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려 즉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즉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서흥부의 경우, 읍내방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이 10가구라고 합니다. 평산부의 경우, 금암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2가구라고 합니다. 황주목의 경우, 모성방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건지지 못했습니다, 제안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19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50가구, 인제방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이미 건졌습니다. ,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6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25가구라고 합니다. 신천군의 경우, 마산방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 동부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5가구, 서부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 능동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4가구, 가개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 대정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8가구, 어항좌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六가구, 어항우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2가구, 가산좌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2가구, 가산우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 어로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 성월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4가구, 읍내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8가구, 물막이가 터진 논은 637섬 12두락, 밭은 206일경이라고 합니다. 금천군의 경우, 군내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4가구, 강북면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33가구, 고현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라고 합니다. 신계현의 경우, 사리곡방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6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이 10가구라고 합니다. 재령군의 경우, 유동방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이미 건졌습니다. 우리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0가구, 성원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25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15가구, 삼지강방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8가구, 완전히 무너진 것이 48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42가구, 은질지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0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6가구, 울꽃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37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36가구, 청수리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2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2가구, 좌리방의 백성 집 중 반쯤 무너진 것이 6가구, 물막이가 터진 논이 1,587섬 8두락이라고 합니다. 해주목의 경우, 검단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2가구, 청산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0가구, 시내가 되고 모래로 덮인 논이 3섬 18두락, 밭이 68일경이라고 합니다. 장련현의 경우, 물에 잠기고 모래로 덮인 논이 57섬 17말 5두락이라고 합니다. 은율현의 경우, 물에 잠기고 모래로 덮인 논이 36섬 4두락이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10개 고을의 수재는 최근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430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182가구, 물막이가 터진 논이 2,225섬지기, 밭이 206일경, 모래로 덮인 논이 32섬 11말 5되지기, 반이 37일경, 물에 잠기고 논이 64섬 12두락, 시내가 된 논이 16두락, 밭이 31일경입니다. 재해 입은 이처럼 많으니 매우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비서를 나눠 파견하여 한편으로는 캐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위로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와 아뢰는 것은 고을의 보고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본 구호는 해당 각 고을에 있는 상진곡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었고 또한 저의 감영에서도 별도로 도와주려고 떠내려간 가구의 집을 지어주는 방법, 터진 물막이를 쌓는 노력,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내서 매장하는 물품, 건져내지 못한 시체를 뒤져 건져내는 항목을 별도로 각 지방관에게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반쯤 무너진 가구의 경우, 완전히 무너진 것과 차이가 있어 더러 수리하여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구호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빠져 죽은 사람의 직책, 성명 및 떠내려간 가구의 건물 칸수, 물막이가 터지고 모래로 덮이고 물에 잠겨 시내가 된 곳은 궁논·백성 논으로 구별하여 뒤에 기록했습니다. 구호 정책은 진홀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관청에서 규정대로 회계 처리토록 하게 해주십시오. 봉산·장연의 경우, 캐본 비서가 돌아와 아뢰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226. 1848년(헌종 14) 8월 6일(양력 9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83a~583a)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86a~86b)

臣營下今八月初四日戌時始雨，或霏或灑，初五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如  
乎，列邑雨澤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八月初六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4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8월 초6일 바침.

## 0227. 1848년(헌종 14) 8월 8일(양력 9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583a~583b) / 黃海監營狀啓臚錄 7책(86b~87a)

今八月初五日臣營下得雨一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延安得二犁, 海州·康翎·襄津·松禾·白川等五邑, 得一犁, 長淵·信川·文化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刈取, 晚黍·粟·唐稷過半成熟, 早稻舉皆發穗, 木綿次第結窠, 晚稻今方發穗, 豆·太·木麥間間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始或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或向熟, 早稻今始發穗, 木綿已盡起花, 晚稻幾皆胚胎, 豆·太·木麥再耘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八月初八日封.

이번 8월 초5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안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웅진·송화·배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신천·문화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익었고,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가 맺혔고, 늦벼는 지금 막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더러 꽃이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혹 익어갔고, 올벼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목화는 이미 다 꽃이 피었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을 맺고, 콩·팥·메밀은 두벌 감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8월 초8일 바침.



0228. 1848년(헌종 14) 8월 12일(양력 9월 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8책(591c~591c) / 黃海監營狀啓謄錄 8책(2a~2a)

今八月初五日之雨, 延安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谷山得二犁, 遂安·新溪·金川等三邑, 得一犁, 兎山·黃州·安岳等三邑, 得二鋤, 瑞興·鳳山·載寧·殷栗·豐川等五邑, 得一鋤, 平山浥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道內農形, 既經旱災, 又被水害, 田畝各穀, 多有受損, 爲念民事, 誠爲悶然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八月十二日封.

이번 8월 초5일의 비로 연안 등 9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곡산은 2려가 내렸고, 수안·신계·금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토산·황주·안악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서흥·봉산·재령·은율·풍천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평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이미 가뭄 재해를 겪었고 또 수해를 당해 논밭의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은 것이 많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니 정말로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8월 12일 바침.

0229. 1848년(헌종 14) 8월 18일(양력 9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592b~592c) /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3b~4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 今方刈取, 早稻次第入實. 木綿今始綻綿, 晚稻幾皆發穗, 豆·太·木麥, 已盡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舉皆成熟, 早稻幾盡發穗. 木綿過半結穎, 晚稻方張發穗, 豆·太·木麥, 間間起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日候調順, 晚種各穀, 庶有成就之望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八月十八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목화는 솜이 터지기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익었고,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절반 이상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꽃이 피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순조로워 씨앗을 늦게 뿌린 각종 곡식은 아마도 여물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8월 18일 바침.

0230. 1848년(헌종 14) 8월 21일(양력 9월 1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592c~592c) /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4a~4a)

臣營下今八月二十一日巳時始雨, 間間霏灑, 至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八月二十一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21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8월 21일 바침.

0231. 1848년(헌종 14) 8월 25일(양력 9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592c~592d) /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4a~4b)

今八月二十一日臣營下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康翎得一犁, 襄津得二鋤, 海州·載寧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八月二十五日封.

이번 8월 21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령은 1려가 내렸고, 웅진은 2서가 내렸고, 해주·재령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8월 25일 바침.

## 0232. 1848년(헌종 14) 8월 28일(양력 9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593c~593d) /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6a~6b)

今八月二十一日之雨, 康翎等四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得一犁, 黃州得二鋤, 白川·瑞興浥塵是如爲白乎旂.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 已盡刈取, 早稻方張向熟. 木綿間摘取, 晚稻次第入實, 豆·太·木麥, 幾皆結穀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或刈穫, 早稻始或入實. 木綿今始綻綿, 晚稻幾皆發穗, 豆·太·木麥, 今方結穀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八月二十八日封.

이번 8월 21일의 비로 강령 등 4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은 1려가 내렸고, 황주는 2서가 내렸고, 배천·서흥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 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한창 익어갔고, 목화는 지금 솜이 터지기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으며, 콩·팥·메밀은 지금 막 꼬투리를 맺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혹 베어 수확했고, 올벼는 비로소 더러 알이 들고, 목화는 지금 솜이 터지기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꼬투리를 맺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8월 28일 바침.

0233. 1848년(헌종 14) 9월 5일(양력 10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595d~595d) /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10b~10b)

臣營下今九月初五日丑時始雨, 間間霏灑, 至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九月初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9월 초5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9월 초5일 바침.

## 0234. 1848년(헌종 14) 9월 8일(양력 10월 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598c~598d) /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14a~14b)

今九月初五日, 臣營下得雨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得二鋤, 延安·白川得一鋤, 載寧·信川·襄津等三邑沍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已盡成熟, 間間刈穫, 木綿過半摘取, 晚稻方張向熟, 豆·太·木麥, 舉皆入實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菟山·金川·平山等十邑, 早稻今方向熟, 木綿方張摘取, 晚稻幾皆成實, 豆·太·木麥, 次第入實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九月初八日封.

이번 9월 초5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은 2서가 내렸고, 연안·  
배천은 1서가 내렸고, 재령·신천·웅진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벼는 이미 다 익어서 간간이 베어 수확했고, 목화는 절반 이상 따서  
거뒀고, 늦벼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콩·팥·메밀은 대부분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령·황  
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벼는 지금 막 익어가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여물었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알이 들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  
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9월 초8일 바침.

0235. 1848년(헌종 14) 9월 11일(양력 10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598d~599a) / 黃海監營狀啓臚錄 8책(14b~14b)

卽接各邑所報, 則海州·金川, 今九月初五日夜霜降, 瑞興·安岳·白川·平山·載寧·康翎等六邑, 初七日夜霜降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知乎, 列邑災實分等, 待概狀之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戊申九月十一日封.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금천은 이번 9월 초5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서흥·안악·배천·평산·재령·강령 등 6개 고을은 초7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 등급은 개요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무신년 9월 11일 바침.



0236. 1850년(철종 1) 3월 15일(양력 4월 28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681c~681c)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67b~67b)

臣營下今三月十四日辰時始雨, 或霏或灑,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三月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1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3월 15일 바침.

### 0237. 1850년(철종 1) 3월 16일(양력 4월 2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683a~683b)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1a~71b)

今三月十四日臣營下得雨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松禾·黃州等三邑, 得一犁. 康翎·甕津·信川·載寧·文化·延安·白川·平山·新溪等九邑, 得一鋤. 瑞興·殷栗<兩邑>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耨·小麥, 日漸向青, 春耨次第立苗, 早黍·粟幾盡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耨·小麥, 幾皆抽芽, 春耨耕播垂畢, 早黍·粟[粟]間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三月十六日封.

이번 3월 1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송화·황주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신천·재령·문화·연안·배천·평산·신계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흥·은율 2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3월 16일 바침.

0238. 1850년(철종 1) 3월 21일(양력 5월 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685c~685c)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5a~75a)

今三月十四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兔山得二鋤. 谷山·豐川·金川等三邑, 得一鋤. 遂安·鳳山·安岳等三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三月二十一日封.

이번 3월 14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토산은 2서가 내렸고, 곡산·풍천·금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수안·봉산·안악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3월 21일 바침.

### 0239. 1850년(철종 1) 3월 27일(양력 5월 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686a~686b)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6b~77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牟·小麥, 次第茁長, 春牟日漸向青, 早黍·粟方張立苗, 晚黍·粟·唐稷, 幾盡畊播, 早稻·木綿, 今始耕播.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牟·小麥, 漸次向青, 春牟已盡立苗, 早黍·粟間間吐芽, 晚黍·粟·唐稷, 今始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三月二十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더러 싹이 텄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3월 27일 바침.

## 0240. 1850년(철종 1) 4월 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694c~694d)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95a~95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始或胚胎, 春麴今方茁茂,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唐稷, 間或出土, 早稻·木綿, 已盡落種, 晚稻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已盡茁茂, 春麴日漸向長, 早黍·粟間間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盡耕播, 早稻·木綿, 始或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四月初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더러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봄보리는 지금 막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이미 다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싹이 무성해졌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자라나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비로소 더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4월 초7일 바침.

## 0241. 1850년(철종 1) 4월 16일(양력 5월 2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00c~700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06b~107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間或發穗, 春麴·小麥, 今始胚胎, 早黍·粟初耘伊始, 晚黍·粟·唐稷, 方張立苗, 早稻·木綿, 間間立種, 晚稻耕播垂畢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次第胚胎, 春麴·小麥, 已盡茁長, 早黍·粟, 幾皆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或出土, 早稻·木綿, 方張耕播, 晚稻今始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旆. 臣營下今四月十五日辰時始雨, 或霏或灑, 至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是白如乎, 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四月十六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이삭이 났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이삭이 배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가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더러 싹이 나왔고, 늦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을 배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싹이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벼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5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4월 16일 바침.

0242. 1850년(철종 1) 4월 18일(양력 5월 29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00d~701a)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07b~107b)

臣營下今四月十五日得雨二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信川·文化·松禾·豐川·黃州等七邑, 得二犁, 甕津·延安·白川·長湍等四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四月十八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5일 내린 비가 2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신천·문화·송화·풍천·황주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웅진·연안·배천·장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4월 18일 바침.

### 0243. 1850년(철종 1) 4월 19일(양력 5월 3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01b~701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08b~109a)

今四月十五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新溪川渠漲流, 谷山·鳳山·平山·安岳等四邑, 得二犁. 載寧·瑞興·長連·金川等四邑, 得一犁. 殷栗·菟山得二鋤是如爲白乎跡. 臣營下今四月十八日巳時始雨, 或灑或霏, 至十九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 列邑雨澤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四月十九日封.

이번 4월 15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신계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곡산·봉산·평산·안악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재령·서흥·장린·금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토산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8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9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4월 19일 바침.



0244. 1850년(철종 1) 4월 22일(양력 6월 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03a~703b)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12a~112b)

臣營下今四月十九日得雨三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川渠微漲, 康翎·延安得二犁, 金川·新溪得一犁, 平山得二鋤, 白川·鳳山·黃州·瑞興·冤山等五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四月二十二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9일 내린 비가 3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고, 강령·연안은 2려가 내렸고, 금천·신계는 1려가 내렸고, 평산은 2서가 내렸고, 배천·봉산·황주·서흥·토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4월 22일 바침.

## 0245. 1850년(철종 1) 4월 26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03c~703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13a~113b)

今四月十九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甕津·遂安得一犁, 長淵·豐川·谷山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方張發穗, 春粳·小麥, 幾皆胚胎, 早黍·粟過半初耘, 晚黍·粟·唐稷, 間或入鋤, 早稻·木綿, 幾盡立苗, 晚稻今始出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今始發穗, 春粳·小麥, 始或胚胎, 早黍·粟今方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立苗, 早稻·木綿, 間間出土, 晚稻耕播垂畢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四月二十五日巳時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六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如乎, 嗣後農形及各邑雨澤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四月二十六日封.

이번 4월 19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수안은 1려가 내렸고, 장연·풍천·곡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봄보리·봄밀은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차례로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늦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5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의 우택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4월 26일 바침.

## 0246. 1850년(철종 1) 4월 29일(양력 6월 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03d~704a)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13b~114b)

臣營下今四月二十六日得雨二寸七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襄津·延安等三邑，川渠漲流，康翎·載寧·信川·文化·松禾等五邑，得二犁，殷栗·鳳山·瑞興等三邑，得一犁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各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四月二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6일 내린 비가 2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연안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강령·재령·신천·문화·송화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은율·봉산·서흥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4월 29일 바침.

0247. 1850년(철종 1) 5월 2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04c~705a)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15b~116a)

去四月二十六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新溪·谷山川渠漲流, 金川·安岳得二犁, 長淵·豐川白川黃州·遂安·冤山等六邑, 得一犁, 長連·平山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初二日封.

지난 4월 26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계·곡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금천·안악은 2려가 내렸고, 장연·풍천·배천·황주·수안·토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린·평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초2일 바침.

## 0248. 1850년(철종 1) 5월 7일(양력 6월 1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05c~705d)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17b~118a)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幾皆入實, 春粳·小麥, 已盡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 過半初耘, 早稻·木綿, 今始入鋤, 晚稻舉皆立苗, 秧苗始或移插是如爲白乎旅,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間間入實, 春粳·小麥, 次第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初耘, 早稻·木綿, 幾盡立苗, 晚稻今方出土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初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벼모는 비로소 더러 옮겨심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 차례로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지금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초7일 바침.

0249. 1850년(철종 1) 5월 13일(양력 6월 2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07a~707c)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20b~121b)

臣營下今五月十一日酉時始雨，或霏或灑，至十二日亥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十三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1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13일 바침.

## 0250. 1850년(철종 1) 5월 15일(양력 6월 2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08a~708b)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22b~123a)

臣營下今五月十二日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信川·文化·長湍等三邑, 得一犁. 海州·載寧·襄津·延安·殷栗等五邑, 得一犁. 鳳山·新溪得二鋤. 康翎·白川·平山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旂. 臣營下今五月十四日寅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2일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천·문화·장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재령·웅진·연안·은율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봉산·신계는 2서가 내렸고, 강령·배천·평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4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15일 바침.



## 0251. 1850년(철종 1) 5월 18일(양력 6월 27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08c~708d)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23b~124a)

今五月十二日之雨, 信川等十三邑得雨形止及臣營下今五月十四日得雨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二日之雨, 松禾·豐川·安岳·黃州等四邑, 得一犁. 長連·瑞興·兔山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十四日之雨, 谷山得二犁, 康翎·長淵·殷栗等三邑, 得一犁. 海州·延安·載寧·黃州等四邑, 得二鋤. 白川·松禾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次第向熟, 春麴·小麥, 間間入實, 早黍·粟方張再耘, 晚黍·粟·唐稷, 初耘垂畢. 早稻·木綿, 幾皆初除草, 晚稻已盡立苗, 秧苗間多移插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幾盡入實, 春麴·小麥, 方張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初耘. 早稻·木綿, 方始初耘, 晚稻次第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十八日封.

이번 5월 12일의 비로 신천 등 13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4일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2일의 비로 송화·풍천·안악·황주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린·서흥·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14일의 비로 곡산은 2려가 내렸고, 강령·장연·은율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주·연안·재령·황주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배천·송화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용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간간이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벼모는 그사이 에 많이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차례로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18일 바침.

0252. 1850년(철종 1) 5월 19일(양력 6월 28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09c~710a)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26a~127a)

今五月十四日之雨, 谷山等十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川渠漲流, 兎山得二犁. 新溪·瑞興·信川·文化·安岳·長連·豐川等七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十九日封.

이번 5월 14일의 비로 곡산 등 10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토산은 2려가 내렸고, 신계·서흥·신천·문화·안악·장련·풍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19일 바침.

0253. 1850년(철종 1) 5월 26일(양력 7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10c~710d)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27b~128a)

臣營下今五月二十五日辰時始雨，或霏或灑，至申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二十六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5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26일 바침.

## 0254. 1850년(철종 1) 5월 29일(양력 7월 8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10d~712a)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28b~131a)

今五月二十五日臣營下得雨一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黃州得二犁, 海州·載寧·瑞興·長淵·松禾·信川·文化等七邑, 得一犁. 豐川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已盡成熟, 今方刈取, 春麴·小麥, 次第向熟. 早黍·粟舉皆再耘, 晚黍·粟·唐稷, 始或再耘. 早稻·木綿, 初耘垂畢, 晚稻今始入鋤, 秧苗幾皆移插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間間向熟, 春麴·小麥, 漸次入實. 早黍·粟方張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盡初耘. 早稻·木綿, 舉皆初除草, 晚稻過半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五月二十九日封.

이번 5월 25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황주는 2려가 내렸고, 해주·재령·서흥·장연·송화·신천·문화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풍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어 지금 막 베어 거두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했고, 벳모는 거의 다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익어가고, 봄보리·봄밀 점차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5월 29일 바침.

0255. 1850년(철종 1) 6월 2일(양력 7월 1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13a~713a)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33a~133b)

去五月二十五日之雨, 黃州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山·新溪·遂安·谷山等四邑, 川渠漲流. 安岳·金川·兎山等三邑, 得一犁. 康翎·甕津·延安·白川等四邑, 得二鋤. 殷栗·鳳山得一鋤, 長連湍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六月初二日封.

지난 5월 25일의 비로 황주 등 9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산·신계·수안·곡산 등 4개 고을은 시내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안악·금천·토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연안·배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은율·봉산은 1서가 내렸고, 장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6월 초2일 바침.

## 0256. 1850년(철종 1) 6월 9일(양력 7월 17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13c~713d)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34a~134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粳·小麥, 今方刈取, 早黍·粟三耘垂畢, 晚黍·粟·唐稷, 已盡再耘. 早稻·木綿, 過半再耘, 晚稻幾盡初耘. 豆·太·木麥, 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方張刈穫, 春粳·小麥, 舉皆成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多再耘. 早稻·木綿, 方始再耘, 晚稻間或初耘, 秧苗今方移插. 豆·太·木麥, 間間播種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初七日戌時始雨, 或霏或灑, 初九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寸八分是白如乎, 列邑雨澤及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六月初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지금 막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봄밀 대부분 익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그사이에 많이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했고, 벳모는 지금 막 옮겨 심었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7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축시에 이내 개었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 및 이후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6월 초9일 바침.

0257. 1850년(철종 1) 6월 12일(양력 7월 20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14a~714b)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35b~136a)

臣營下今六月初九日得雨六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瑞興·黃州·新溪等五邑, 川渠漲流. 甕津·白川得二犁. 信川·文化·殷栗·鳳山等四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六月十二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9일 내린 비가 6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서흥·황주·신계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웅진·배천은 2려가 내렸고, 신천·문화·은율·봉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6월 12일 바침.



0258. 1850년(철종 1) 6월 14일(양력 7월 2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14d~715a)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37a~137a)

今六月初九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平山·金川·安岳·谷山·遂安等五邑, 川渠漲流, 延安·冤山得二犁. 載寧·長淵·豐川·長連等四邑, 得一犁. 松禾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六月十四日封.

이번 6월 초9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금천·평산·안악·곡산·수안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연안·토산은 2려가 내렸고, 재령·장연·풍천·장려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송화는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6월 14일 바침.

## 0259. 1850년(철종 1) 6월 18일(양력 7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17c~717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42b~143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皆胚胎, 間或發穗, 晚黍·粟·唐稷, 次第三耘. 早稻·木綿, 三耘伊始, 晚稻今方再除草. 豆·太·木麥, 間間立苗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 舉皆刈取, 早黍·粟今始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盡再耘. 早稻·木綿, 過半再耘, 晚稻幾盡初耘, 豆·太·木麥, 耕播垂畢是如爲白乎旃. 臣營下今六月十六日丑時始雨, 或霏或灑, 十七日亥時至, 測雨器水深爲九寸七分, 而陰雲四低, 雨意向濃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六月十八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을 뱉는데 간혹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알을 배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6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치 7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사방에 깔리고 비올 조짐이 여전히 짙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6월 18일 바침.

## 0260. 1850년(철종 1) 6월 24일(양력 8월 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18a~718b)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44a~144a)

道內農形及臣營下今六月十六七日得雨九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文化·安岳·長連·延安·白川·平山·黃州·鳳山·瑞興等十三邑, 大小川渠, 無不漲溢, 而海州·延安·白川等三邑段, 傍川之田, 間多汰覆, 近浦之畓, 亦被潰決, 早晚各穀, 多有沈墊消灑之患. 長淵段, 淒風兼吹, 起花之木綿, 率多萎縮. 平山·黃州段, 川邊家舍, 或爲頽落, 汚下田畓, 俱被沈淹是如爲白乎旆, 載寧·信川·松禾·豐川·殷栗等五邑, 得三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列邑雨澤, 若是過濫, 田種畓稼, 多致傷損, 民事可悶是白乎旆. 臣營下今六月二十三日寅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二十四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六月二十四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우리 감영에 이번 6월 16일·17일에 내린 비가 9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용진·장연·문화·안악·장련·연안·배천·평산·황주·봉산·서흥 등 13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해주·연안·배천 등 3개 고을의 경우, 시냇가 밭은 그사이에 사태가 나 덮인 곳이 많았고, 포구 근처 논은 또한 터져서 올곡·늦곡 등 각종 곡식은 잠겨 녹아 없어질 근심이 많습니다. 장연의 경우, 서늘한 바람이 아울러 불어 꽃이 피기 시작한 목화는 대부분 쪼그라들었습니다. 평산·황주의 경우, 시냇가 집들은 더러 무너졌고 낮은 곳의 논밭은 모두 잠겼다고 합니다. 재령·신천·송화·풍천·은율 등 5개 고을의 경우 3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은 이처럼 지나쳤으니 논밭의 곡식은 대부분 손상을 입어서 백성들의 사정은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3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6월 24일 바침.

## 0261. 1850년(철종 1) 6월 28일(양력 8월 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18d~718d)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45b~145b)

今六月十六七日之雨, 海州等十八邑雨澤形止及臣營下今六月二十三四日得雨四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六七日之雨, 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等五邑, 川渠漲溢, 而遂安段, 田種各穀, 沈損非細是如爲白乎旆, 二十三四日之雨, 海州·延安·白川·長淵·松禾·信川·文化·殷栗·載寧·鳳山·瑞興等十一邑, 川渠大漲, 田種畚稼, 多日沈墊, 益致傷損, 而載寧·信川·文化·殷栗段, 傍川低下之處, 民家田畚, 多有頽壓潰決之患. 康翎·襄津得三犁是如爲白乎旆, 道內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發穗, 晚黍·粟·唐稷, 舉皆胚胎. 早稻·木綿, 三耘垂畢,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 始或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始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三耘. 早稻·木綿, 間間三耘, 晚稻今方再除草. 豆·太·木麥, 幾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兩次霪霖, 爲災轉甚, 言念民事, 極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六月二十八日封.

이번 6월 16·17일의 비로 해주 등 18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6월 23·24일 내린 비가 4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17일의 비로 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수안의 경우.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침수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23일·24일의 비로 해주·연안·배천·장연·송화·신천·문화·은율·재령·봉산·서흥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나 논밭의 곡식은 여러 날 잠기어 더욱 손상되었습니다. 재령·신천·문화·은율의 경우, 시냇가 낮은 곳의 백성 집의 논밭은 무너지고 터질 근심이 많습니다. 강령·웅진은 3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알을 뱉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두 차례 장마가 계속되어 재해가 도리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6월 28일 바침.

## 0262. 1850년(철종 1) 7월 1일(양력 8월 8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19d~720a)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48b~149a)

去六月二十三·四日之雨, 海州等十三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新溪·兔山·平山·黃州·遂安·金川等六邑, 川渠漲流. 安岳·長連·豐川等三邑, 大小川渠, 無不漲溢, 傍川田畝, 多有汰覆, 早晚各穀, 傷損非細是如爲白乎. 臣營下去六月三十日卯時始雨, 或霏或灑, 今七月初一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 而東風竟日大吹, 田種各穀, 不無受傷之慮, 先從營下近處而摘奸是白乎則, 發穗之黍·粟, 率多折傷, 方茂之豆太, 舉皆委靡,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列邑風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七月初一日封.

지난 6월 23·24일의 비로 해주 등 13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계·토산·평산·황주·수안·금천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안악·장린·풍천 등 3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 넘치지 않은 것이 없어, 시내가 논밭은 대부분 모래로 덮여 올곡·늦곡 등 각종 곡식이 입은 손상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지난 6월 30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7월 초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동풍이 하루 종일 크게 불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을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 먼저 감영 근처부터 캐보았더니 썩이 팬 기장·조는 대부분 부러지는 손상을 입었고 막 무성해지는 콩·팥은 거의 모두 시들시들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바람과 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7월 초1일 바침.

### 0263. 1850년(철종 1) 7월 5일(양력 8월 12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20b~720c)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49a~149b)

今七月初一日營下得雨一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白川等六邑, 得二犁. 海州·康翎·襄津·安岳·黃州等五邑, 得一犁. 殷栗·載寧·瑞興·平山等四邑, 得一鋤, 而海州·襄津段, 東風大吹, 早晚各穀, 多有披靡折傷, 被災淺深, 更爲摘奸馳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七月初五日封.

이번 7월 초1일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배천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웅진·안악·황주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재령·서흥·평산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해주·웅진의 경우, 동풍이 크게 불어 올곡·늦곡 각종 곡식이 대부분 바람에 쓸리어 꺾어지는 손상이 있고 입은 재해가 얕은지 깊은지는 다시 캐보고 긴급 보고하겠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7월 5일 바침.

## 0264. 1850년(철종 1) 7월 8일(양력 8월 1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0c~720d)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50a~150b)

今七月初一日之雨, 長淵等十五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長連川渠漲流, 鳳山·冤山·金川·新溪等四邑, 得二鋤. 谷山·延安得一鋤是如爲白乎旆, 道內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入實, 晚黍·粟·唐稷, 次第發穗, 早稻今始胚胎. 木綿漸次開花, 晚稻舉皆三耘. 豆·太·木麥, 再耘伊始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盡胚胎. 早稻三耘垂畢. 木綿間間起花, 晚稻方張三耘. 豆·太·木麥, 舉皆初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七月初八日封.

이번 7월 초1일의 비로 장연 등 15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장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봉산·토산·금천·신계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곡산·연안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이삭이 났으며, 올벼는 지금 이삭이 배기 시작했고, 목화는 점차 꽃이 피었으며, 늦벼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으며,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이미 다 알이 배었으며, 올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었고, 늦벼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7월 8일 바침.



## 0265. 1850년(철종 1) 7월 13일(양력 8월 20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21d~725c)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52b~160a)

去六月二十三、四日之雨, 大小川渠大漲, 道內各邑民家田畝, 多有頽壓潰覆之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是白乎則, 載寧郡段, 右里坊民家, 全頽爲二戶, 半頽爲四戶, 左里坊潰決民畝爲二石十四斗落, 三支江坊民家全頽爲八戶, 半頽爲五戶, 潰決龍洞宮畝爲二十石落, 明禮宮畝爲三石落, 德溫宮畝爲三石落, 民畝爲三十四石落, 銀叱只坊民家全頽爲一戶, 栗串坊渰死爲一名, 而屍身已爲拯得, 城垣坊潰決竹洞宮畝爲二十四石落, 龍洞宮畝爲二十石落, 摠戎廳畝爲五石落, 民畝爲一百五十四石十七斗落, 民畝爲十二石落是如爲白乎旆, 信川郡段, 東部坊民家全頽爲二十二戶, 半頽爲七戶, 潰決民畝爲一百三十二石落, 民田爲五十日耕, 加山右坊民家全頽爲一戶, 渰死爲一名, 而屍身已爲拯得, 潰決民畝爲三十石落, 民田爲二十日耕, 聲月坊民家全頽爲五戶, 潰決民畝爲十二石落, 月川坊民家全頽爲五戶, 潰決內司屯畝爲八石落, 民畝〈爲〉十八石落, 加串坊潰決民畝爲四十三石落是如爲白乎旆, 豐川府段, 泉洞坊民家全頽爲十二戶, 邑內坊民家全頽爲二戶是如爲白乎旆, 平山府段, 金巖坊民家全頽爲十一戶, 半頽爲四戶, 花川坊民家全頽爲十四戶, 半頽爲四戶, 細谷坊民家全頽爲四戶, 半頽爲三戶, 上寶山坊渰死爲一名, 而屍身已爲拯得是如爲白乎旆, 殷栗縣段, 縣內坊潰決宜嬪宮畝爲七斗落, 民畝爲三石九斗落, 覆沙民田爲二日耕, 西面坊潰決民畝爲十一石三斗落, 覆沙民田爲一日耕, 南面坊潰決民畝爲六石落, 覆沙民田爲五日耕, 北面坊潰決德溫宮畝爲四石落, 田爲四日耕, 民畝爲四石六斗落, 覆沙民田爲八日耕是如爲白乎旆, 文化縣段, 茸川坊潰決民畝爲九十石落, 葛山坊潰決民畝爲六十八石落, 用珍坊潰決民畝爲十五石落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此六邑之潦水漲溢, 殆挽近所罕, 民家全頽爲八十七戶, 半頽爲二十七戶, 人物渰死爲三名, 潰決宮畝爲一百三十四石七斗落, 屯畝爲十三石落, 民畝爲六百三十六石九斗落, 民田爲七十日耕, 覆沙宮田爲四日耕, 民田爲十六日耕是白如乎, 民戶漂頽, 人物渰死, 尤極驚慘乙仍于, 先自臣營, 別加顧助, 全頽及渰死人原恤典, 以各該邑所在常賑穀, 依例題給後, 渰死人段, 埋瘞之節, 從厚助給. 漂頽戶段, 借材助丁, 俾卽結構. 潰堰垵段, 董役修築之意, 連加申飭於各該邑是白遣, 半頽戶, 與全頽有異, 容可修葺而入處, 故原恤典不爲舉論爲白乎旆, 渰人役·姓名及漂頽戶家舍間數, 修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

乎旅，營邑間摘奸來往之際，自費多日，致此登聞之稽滯，不勝悚惶。緣由竝以馳啓爲白臥平事。

庚戌七月十三日封。

지난 6월 24일의 비로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크게 불어났고 황해도 내 각 고을의 백성 집과 논밭이 대부분 무너져 깔리고 터져서 뒤덮인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각 고을 보고를 접수해 보니 재령군의 경우, 좌리방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2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4가구, 좌리방의 독이 터진 백성 논은 2섬 4두락, 삼지강방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8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5가구, 독이 터진 용동궁 논이  
20석, 명례궁 논 3석, 덕온궁 논 3석, 백성 논이 34섬지기, 은질지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 울곶방의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이고 시체는 이미 건졌습니  
다. 성월방의 독이 터진 죽동궁 논이 24섬지기, 용동궁 논이 20섬지기, 충용청 논이 5섬지기, 백성  
논이 154섬 17두락, 백성 논이 12섬지기라고 합니다. 신천군의 경우, 동부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22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7가구, 독이 터진 백성 논이 132섬지  
기, 백성 밭이 50일경, 가산우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가구,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이미 건졌습니  
다. 독이 터진 백성 논이 30섬지기, 백성 밭이  
20일경, 성월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5가구, 독이 터진 백성 논이 12섬지기,  
월천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5가구, 독이 터진 내사둔의 논이 8섬지기,  
백성 논이 18섬지기, 가곶방의 독이 터진 백성 논이 43섬지기라고 합니다. 풍천부의  
경우 천동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2가구, 읍내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2호라고 합니다. 평산부의 경우, 금암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1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4가구, 화천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14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4가구, 세곡방의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4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3가구, 상보산방의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이미 건졌다고 합니다. 은율현  
의 경우, 현내방의 독이 터진 의빈궁 논이 7두락, 백성 논이 3석 9두락, 모래로 덮인  
백성 밭이 2일경, 서면방의 독이 터진 백성 논이 11섬 3두락, 모래로 덮인 백성 밭이  
1일경, 남면방의 독이 터진 백성 논이 6섬지기, 모래로 덮인 백성 밭이 5일경, 북면방의  
독이 터진 덕온궁 논이 4섬지기, 밭은 4일경, 백성 논이 4섬 6두락, 모래로 덮인 백성

발이 8일경이라고 합니다. 문화현의 경우 용천방의 독이 터진 백성 논이 90섬지기, 갈산방의 독이 터진 백성 논이 68섬지기, 용진방의 독이 터진 백성 논이 15섬지기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6개 고을의 큰물이 불어 넘친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백성 집 중 완전히 무너진 것이 87가구, 반쯤 무너진 것이 27가구, 빠져 죽은 사람이 3명, 독이 터진 궁논이 134섬 7말지기, 둔논이 13섬지기, 백성 논이 636섬 9두락, 백성 밭이 70일경, 모래로 덮인 궁밭이 4일경, 백성 밭이 16일경입니다. 백성 가구 물에 떠내려가거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니 더욱 놀랍고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도와주어 완전 무너지거나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 구호는 해당 각 고을에 있는 상진곡에서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고 그후 빠져 죽은 사람의 경우 매장하는 항목의 경우 넉넉하게 도와주고 물에 떠내려간 가구의 경우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주어 즉시 집을 짓도록 하고 독이나 물막이가 터진 곳의 경우, 작업을 독려하여 쌓으라는 뜻으로 연이어 단단히 해당 각 읍에 지시했습니다. 반쯤 무너진 가구는 완전히 무너진 것과 차이가 있어 더러 수리하여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구호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빠져 죽은 사람의 직책, 성명 및 떠내려간 가구의 건물 칸수는 정책을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규정대로 회계 처리토록 해주십시오. 감영과 고을 사이에 캐보는 조사관이 오고 갈 즈음에 여러 날이 소요되어 이렇게 아뢰는 것이 지체되었으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 합니다.

경술년 7월 13일 바침.

## 0266. 1850년(철종 1) 7월 18일(양력 8월 25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6a~726b)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0b~161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皆入實, 間間向熟, 晚黍·粟·唐稷, 已盡發穗, 早稻今方胚胎, 木綿方張開花, 間或結窠, 晚稻已皆三耘, 豆·太·木麥, 過半再耘, 而海州·延安段, 汚下之畝, 屢經潦漲, 沈墊消瀦之餘, 蟲蝕又熾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始或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發穗, 早稻間間胚胎, 木綿次第開花, 晚稻舉皆三耘, 豆·太·木麥, 再耘伊始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母論沿峽, 早晚各穀, 久被霍霍, 受傷非細, 而海州·延安之又此蟲損, 言念民事, 誠爲悶然, 而臣營下今月十八日卯時始雨, 一直霍下, 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七月十八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이 들고 더러 익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벼는 지금 막 알을 배기 시작했고, 목화는 한창 꽃이 피고 있는데 간혹 다래를 맺고, 늦벼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습니다. 해주·연안의 경우, 낮은 곳의 논은 여러 차례 큰비가 불어나 잠겨 녹아 없어진 나머지 벌레가 갉아먹는 일이 또 크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알이 들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올벼는 더러 알을 났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다 했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물가나 골짜기를 막론하고 올곡·늦곡 모든 곡식은 오랫동안 흄비를 맞아 손상이 적지 않습니다. 해주·연안은 또 이렇게 벌레 손상을 입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

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8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진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7월 18일 바침.

## 0267. 1850년(철종 1) 7월 20일(양력 8월 27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6b~726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1b~161b)

今七月十八日臣營下得雨一寸六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襄津·信川等三邑，得一犁，康翎得一鋤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月二十日丑時又雨，一直暴霖，至辰時乃止，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七月二十日封。

이번 7월 18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신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축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줄곧 세차게 주룩주룩 내리다가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7월 20일 바침.

0268. 1850년(철종 1) 7월 24일(양력 8월 31일)

各司謄錄 22책,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726d~727a) / 黃海監營狀啓謄錄 9책(162b~162b)

今七月十八日之雨, 海州等四邑雨澤形止及二十日臣營下得雨五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長淵川渠漲流, 鳳山得一犁, 殷栗·新溪·白川等三邑, 得二鋤是如爲白乎旃. 二十日之雨, 海州·康翎·長淵·信川·白川·金川·平山·新溪·載寧等九邑, 大小川渠, 無不漲流, 延安·黃州得二犁, 文化·鳳山·瑞興·殷栗等四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當各穀成就之際, 非時雨水, 若是過濫, 田種畚稼, 俱有傷損之慮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七月二十四日封.

이번 7월 18일의 비로 해주 등 4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8일의 비로 장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봉산은 1려가 내렸고, 은율·신계·배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20일의 비로 해주·강령·장연·신천·배천·금천·평산·신계·재령 등 9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르지 않은 것이 없었고, 연안·황주는 2려가 내렸고, 문화·봉산·서흥·은율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각종 곡식이 여물 즈음인데 이렇게 비가 지나치게 내렸으니 논밭의 곡식은 모두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7월 24일 바침.

## 0269. 1850년(철종 1) 7월 27일(양력 9월 3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7b~727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3b~164a)

今七月二十日之海州等十五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谷山·遂安·兔山等三邑，川渠漲流，松禾·安岳得二犁，豐川·長連得一犁是如爲白乎旆。農形段，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早黍·粟次第向熟，晚黍·粟·唐稷，間或入實，早稻今始發穗，木綿方張結窠，晚稻始或胚胎，豆·太·木麥，方始起花是如爲白乎旆。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早黍·粟過半入實，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發穗，早稻幾盡胚胎，木綿舉皆開花，晚稻三耘垂畢，豆·太·木麥，方張再耘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際此各穀成熟之時，雨水連仍，傷損頗多，民事可悶是白如乎。嗣後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七月二十七日封。

이번 7월 20일 해주 등 15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곡산·수안·토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송화·안악은 2려가 내렸고, 풍천·장련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은,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알이 들었고, 올벼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콩·팥·메밀은 막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올벼는 거의 다 알을 뻗고, 목화는 거의 다 꽃이 피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즈음 각 곡식이 익어가는 때인데 빗물이 연이어 내리어 손상된 것이 자못 많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은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7월 27일 바침.

## 0270. 1850년(철종 1) 8월 7일(양력 9월 1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8b~728b)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5a~16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刈取, 晚黍·粟·唐稷, 次第入實, 早稻方張發穗, 木綿幾盡結窠, 晚稻過半胚胎, 豆·太·木麥, 舉皆起花, 而延安段, 去七月初三日潮波溢濫, 沿海各坊畚庫, 俱爲盪漾, 而加之以潦水多日渟滯, 及其潮退水洩之後, 萎黃枯損, 一望無際, 收穗食實, 已矣無望是如是白遺. 白川段, 濱海之畚, 舊水不洩, 新潮漲溢, 消灑萎枯之患, 在在皆然, 難望有秋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間間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入實, 早稻間或發穗, 木綿方始結窠, 晚稻間多胚胎, 豆·太·木麥, 今方起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延安·白川之沿海畚庫, 已經潮溢, 爲害非細,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八月初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더러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올벼는 한창 이삭이 났고 목화는 거의 다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절반 이상 알이 배었고 거의 다 꽃이 피었습니다. 연안의 경우 지난 7월 초3일 파도가 넘쳐 바닷가 각 마을의 논은 모두 다 물결이 일렁였고 게다가 큰비가 여러 날 정체했습니다.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이 빠진 후에 누렇게 시들고 마른 것이 한눈에 보아도 끝이 없어서 이삭을 거두어 알맹이를 먹을 가망을 이미 없다고 합니다. 배천의 경우, 바닷가 근처의 논은 앞선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새롭게 바닷물이 불어나 넘쳐 녹아 없어지고 시들러 마를 걱정이 곳곳마다 갈아서 가을걷이할 가망이 어렵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익어갔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이제 비로소 알이 들었고, 올벼는 간혹 이삭이 났고, 목화는 막 다래가 맺히기

시작했고, 늦벼는 그사이에 알이 밴 것이 많았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안·배천의 바닷가 근처 논은 이미 바닷물이 넘쳐서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8월 7일 바침.

## 0271. 1850년(철종 1) 8월 17일(양력 9월 22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9a~729a)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7a~167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 今方刈取, 早稻漸次向熟, 木綿間或摘取, 晚稻舉皆發穗, 豆·太·木麥, 過半結穀, 而海州·長淵·延安·白川, 今八月初六日, 寧風亂吹, 早稻之已發者, 在在偃仆, 晚稻之僅發者, 間間萎枯, 而未發居多, 豆·太·木麥, 率多披靡, 信川·松禾, 木綿結顆既稀, 摘取無多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成熟, 早稻幾皆入實, 木綿已盡結顆, 晚稻方張發穗, 豆·太·木麥, 今始結穀, 而遂安·谷山·新溪, 黍·粟發穗之時, 因雨消澌, 餘存者不過十之六七, 而方熟之際, 又被風損, 食實無幾, 豆·太·木麥, 均受其病, 而木綿尤爲甚焉. 金川·平山, 晚澇頻仍, 田種畚稼, 俱爲消縮, 間多有全棄處, 而海州·金川·平山, 今八月初九日夜霜降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各邑災損, 旣若是非細, 霜信又爲太早, 已是憂悶, 而臣營下今八月十五日巳時始雨, 或霏或灑, 十七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 而東風兼作, 連三日大吹, 先從營下近處而摘奸是白乎則, 田畚各穀, 無不掀翻, 亦多剝落之患, 言念民事, 轉益悶然是白如乎. 列邑風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八月十七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점차 익어갔고 목화는 갈혹 났고 늦벼는 대부분 싹이 났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해주·장연·연안·배천은 이번 8월 초6일 사나운 바람이 어지러이 불어 올벼 중 이미 이삭이 팬 것은 곳곳에 쓰러졌고 늦벼 중 겨우 이삭이 팬 것은 간간이 시들어 말라서 대부분 패지 못했고, 콩·팥·메밀은 대부분 문드러졌고, 신천·송화는 목화 중 다래가 맺은 것은 이미 드물었고, 딸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차례로 익었고, 올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목화는 이미 다래가 맺혔고, 늦벼는 한창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지금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안·곡산·신계의 경우 기장·조는 이삭이 났을 때 비로 인해 녹아버려서 남아 있는 것은 10개 중 6, 7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막 익을 즈음에 또 바람으로 손상을 입어 먹을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콩·팥·메밀은 골고루 병이 들었는데 목화는 더욱 심했습니다. 금천·평산의 경우, 늦장마가 빈번해져 논밭의 곡식은 모두 녹고 작아져 그사이 전부 포기한 곳이 많았습니다. 해주·금천·평산은 이번 8월 초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각 고을에서 재해가 이미 이처럼 적지 않은데 서리가 내리고 또 너무 가물어 이미 이렇게 근심 걱정합니다.

저의 감영의 이번 8월 15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풍이 아울러 일어나 연 3일 크게 불었습니다. 먼저 감영 근처에서부터 캐보았더니 논밭의 각종 곡식은 훔날리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깎여 떨어져 나갈 걱정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더욱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의 비바람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8월 17일 바침.

## 0272. 1850년(철종 1) 8월 21일(양력 9월 26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9b~729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7b~168a)

道內農形及臣營下今八月十六七日風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襄津·長湍·延安·白川·金川等六邑，川渠微漲，寧風大吹，發穗之禾稻，折莖而披靡，結穀之豆·太·木麥，翻蔓而磨盪。載寧·信川·文化等三邑，得二犁，黃州·鳳山得一犁，而淒風兼作，向熟之各穀，致傷居多，方摘之木綿，受害偏甚，康翎·瑞興得一鋤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今番風雨，七邑被災，若是不尠，言念民事，去益悶然是白如乎。餘外列邑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八月二十一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의 이번 8월 16·17일 비바람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장연·연안·배천·금천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사나운 바람이 크게 불어 이삭이 팬 벼 곡식은 줄기가 부러지고 벗겨졌고 꼬투리를 맺은 콩·팥·메밀은 뒤집히고 완전히 문질러졌습니다. 재령·신천·문화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황주·봉산은 1려가 내렸고, 서늘한 바람이 아울러 일어나 익어가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손상을 입었고 막 따던 목화는 입은 피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강령·서흥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비바람으로 7개 고을이 입은 재해는 이처럼 적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입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8월 21일 바침.

### 0273. 1850년(철종 1) 8월 25일(양력 10월 1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9c~729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8a~168a)

今八月十六七日之雨, 海州等十三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谷山·新溪等三邑, 川渠漲流, 穽風兼吹, 田種畚稼, 無不傷損. 安岳·兔山得二犁, 豐川·平山得一犁, 松禾·殷栗·長連等三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遂安等三邑之災損, 固已非細, 而今番風雨, 又爲孔酷, 餘存各穀, 雖望成實, 言念民事, 誠爲可悶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八月二十五日封.

이번 8월 16·17일의 비로 해주 등 13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곡산·신계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맹렬한 바람이 아울러 불어 씨앗을 뿌린 밭과 논은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안악·토산은 2려가 내렸고, 풍천·평산은 1려가 내렸고, 송화·은율·장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수안 등 3개 고을에 재해는 진실로 적지 않는데, 이번 비바람이 또한 매우 혹독하여 남아 있던 각종 곡식은 비록 알이 맺을 가망이 있지만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8월 25일 바침.

## 0274. 1850년(철종 1) 8월 28일(양력 10월 4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29d~730a)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68b~169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舉皆成熟, 木綿過半摘取, 晚稻幾皆入實, 豆·太·木麥, 今始成實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盡刈取, 早稻漸次成熟, 木綿方張摘取, 晚稻次第入實, 豆·太·木麥, 已盡結穀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蓋今年農形, 毋論沿峽, 早晚黍·粟, 備經突傷, 仍爲失稔, 比之常年, 殆減三分之二, 豆·太·木麥, 屢經獐風, 成實無多, 木綿久值霖雨, 枝葉既不茁茂, 加以風災, 窠房又多撲落, 綻綿甚稀, 摘取零星, 至於禾稻, 雖有潰覆消灑之患, 而受災不甚處, 庶有食實之望是白如乎, 言念民事, 誠爲悶然.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庚戌八月二十八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벼는 대부분 익었고, 목화는 절반 이상 땀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콩·팥·메밀은 지금 꼬투리를 맺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벼는 점차 익어갔고, 목화는 한창 따고 있고, 늦벼는 차례로 알이 들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대개 올해 농사의 경우, 물가나 산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올기장·올조·늦기장·늦조는 갖가지 상처를 입어 이내 여물지 못했는데 보통 해에 비해 거의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콩·팥·메밀은 여러 번 맹렬한 바람을 겪어 열매를 이룬 것이 거의 없었고 목화는 오래 장마를 만나 가지와 잎사귀가 이미 자라 무성해지지 않았고 바람의 재해가 더해도 다래방이 또한 많이 떨어졌고 숨이 터진 것이 매우 적었고 탄 것은 엉성했습니다. 벼 곡식의 경우, 비록 독이 터져 모래가 덮이고 녹아 없어진 근심이 있지만 입은 재앙이 심하지 않은



곳은 아마도 알맹이를 먹을 가망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8월 28일 바침.

## 0275. 1850년(철종 1) 9월 9일

各司臚錄 22책,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730b~730c) / 黃海監營狀啓臚錄 9책(170b~171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方張刈穫, 木綿幾盡摘取, 晚稻已盡成熟, 豆·太·木麥, 舉皆成實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稻今方收穫, 木綿過半摘取, 晚稻方張入實, 豆·太·木麥, 今始成實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蓋今年農形, 禾穀雖有汰覆消灑之患, 受災不甚處, 庶有食實之望, 黍·粟備經災傷, 不無失稔之歎, 木綿久值霖雨, 枝葉不茂, 又經風災, 窠房撲落, 綻綿稀少, 摘取無多, 豆·太·木麥, 一經凜風, 翻根掀莖, 結穀甚稀, 成實零星, 言念民事, 誠甚悶然是白如乎. 各邑災實分等, 待概狀齊到,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庚戌九月初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벼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목화는 거의 다 땀고, 늦벼는 이미 다 익었고, 콩·팥·메밀은 거의 모두 알이 맺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벼는 지금 막 수확했고, 목화는 절반 이상 땀고 늦벼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콩·팥·메밀은 지금 알이 맺히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대개 올해 농사의 경우, 벼곡식은 비록 사태가 나 모래가 덮거나 녹아 없어지는 근심이 있었지만, 재앙 입은 것이 심하지 않은 곳은 아마도 열매를 먹을 가망이 있습니다. 기장·조는 잦은 재앙을 겪어 여물지 못한다는 탄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목화는 오랫동안 장맛비로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해지지 않았고 또 바람 재해를 겪어 다래방이 떨어져 솜이 터진 것이 드물고 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콩·팥·메밀은 한번 맹렬한 바람을 겪어 뿌리가 뒤집히고 줄기가 뽑혀 꼬투리를 맺은 것이 매우 적고 알맹이가 맺힌 것이 엉성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각 고을의

재해와 결실 등급은 개요가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경술년 9월 초9일 바침.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75-01
ISBN	979-11-6988-374-0(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a href="https://science.kma.go.kr/museum">https://science.kma.go.kr/museum</a>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